

월간

우리 문화

M A G A Z I N E



월간 우리문화 · 2001년 10월호(통권156호) · 등록번호: 라-3627(1984.7.12)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우 121-715) · 값 3,000원



2001 **10**

월간

우리 문화

2001 · 10

2001년 10월호(제15권 10호 통권 156호)

등록 / 라-3627(1984. 7. 12)

발행처 / 전국문화원연합회

주소 / (우:121-715)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화 / 704-2311~3

FAX / 704-2377

인터넷 / www.kccf.or.kr

발행권 편집인 / 李秀洪

사무총장 / 安辰洙

인쇄소 / 크리홍보(주)

발행일 / 2001년 10월 1일

정가 / 3,000원

※월간 「우리문화」는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만산을 온통 발갛게 뒤덮을 즈음
아들 녀석 손잡고 고향으로 가는 황톳길.
누런 배아삭 위로 참새떼들 날아오르고
하늘에 떠 있는 뭉게구름
고향집으로 먼저 흘러가고...
들뜬 허수아비
달달아 마음이 붉게 물들어 갑니다.

표지 일러스트 정진웅

프리랜스 일러스트레이터.

한국 출판미술협회 운영위원.

국제 어린이 도서협의회 회원.

1988년부터 다양한 언론매체에서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달 의 목 차

36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



41 ◆ 2001, 지역문화의 해



웹진 우리문화 탄생

월간 '우리문화' 인터넷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클릭! 월간 '우리문화'. 우리의 전통문화·지역문화·생활문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월간 '우리문화'는 종이 잡지에 게재된 내용을 PDF시스템으로 온라인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종이잡지를 읽는 재미를 그대로 인터넷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www.kccf.or.kr

- | | |
|---|-----------------------|
| 2 ◆ 날줄씨줄 · 주5일 근무제와 '제2의 문예부흥시대' | 손대현 |
| 4 ◆ 역사再조명 · 다시 쓰는 '실록 흥길동' | 양권승 |
| 7 ◆ 문화부 · 신임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 | 편집부 |
| 8 ◆ 이달의 문화인물 · 한국 유학의 祖宗 설총 | 편집부 |
| 9 ◆ 고향이 좋다 · "내년 풍기에 대한광복단기념관 개관" | 강민철 |
| 17 ◆ 특집 · 나만의 향토사 연구 노하우 | 김민수 · 정향교 · 홍성익 · 정명찬 |
| 25 ◆ 옛사진 · 사진으로 보는 전주의 모습 | 편집부 |
| 26 ◆ 문화계 CEO의 삶과 일 · "나는 한국문예진흥원을 연출한다" | 박계현 |
| 28 ◆ 이달의 세시풍속 · 음력 9월9일 출수가 두 번 겹쳐 복이 들어오는 날 | 박후식 |
| 30 ◆ 월드컵! 지역문화로 이기자 · 운동장 안은 '순간' 운동장 밖은 '영원' | 이기진 |
| 33 ◆ 참관기 ·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하나" | 김계담 |
| 36 ◆ 문화상품을 만드는 사람들 ㉯ · '휴대용' 옷 · '한국형' 화투 문화상품화 | 강민철 |
| 38 ◆ 전통의 멋과 맛 · 제주에 유배온 정씨부인이 만든 母酒서 유래 | 류장수 |
| 41 ◆ 2001, 지역문화의 해 · "문화 행정 · 재정적 지원 방식 개선 필요" | 김두진 |
| 49 ◆ 서울의 옛문화 · 잠두봉에 오르면 시가 절로 흥이 절로 | 마포문화원 제공 |
| 52 ◆ 한국의 동식물 · 4C 중엽 군자의 나라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 박계현 |
| 54 ◆ 대중문화 · 우리의 잃어버린 꿈과 사랑에 대한 쓸쓸한 보고서 | 박계현 |
| 56 ◆ 생활의 지혜 ·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 해조류라도 많이 먹어야 건강 | 편집부 |
| 58 ◆ 다시생각 · 日 역사 교과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 ㉠ 후소사 | 편집부 |
| 62 ◆ 지역문화 뉴스 ·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등 | 편집부 |
| 72 ◆ 오픈북 · '서산해미읍성 축제' 관광객, 지역경제에 6억8천만원 '생산파급' | 서산문화원 제공 |
| 76 ◆ 신간안내 · 세종대왕의 일 등 | 편집부 |
| 78 ◆ 문화원 네트워크 · 전국에 212개 문화원이 있습니다 | 편집부 |
| 80 ◆ 지방문화원 홈페이지 순례 · 춘천문화원 | 강민철 |

주5일 근무제와 '제2의 문예부흥시대'

최 근 워싱턴 포스트지가 조사대상 32개국 중 한국 근로자의 주당 노동 시간은 55시간으로 최장이며 평균 10시간 이상 많이 일한다고 보도했다.

더 일해서 더 얻는 것보다 좀 덜 일해서 더 큰 것을 얻는다면 어느 쪽을 택해야 할 것인가. 이같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이란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지켜오던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주 5일 근무제'를 추진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발표했다. 이제 주5일 근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 되었고 만약 2002년이든 2003년이든 이 제도가 실시될 때 지각변동적인 파급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자본주의적 고도 산업사회의 물결 속에 휩쓸린 평균적인 한국인의 삶이 점점 정교하게 프로그램된 시간 속에 놓여 있다. “나는 바쁘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며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이 옆에 있음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 마치 속도라는 마법에 걸려들어 빠르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욱 빨리 움직이도록 강요받는 형국이다. 느림과 게으름은 자본주의와는 상극이다.

마르크스의 사위이자 의사인 폴 라파르그는 ‘게으를 수 있는 권리’(1883)란 저술에서 예수의 산상수훈 중 게으름에 관한 설교를 하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그의 신성한 게으를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선언은 하루에 3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한가로움과 놀이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는 천재적인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

가히 살인적인 노동시간 하에서도 치욕적인 IMF를 맞았고 그 전이든 후이든 재미있게 살기는 더 어려워지고 인간답게 살기는 힘들어지고 있다. 경제 살리기 운동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21C는 사람됨됨이와 사람답게 사는 삶의 축을 수정해야 하는 세상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의 속담처럼 “사람은 어려운 때 일수록 재미를 알고 살아야 하며 우리의 마음에는 하루도 기쁨이 없어서는 안되”며 가난한 때일수록 즐거운 시간을 갖는게 중요하고 또 이렇게 해야만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빠르게 돌아가는 디지털 시대의 메가트렌드는 정서(service)와 연성(soft)사회이다. 세계처처에서 레저인구의 편만과 현대인이 누리



손 대 현
한양대 국제관광대학원장

는 소통(communication)과 유락(entertainment)의 편재현상은 보편적 추세이다.

주 5일제가 실시되면 레저와 문화의 수요증가는 폭발할 것이다.

소크라테스 이래 많은 철인들이 얘기했듯이 철학과 문화는 레저의 산물(product of leisure)이듯이 인류 구원의 문화창조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레저의 방향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문화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문화를 창조하지만 똑같이 문화가 인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간은 컨셉이 없이는 살 수 없고 이 컨셉은 곧 혼이다. 그래서 철학의 역사는 컨셉의 역사인데 헤라클레이토스의 컨셉은 로고스이며 소크라테스는 아레테, 플라톤은 이데아를 강조했다. 아레테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탁월성 유능성을 말하는데 즉 아레테는 고상한 행동과 고상한 생각(noble actions and noble thoughts)이 함께 있는 상태로 이것은 그리스인의 생활양식의 기초이며 이상적인 인간관이었다. 이 아레테 철학은 바로 레저와 자유의 결합으로써 이루어진다. 아레테에 대한 우리 말은 덕(德)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레저는 문화를 짓는 자양이고 토양이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까지 레저의 소유와 분배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 특정 소수의 레저가 지금은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레저의 민주화란 진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레저충격은 우리가 사는 당대에 일찍이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가장 두드러지고 기이한 현상으로써 이 레저라이프스타일 문화(leisure lifestyle culture)는 세계적 보편 추세로서 레저의 '세계 철학'을 출현시켰다.

현대인들이 레저생활을 무의미한 목적이나 단순한 소일꺼리(killing time)로 보내는데 반해 그리스인들은 진지하게 그들의 레저를 취했고 필요한 지적 추구(seeking for)로 현명하게 보냈다.

그래서 그리스의 철학을 꽃피게 한 레저는 세계의 문화를 생산한 기본적인 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건강레저(삼림욕, 온천여행), 취미창작레저(영화 감상, 그림그리기), 스포츠레저(골프, 헬스센터), 오락레저(등산, 외식), 학술레저(독서, 박물관), 관광레저(여행, 국제관광), 봉사레저(사회참여, 종교활동) 등 그 콘텐츠가 다양하듯이 그것이 빛나는 문화프로그램 또한 실로 다종다양할 것이다.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살아있는 모든 날을 기뻐하라." 더 느끼고 더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맛보며 사는 삶,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잘 살아야 하는 흥미하는 삶, 즉 흥미되지 않는 삶은 살아 갈 가치가 없는 것이다. 주 5일 근무제의 충격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뜻에서 레저와 같은 일련의 활동을 가속시킴으로써 21세기는 마야흐로 개인의 행복이 강조되는 제 2의 문예부흥시대를 몰고 올 것이다. 

● 주 5일제가 실시되면
레저와 문화의 수요증가는
폭발할 것이다.
소크라테스 이래
많은 철인들이 얘기했듯
이 철학과 문화는 레저의
산물(product of leisure)이듯이
인류 구원의
문화창조를 위해서는
바람직한 레저의 방향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

다시 쓰는 '실록 홍길동'

홍길동 전은 허균이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소설로 그 주인공인 홍길동은 임란 이후 사회의 혼란과 양반 토호들의 횡포가 극에 이르자 서민들의 영웅으로서 소설 속에서만 그들의 애환을 대신해 준 인물이다.

그런데 이 홍길동이 실존인물이었다는 흔적이 조선 중기의 여러 문헌들과 일본의 유물들에 남아있다. 이제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홍길동의 진짜 얼굴을 살펴보자.

홍길동은 전남 장성의 '실존인물'

홍길동은 1440년 전라도 장성현 아차곡(아치실), 오늘날의 전남 장성군 황룡면 아곡 1리 아치실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일본 오키나와 이시가키지마(석원도) 야에잔 박물관에 소장된 장전대주(홍길동의 처남)의 족보에는 正統八年, 즉 1443년에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다.

홍길동의 어머니인 옥영향(玉英香)은 관기로 홍길동의 아버지인 홍상직이 총애하는 여인이었다. 배가 다른 홍길동의 두 형인 귀동과 일동의 어머니는 남편 문씨이다. 소설에서는 춘섬(春蟻)으로 나오는데, 이는 홍길동전의 작가인 허균이 자신의 애첩의 이름이 추섬(秋蟻)인데서 명명한 것이다. 춘섬은 봄 두꺼비라는 뜻으로 집안에 부귀와 복을 가져다주는 염원이 담겨있다.

홍길동은 20살 무렵 서얼의 관리 등용

을 금지하는 경국대전(경국대전)의 반포로 과거 시험을 포기하고 집을 떠나 나주목 관할 장성현, 갈재(葭嶺)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광주 무등산, 영암 월출산에 본거지를 정하고 주로 탐관오리와 토호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에게 나눠주는 의적 활동(의적)을 했다. 지리산 근처의 경상도 하동군 화계면 보리암자에 지휘부를 두고 관군과 대항했으며, 멀리 경상도 진주에까지 세력을 펼쳤다. 그리고 김천 황악산에 들어가 학조대사에게서 병법과 무술을 배웠다.

이후 장영기(張永己)라는 이름으로 변성했으며, 전국 팔도(八道) 시장에 정보원(첩자)을 파견해 민심을 파악했다. 그러던 중 1469년(예종 1년) 10월 정부의 대대적인 토벌작전으로 활동 무대를 서남해안의 섬으로 옮기게 된다.

1469년 11월 중순에 관군에 쫓겨 전라도 영광 다경포(현재의 법성포) 근처의 영평곶에서 배를 타고 나주 압해도(신안군 압해도) 쪽으로 활동 근거지를 옮기게 된 홍길동 세력은 이로써 활동범위가 육지에서 바다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훗날 뱃길로 3천리나 떨어진 일본 오키나와에 울도국이라는 해상왕국을 건설하는 계기가 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집단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직접 농사도 짓고 염전을 경작하고 어업활동을 했으며 상업활동(시장에서의 장사)까지 영위하면서 부패한 정부와 관료를 상대로 반봉건 투쟁을 벌였다.



양 권 승
한국국보학연구소 부소장

1470년, 관군의 집요한 토벌작전을 피하기 위해 가짜 홍길동을 내세워 체포당하게 하는 계약을 꾸민 홍길동 집단은 남서해안의 여러 섬을 중심으로 생업에 종사하며 평화스럽게 살았다. 그러나 1485년, 성종 20년 11월, 명에 욕이 강했던 전라도 도사 한건이 이들을 폭도로 몰아 강경진압을 결행하고 관아에 끌고가 매질해 죽이는 사태가 발생하자 홍길동 집단은 생업을 뒤로 한 채 재무장 투쟁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이들을 잡기 위해 1487년에는, 홍길동 집단은 물론 생계유지를 위해 어민들이 주로 이용하던 거도선(바닥이 평평하고 근거리 이동에 용이함) 이용을 금지하는 명령이 내려지고, 1489년에는 홍길동 집단을 색출하기 위해 바다를 왕래하는 사람을 상대로 통행증을 발급해 활동을 원칙적으로 봉쇄한다. 1490년 관군의 해상봉쇄 작전으로 고립에 빠진 홍길동 집단은 2개조로 나누어 전라도 남해안 광양현(현재의 순천 광양만)으로 상륙을 단행한다. 그러나 또 다시 관군에 쫓겨 지리산 근처 임실 평당원에서 종적을 감춘다.

1495년, 연산군 1년, 충청도 조령, 문경새재를 주요 활동지로 홍주와 공주를 생활 근거지로 삼아 충청도 전역으로 세력을 넓힌 홍길동 일행은 공주 무성산 정상(614m)에 요새를 쌓고 관군에 대항해 집단생활을 영위했으며, 이 시기에는 엄귀손 등 조정의 고위직 관리는 물론 지방의 수령, 아전, 유향소의 품관들까지 이들의 활동을 동조했다.

1500년, 연산군 6월, 수년에 걸친

전국적인 가뭄과, 무오사화로 인해 사림파들의 상당수가 목숨을 잃거나 귀양을 가게 되는 사건으로 인해 조정에 대한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게 된다. 그러자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석방해 가족과 함께 함경도 지방에 가서 살도록 하는 대사면령이 내려지는데 이로 인해 홍길동 집단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체포되는 형식으로 자수했다. 그러나 강상죄(고위관직을 사칭해 관리를 능욕한 죄)라는 이유로 충청도에서 서울로 압송, 의금부에 갇히게 되고, 11월에 남해 삼천리 유배형을 받는다.

1500년 12월 하폐루마지마로 이동

이로 인해 홍길동 집단의 본거지는 해외로 옮겨지게 되어, 1500년 12월 5일 하폐루마지마(파조간도)에 정착하게 된다. 그리고 이시가카지마(석원도) 오하마무라(대병촌) 후루수토 지역에 집단 거주지를 조성하고, 죽부도, 서포도, 여나국도 등 인근의 지배권을

장악한다.

1504년에는 미야코지마(궁고도)의 추장인 나카소네의 혹독한 압제와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에 시달리던 원주민을 규합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카소네 집단을 섬의 동북부 밀림지역으로 몰아내고 상비옥산(上比屋山)에 조선 도래인들의 집단 주거를 위해 초가집 군락을 조성한다.

이후 구에지마(久米島)에 상륙, 추장인 마다후쓰를 몰아내고 일본, 유구국, 중국을 상대로 중계무역을 하면서 동지나해의 해상권을 장악, 섬의 요처에 적으로부터 방어하기에 유리한 조선양식의 성을 구축한다. 우에구수쿠(宇江城)는 홍길동의 장남이 구축해 섬의 최정상에 위치했으며, 나카구수쿠(中城)는 홍길동의 차남이 조성했고, 이 외에 구시가와구수쿠(具志川城)가 있었다.

이렇게 일본에서 활동하던 홍길동 집단의 세력은 홍길동이 사망한 이후 점점 쇠퇴하게 된다. 한문본 홍길동전



장성 황룡면 아곡리 홍길동 생가터

인 위도왕전에는 1510년 홍길동이 70세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1543년 홍길동의 후예들이 해상 무역 활동 중에 태풍을 만나 표류하다가 충청도 해안에 상륙했으나 조정에서는 이들이 이미 조선인이 아니라 하여 중국(明)에 돌려보냈다.

그리고 1609년 일본 본도의 싸쓰마번(임진, 정유재란시 조선인의 코와 귀를 가장 많이 베어간 인물임)의 유구국 침공으로 오키나와 열도의 지배권이 일본에 넘어갔다. 이로 인해 홍길동이 세운 오키나와 열도의 해상왕국도 복속된다.

그리하여 1612년에는 홍길동의 후예들이 고국인 조선으로 돌아오기 위해 탈출 망명을 시도해 배를 타고 경

상도 앞바다에 도착하게 된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이들을 일본군의 재침공으로 오인해 한양(서울)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대부분의 벼슬아치들이 피난길에 올라 서울이 텅 비게 되는 일도 있었다.

강릉도 '홍길동' 상표 등록

홍길동이 오키나와에 전해 준 우리의 문화로는 줄다리기와 택견, 탈춤, 서낭당제, 용왕굿이 있다. 그리고 성 쌓는 기술을 전해주었으며, 당시까지 의술하는 사람이 없던 오키나와에 의술을 전해주었다. 그리고 홍길동의 부인인 고을노는 조선에서 미질이 좋은 신품종의 벼씨(쌀)를 오키나와에 가져갔다. 오키나와 일대에는 이미 안남미

(安南米)라는 남방계의 쌀이 있었으나 질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오키나와 야에야마(八重山) 지역에서는 고을노를 풍요의 여인으로 추앙하고 있다.

최근 구지천성 발굴 과정에서 고려청자와 조선백자, 그리고 조선의 돌(화강암)로 만든 선박용 닻이 발견되었으며 해동통보와 함께 국적미상의 龍鳳通寶가 발견되었는데 이로 미루어 최근 학계에서는 홍길동 집단이 오키나와를 지배하던 기간(1500~1612년)에 오키나와 현지에서 주도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일본에는 여러 곳에 홍길동의 유적지가 남아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홍길동을 놓고 소유권 논쟁이 일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곤했다. 한 예로 강릉에서는 소설 홍

길동의 저자 허균을 기리는 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홍길동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강릉은 이미 수십종의 홍길동 상표권을 갖고있다. 



홍길동이 일본에서 탔다고 전해지는 말안장.
(일본 오키나와 하에바루 시로마세 소장)



일본 석원도 오키나와 기원 공원에 세워진 홍가와라 추모비



홍길동 산성(충청남도 공주시 소장)

신임 남궁진 문화관광부 장관

새 문화관광부장관에 남궁진 前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이 임명됐다. 김대중 대통령은 9월 19일 구로을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표를 제출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 후임에 남궁진(南宮鎭·59) 前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을 발탁했다.

청와대 오홍근 대변인은 “신임 남궁장관은 국정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조정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인물로 폭넓게 문화관광 행정을 이끌 적임자”라고 기용 배경을 설명했다.

1984년 민주협 기획위원으로 정치를 시작한 남궁장관은 동교동계 핵심으로 92년 김대중 대통령이 영국에 체류할 동안 국내에서 아태재단을 총괄 지휘했다. 14대에 전국구로 원내에 진입해 15대때 경기도 광명갑에서 당선됐으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포기했다. 일을 처리하는데 성실하고 치밀해 김대중대통령이 별명을 ‘황소’라고 지어줬을 정도다. 동교동계 입문 17년만에 올해 처음으로 여름 휴가를 다녀왔을 만큼 매사에 열성적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심임이 두터워 야당 총재때는 중요한 ‘밀사’ 역할을 많이 맡았다고 평가받는다.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 사건으로 당시 평민당 총재였던 김대중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박세직 전안기부장과 담판을 지어 몸으로 막은 일화는 유명하다. 독서량이 풍부해 박식하고 특히 동서양철학과 역사에 조예가 깊다. 정무수석으로 바뀐 와중에도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가 자주 간증을 할 만큼 독실한 크리스천이다. 취미는 등산. 부인 유영숙씨와 2남. △충남 논산 △중앙고 · 고려대 법학과 △평민 · 민주당 총무국장 △14 · 15대 의원 △국민회의 부총무 · 제 1정조위원장 · 연수원장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

신임 남궁장관은
국정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조정력과 정치력을 겸비한 인물로
폭넓게 문화관광 행정을
이끌 적임자란 평가다.

”

한국 유학의 祖宗 설 총

설 총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직전인 태종무열왕 때 고승 원효의 아들로 태어나 문무왕, 신문왕, 효소왕을 거쳐 성덕왕 때까지 활동한 유학자이다.

그는 삼국시대에서부터 수용해 온 중국의 경학, 그 가운데에서도 훈고학을 익히고 당나라 시대에 와서 하나로 통일된 유학(儒學)의 경전을 연구해 우리말로 해석하고 경전의 한자에 훈고학적인 주석을 단 공이 크다.

그의 우리말 경전 해독은 석독구결을 지은 것인데 이것이 신라의 국학에서 교수용으로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구결이 경전의 표준적인 해석이 되어 13세기까지도 명경(明經)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학습해 내려왔다. 설 총은 이러한 업적으로 10세기까지는 '한림(翰林)'으로 불렸고 신라 10현의 한 사람이기도 하다. 11세기초 현종 13년(1021)에는 홍유후(弘儒侯)로 추증되어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문묘(文廟)에 배향(配享)되었고 한국의 유종(儒宗)으로 일컬어졌다.

설총의 석독구결은 경전에 우리말의 조사나 어미 또는 말음첨기(末音添記)를 나타내는 토를 붙여 그 한문을 우리말

로 풀어 읽는 방법을 표시한 것이다. 이 토는 향찰과 이두 등 모든 차자표기법에 응용되어 우리말 표기법의 원천이 됐다. 이 구결의 보급으로 인해 향찰, 이두, 구결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들은 우리 선인들의 문자 생활을 매우 풍요롭게 해 우리 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로 풀어 읽는 방법을 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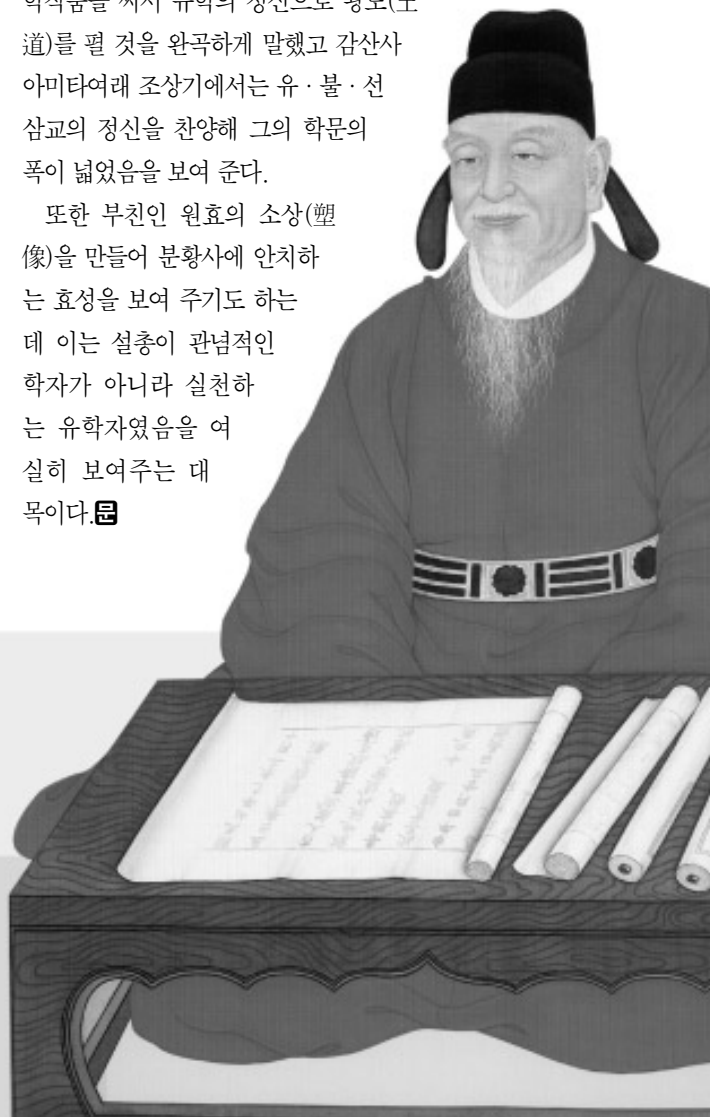
이 토는 향찰과 이두 등 모든 차자표기법에 응용되어 우리말 표기법의 원천이 됐다. 이 구결의 보급으로 인해 향찰, 이두, 구결의 발달을 가져왔고 이들은 우리 선인들의 문자 생활을 매우 풍요롭게 해 우리 문화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설총은 '화왕계(풍왕서)'와 같은 최초의 가전체 문학작품을 써서 유학의 정신으로 왕도(王道)를 펼 것을 완곡하게 말했고 감산사 아미타여래 조상기에서는 유·불·선 삼교의 정신을 찬양해 그의 학문의 폭이 넓었음을 보여 준다.

또한 부친인 원효의 소장(塑像)을 만들어 분황사에 안치하는 효성을 보여 주기도 하는데 이는 설총이 관념적인 학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유학자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설총' 학술 발표회

- 일 시 : 2001. 10. 9(화), 14:00~17:00
- 장 소 : 경산시 여성회관 강당
- 주 최 : 경산문화원 (☎ 053-815-0593)
- 내 용
 - 설총의 생애 : 서수생 박사(경북대학교 교수)
 - 설총의 학문 : 김문응 박사(대구교육대학교 교수)
 - 설총의 유적 : 조준호 박사(경산대학교 석좌교수)
- ※ 좌장 : 권영철 박사(경산대학교 석좌교수), 토론·향토사학가 등



문화원장 인터뷰 ‘영주는 충절의 고장’ 이라고 말하는 정지옥 영주문화원장

“내년 풍기에 대한광복단기념관 개관”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영주는 유불문화가 공존하는 곳입니다. ‘호국불교’와 ‘군사부일체’라는 정신이 면면히 흘러 단종복위운동이 일어났으며 한일합방이 후에는 나라를 되찾으려는 애국정신이 발로했습니다. 영주는 전국 최초의 무장독립운동단체인 ‘대한광복단’이 결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정지옥 영주문화원장(66)은 영주를 ‘충절과 선비의 고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충절의 고장이라는데 더 무게를 두는듯 했다.

정원장은 30년동안 교단에 서 오다 퇴직 후 근 13년동안 문화원장으로 영주의 문화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다. 지난 88년부터 영풍문화원장으로 재직해오다 95년 시·군이 통합하면서 영주문화원장으로 봉직하게 됐다. 임기는 2003년 10월까지. 다소 성급한 느낌이 없지 않았지만 10여년 동안 문화원장을 맡아본 소감을 물어봤다.

문화원장으로 일해보시니 어떻습니까?

“문화원은 80~90년대 여러 모로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지원도 미약했습니다. 90년대 이후부터 문화원이 지역사회에서 중심으로 활동한 결과 문화하면 문화원을 떠올리는 위상에



정지옥 영주문화원장

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문화원장이 지역민들로부터 숭앙받는 사람이 선택되기 때문에 문화원에 대한 인식도 좋아지고 문화원장에 대한 예우도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의 문화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무엇입니까?

“영주는 문화재의 보고라 할만 합니다. 국보만 해도 부석사 무량수전(제18호)·부석사 무량수전 앞 석등(제

17호)·부석사 조사당(제19호)·부석사 조사당 벽화(제46호)·부석사 소조 여래좌상(제45호)·회현 영정(제111호)·흑석사 목조아미타불좌상및 복장유물(제282호)등 7개에 이릅니다. 영주는 불교문화와 유교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민심을 통합하기 위해 불교가 활성화됐고 조선 5백년동안에는 국가 경영을 위한 철학으로 유교가 번성했습니다. 성리학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같은 호국불교와 군사부일체라는 정신이 면면히 흘러 단종복위운동이 일어났고 한일합방이후에는 전국 최초의 무장독립운동단체인 '대한광복단'이란 의혈단이 결성되는 등 애국정신이 발로했습니다. 그 정신을 우리 문화원이 담당해야겠다는 생각에 95년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를 조직해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대한광복단기념사업회는 우리 선열들의 애국애족심을 널리 알리기 위해 풍기읍 동양대학 부근에 대한광복단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연차적으로 50억원을 투입해 2만5천평의 광복공원 부지를 확보한데 이어 이곳에 3백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 건물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천안의 독립기념관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내년에 문을 열기 위해 현재 공사가 한창 진행중입니다. 올해에는 6억3천만원을 들여 내부시설 일부와 주차장·야외화장실·도로를 정비하고 내년에는 2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내부시설과 조경을 마무리짓게 됩니다.

영주문화원과 순흥면발전협의회가 재현한 민속놀이



또 이곳에 통일기원탑도 세워 실향민들이 설에 망향제를 올릴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대한광복단 기념관은 청소년과 어른들이 국가관과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학습의 장으로 주위의 부석사나 소수서원·풍기온천 등과도 연계해 부담없이 들를 수 있는 여행코스로도 만들 생각입니다"

영주문화원이 추진하는 대표적사업은?

"5월의 소백산 철쭉제·장승제와 10월의 풍기인삼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저희 문화원이 맡아해온 풍기인삼축제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풍기인삼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하게 됩

니다. 하지만 제가 풍기인삼축제운영위원회에 속해 있고 우리 문화원의 길인 성 사무국장이 추진위 사무국장을 맡게 돼 예년과 다름없이 축제에 계속 참여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열립니다. 이밖에도 '청소년을 위한 작은 음악회'·'문화가족 문화유적답사'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꾸준히 개최해 오고 있으며 2~4년간의 자료수집을 통해 '영주금석문집1·2'·'영주사료집'·'사진으로 보는 영주백년사'를 펴냈습니다."

문화학교와 풍기문학의 집은?

"영주문화원 문화학교에는 사군자·



서예·도예·수채화·가요·농악 등 6개 과목이 개설돼 있는데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사군자의 경우 길인성 사무국장도 지도하고 있는데 40대 이상 문화가족 70여명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도예반은 25명이 공부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20~30대층입니다. 지난 96년 12월에 개관한 풍기문화의 집도 시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 문화사랑방에는 5천원 정도의 도서가 비치돼 있어 문화의 불모지나 다름없는 농촌에서 독서열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연극·인형극·판토마임·실내악·정기총회 등 소규모 공연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100석 규모의 문화관람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좋아하는 비디오 영상물을 즐길 수 있는 비디오부스와 최첨단 인터넷 부스도 설치돼



영주문화원 매구패의 공연 모습

있어 점차 많은 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데...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아직도 문화에 대한 투자를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투입한 후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오는 쪽으로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도층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경찰서 행사에는 눈동자 찍으러 많이 가면서 문화행사에는 별볼일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일이 없어야 진정한 문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문화의 세기라고 떠들어서선 발전할 수 없고 예산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더더욱 문화정책을 세우는 지도층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덧붙인다면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문화원이 예산을 확보하려면 해당 지자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게 선결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럴수록 문화원은 정치적인 색채를 배제하고 문화예술 거점으로서의 순수성을 지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문화원장 만큼은 비정치인이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절실히 느낍니다”

영주문화원의 일꾼

영주문화원은 영주시민회관울타리 안에 자리잡고 있다. 정지옥 원장을 비롯 길인성 사무국장, 장영희·최용덕간사가 일하고 있다. 길국장은 사무국 업무외에도 사군자 강사와 풍기인삼축제 추진위 사무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장영희 간사는 문화원 사무국에서 일하고 최용덕 간사는 풍기문화의집에서 근무하고 있다. 문화원 회원은 1백여명.

영주의 먹거리 · 볼거리 · 살거리



영주사과

풍기인삼



삼딸

무량수전



부석사 목어

소백산





그곳에 가고싶다 10월에 풍기인삼축제 · 한국민속예술축제 열리는 영주군

인삼캐고 민속 보고 **얼씨구!**

“인삼의 원산지 풍기로 가을 여행을 떠나자” 만일 9월의 금산인삼축제를 놓쳤다면 10월의 풍기인삼축제로 떠나보면 어떨까? 2001 풍기인삼축제가 10월 6일(토)부터 10일(수)까지 5일간 경북 영주시 풍기읍 남원천변에서 열린다.

행사 첫날인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소백산 줄기 금계리 개삼터에서 인삼제를 올리는 것을 시작으로 인삼씨앗뿌리기 · 전국우량인삼선발대회 · 마당극 별주부전 공연 · 인삼대제 · 인삼요리경연대회 · 토종닭싸움대회 · 인삼보물찾기 · 경북가요제 · 사과포도먹기대회 ·

읍면동대항 민속놀이 경연 · 두드락공연 · 인삼장사씨름대회 · 관광객 노래자랑 · 풍기문화풍물단 공연 등이 열린다. 특히 7일부터 10일까지는 인삼캐기체험 행사가 계속돼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라면 한번쯤 참가해 볼만하다.

충남 금산이 인삼축제를 대대적으로



순위면에서 다소 뒤쳐져온 인상이다.

국내 최초로 중국에 인삼수출

풍기 인삼은 품질이 좋아 1채(6백g)에 1천~2천원이 비싸게 팔린다. 하지만 축제때에는 싼값에 구입할 수 있다. 또 국내서 처음으로 중국에 풍기홍삼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해 11월 7일까지 5백kg(11만5천달러)을 내보낸다. 또 축제 기간에는 중국약재공사 총경리등 10명을 초청해 풍기인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키로 했다. 풍기는 인삼뿐만 아니라 인조견으로도 유명하다. 해방을 전후해 이북사람들이 내려와 가내수공업 을 하면서 시작됐는데 지금은 전국 양복 안감의 3분의 1이 풍기에서 생산될 정도로 규모가 크다.



별이는 바람에 경북 영주는 풍기 인삼이란 오랜 명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위로 부터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는게 현실. 하지만 풍기 인삼은 예전에 개성인삼보다 비싸다고 할 만큼 품질이나 생산량면에서 월등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장석도 풍기인삼축제 추진위원장의 얘기다. 다만 인삼 농가나 상인이 전체 인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금산과 달리 영주는 3% 정도만이 인삼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어 시정(市政)의

이외에도 영주는 사과와 한우등 농축산물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영주하면 부석사를 떠올리는 이들이 많다. 부석사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목조전물인 무량수전을 비롯해 국보 5점, 보물 4점, 도 유형문화재 2점 등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10대 사찰중 하나다.

특히 무량수전은 기둥들이 가운데로 갈수록 불룩해지는 배흘림 공법으로 학계의 관심을 끌며 부처 또한 서방정도를 바라보고 앉아 있는 여타 부처와 달리 동쪽을 향하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준다. 동쪽의 중생들을 서쪽으로 인도한다는 뜻. 그리고 무량수전 오른쪽으로 난 오르막길을 올라 숲속으로 가다보면 의상대사를 모신 조사당이 나오는데 그 안

에서 빗물 한번 이슬 한번 맞지 않은 채 자라는 선비화가 눈길을 끈다. 이 선비화를 만지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신이 전해져 오는데 지금은 철책이 쳐져 있어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다.

이것 말고도 영주는 회방사·혹석사·죽계구곡·순흥문화마을·수도리 무섬마을등 여기저기 둘러볼데가 많다. 순흥면 소수서원도 빠뜨리면 아쉬울 곳. 우선 순흥은 세종임금의 셋째 아들인 금성대군이 수양대군에 의해 유배당해 머문 곳으로 이곳에서 부사이보함을 만나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 거사가 무르익을 무렵 한 관노의 밀고로 관군의 습격을 받아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한 곳이다.

소수서원 부근 '선비촌' 조성중

그런가 하면 순흥면은 조선 중종 37년(1542)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서원의 효시이자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많은 명현거유를 배출한 소수서원으로도 유명하다. 그리고 소수서원 옆에는 청다리라는 교각이 있는데 서원 유생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내려져 온다. 이 다리는 유학은 유생들이 외로움을 달래려 영주의 기생들과 사랑을 하다 '아버지 없는 아이'를 낳으면 내다 버렸던 곳이라는 것. 지금도 말 안듣는 아이에게는 청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한다. 영주문화원 길인성 사무국장도 어릴 때 청다리에서 주어왔다는 얘기를 들으며 컸다고 말한다.

이 주변에는 '선비촌' 조성을 위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10월 이곳에 볼거리가 하나 더 생긴다. 제42회 한국민속축제가 열리는 것.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문**

영주문화원 추천 출향인사 인터뷰 2002월드컵 개막식 연출 맡은 손진책 극단 미추 대표

“축구장은 한국문화 홍보할 거대한 마당”

극단 미추 대표 손진책(54)은 이제 더 이상 영주만의 사람이 아니다. 서양의 극을 모방하기에 급급하던 시절 우리 색채가 깃든 마당놀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창안해 전국적인 화제와 호응을 불러 일으킨데다 내년 2002 월드컵에선 개막식 연출이란 중책을 맡아 세계인들에게 한국문화를 총체적으로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한다. 영주문화원이 추천하는 출향인사 다섯명중의 한명이다.

9월 8일 토요일 그가 '제2의 고향'으로 삼아 등지를 틀고 있는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홍죽리 675번지 미추산방을 찾아갔다. 미추산방으로 난 좁다랗고 아트막한 오르막길. 교회의 십자가가 눈앞에 다가오고 아직까지 가시가 성성한 시퍼런 밤나무며 바람에 흔들리는 이름모를 들꽃, 텃밭에서 자라고 있는 고추·상추·옥수수, 그리고 낮은 사람의 인기척을 듣고 무심코 짚어대는 동네개들.

말그대로 시골이었다. 언뜻보기에 수령이 2~3백년 된듯한 느티나무 한그루가 수호신처럼 미추산방을 지키고 서 있었다. 3층짜리 녹색건물인 미추산방은 1·2층을 공연장과 연습실로, 3층을 사택으로 쓰고 있다. 손씨의 부인은 연극인 김성녀씨. 한적한 시골에 들어서 있는 미추산방은 저녁4시에 있

을 주말극장 '하얀동그라미 이야기' 공연 준비로 아침부터 부산했다. 그러나 손씨는 보이지 않았고 부인 김씨가 대신 인사했다. 남편 손씨가 밤새 콧물에 재채기로 잠 한잠 못잔 채 아침 일찍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갔다고 했다. 세시간여가 흐른 후 손씨가 헬썩한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영주국민학교 뒤 철담산 '아련'

2002월드컵 개막식 준비 때문에 파로하신 것 아닙니까?
“거의 매일 월드컵 회의를 하고 있어요. 동양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월드컵이라 주위의 기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전통을 바탕으로 한 오늘'과 IT테크놀로지쇼, 그리고 세계 수십억 인구의 잔치인 만큼 축구를 통한 '인간의 사랑'을 표현하려 합니다”

월드컵 개막식은 올림픽과 달리 비

중이 높지 않다. 그러나 손씨에겐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란 생각이다. '30분간의 한국 홍보 CF' 바로 그거다. 또 여기엔 그만의 '마당'에 대한 철학이 투영된다.

“축구장도 거대한 마당입니다. 인간이 딛고 있는 땅이 곧 마당입니다. 마당에 뭐를 채울것인가하는 문제인데… 이미지가 떠오르는게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지난 8월31일부터 9월2일까지 '히바카리'를 한일합동으로 무대에 올렸다. '히바카리'는 조선 도공들이 일본땅에서 만든 첫 도자기 이름으로 조선 도공들의 혼과 숙명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연극이다. 그리고 11월 9일부터 12월말까지는 정동이벤트 홀에서 마당놀이 변장쇠전을 연다. 이보다 앞서 10월 19일에는 그의 고향인 영주에서 마당놀이 이춘풍전을 야외공연할 예정이다.

고향엔 자주 가십니까?

“아버지 어머니 산소가 거기 있으니 간요. 하지만 뜻대로 안돼요. 1년에 한 두번밖에 못가요”

고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뭔가요?

“내가 다니던 영주 국민학교 뒷산인 칠담산과 부석사·소수서원이 가장 많이 생각납니다”

연극에 입문하게 된 계기라면?

“초등학교때 마을에 찾아온 서커스를 보러 많이 갔어요. 서커스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마지막 부분이 연극이에요. 그것을 보기 위해 자주 드나들었죠. 친구들과 연극을 만들기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 무대 뒤에서 손짓발짓하던 것이 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중학교때 집안이 서울로 이사했어요. 나는 본래 연극·음악·미술 할것 없이 모든 예술장르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 모두를 할 수 있는 종합예술이 바로 연극이라는 말에 연극을 하게 됐어요”

어릴적 영주의 문화와 오늘의 문화를 비교한다면?

“어릴때와 비교해 보면 영주의 문화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졌죠. 극단이나 문화예술단체·후배들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영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서울지향적인 문화가 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현상입니다. 전국의 음식맛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와 같아요. 자기만의 색깔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고전에 웃음 넣어 마당놀이' 창안

얘기를 듣노라니 그의 헤어스타일이 눈길을 끌었다. ‘뽕지머리’. 5년전 부인이 어울릴 것 같다는 말에 머리를 묶었다고 한다. 지금은 흰머리가 하나 둘 생긴다며 머리를 만진다. 사무실 벽면에 둘러쳐진 빛바랜 대본들과 서적들이 그간의 활동을 말해주는듯 싶었다.

극단 미추는 86년 8월 손씨에 의해 윤문식·김종엽·김성녀 등의 정상급 연기자를 주축으로 창단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공연단체이다. 아름다움이 있기에 추함이 있다는 뜻의 미추는 도올 김용옥이 ‘노자’에서 따와 지어준 이름. “미추(美醜)는 곧 연극을 뜻합니다. 미(美)는 양(羊)과 대(大), 추(醜)는 주(酒)와 귀(鬼)가 각각 합쳐진 단어로 큰 양과 술을 귀신에게 바치는 제사를 뜻합니다. 이 제사가 바로 연극인거죠”

67년 연극계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서울 말뚝이’를 시작으로 ‘배비장전’ ‘꼭두각시 놀음’ ‘한네의 승천’ ‘허생전’ 등 재미없고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고전에 웃음과 풍자를 넣고 현대화함으로써 ‘마당놀이’라는 자신의 연극세계를 구축했다. ‘오장군의 발톱’ ‘신2

국기(新二國記)’ ‘영웅만들기’ ‘남사당의 하늘’ 등도 민족적 기상과 문학성·해학성을 모두 살린 연극으로 해외 무대에 까지 널리 알려졌다. 지난 88서울올림픽때는 ‘한국축제’를 비롯 성화의 도착과 출발 장면을 연출했고 세계 연극인들의 축제인 서울연극제의 예술감독을 맡아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다. 백상예술대상(75년), 올해의 좋은 예술가상(95년), 대통령 표창(98년)등 수상경력도 화려하다. 도제식 연극계에서 체계적인 후학양성을 위해 개설한 미추연극 아카데미도 벌써 개교 4년을 넘기고 있다.

연극은 인간사랑·사회변화의 수단

그는 지난 92년에 땅을 사고 이곳 산골로 들어왔다. 말년을 시골에서 보내고 싶어서다. 이곳에서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고향인 영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으나 마음은 늘 고향에 있고 고향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다. “그렇지 않겠지만 문화원도 구색맞추기식이나 전시성 행사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서포트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을 했으면 합니다”

연극계에 몸담은지 34년인 그에게 연극이란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었다. “살아가는 수단입니다. 연극은 목적이 아닙니다. 저는 연극을 인간학이라고도 부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과 사회변화에 대한 믿음을 예술을 통해 연극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석사로 들어가는 길엔 낙엽이 세월의 비밀을 간직한 채 나뭇굴고 있다.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가을. 부석사가 손짓한다.

〈특집기사에 소개된 영주의 사진은 영주디자인센터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아차산 산불로 드러난 돌무지예 ‘의혹’

자기가 살고 있는 고장을 애정 어린 눈으로 본다면 모든 것들이 향토사의 자료들이다. 재미있는 지명들이 그렇고, 노인들이 모여서 지나간 일들을 말하는 것들이 그렇다.

그믐 밤에 있었던 성황당의 귀신 이야기라든가, 마을 어귀에 서 있는 처량한 장승 또한 향토의 내력을 간직한 것들이다.

한 발짝만 더 나아가도 삶의 원천이었던 저수지의 제방이 있고 그 너머에는 술한 난리에 동네 사람들이 몸을 숨겼던 성(城)터가 있기도 한다.

이 모두가 옛 사람들의 피와 땀이 배어 끈적거리게 했던 산물로 민속놀이·세시풍습·규약이란 향토의 토양에 스며들어서 오늘 우리의 계로 이어지고 있다.

혹자는 서구적 방식의 개발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밀어내고 있다고 한다. 인간 힘을 다하여 버틸수록 우리들의 틀은 부서져 버린다고 한다.

그렇까? 아니다. 이러한 것들은 단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장독대가 없어졌다고 장맛마저 잃는 것은 아니다. 트랙터로 논갈이를 한다고 하여 쇠(鐵) 쌀이 나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것들에 대한 우리들의 애정이 크고 작음이 문제인 것이다. 우리들의 깊은 애정이 밀거름이 되지 않고서는 결코 향토문화는 소생되지 않는다.

충주댐을 건설할 당시였다. 수몰지역의 사람들은 떠날 준비에 정신이 없었다. 그런

데 한 농부가 물속에 잠길 고향의 것들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서투른 사진기의 셔터를 누르고 바위에 새겨진 글씨들을 탁본했다. 전문연구자들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한 농부가 해낸 것이다. 누가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더군다나 탁본을 뜰 수 있으랴.

필자는 아차산에 산불이 났었을 때에 산능선을 따라 길게 늘어진 돌무지들을 발견했다.

이러한 돌무지들은 커다란 구덩이들과 연결되고 있었다. 직감적으로 신라의 북한산성인 아차산성과 관련된 방어시설일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관계기관과 전문연구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 보여도 주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이유는 근조선(近朝鮮)때에 살 곳이 목장의 담벽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필자가 병영지라고 주장했던 큰 구덩이는 말을 가두는 곳이라고 속단까지 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여기가 바로 남한에서 최초로 발견된 고구려의 유적지인 보루성이었다는 사실이 규명됐다. 이러한 일들을 되돌아 보는 것은 자기의 고향에 대한 애착이 향토사의 자료들을 소생시켜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서이다. 또 한 가지는 자유로운 향토사가들의 인식이 판에 박힌 전문연구자들의 견해를 앞설 수도 있다는 것을 본보기로 말하기 위해서이다.

향토사가들은 고향의 내력을 완전히 정리



김민수
향토사학자 · 제15회 전국향토문화
연구발표회 대상 수상자

할 수는 없지만은 그들의 의식 속에는 항상 향토의 명맥이 흐르고 있다. 누구보다도 향토사의 자료들을 느낌으로 식별하고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향토의 자생적 세포 조직은 우리의 향토문화의 지킴이가 되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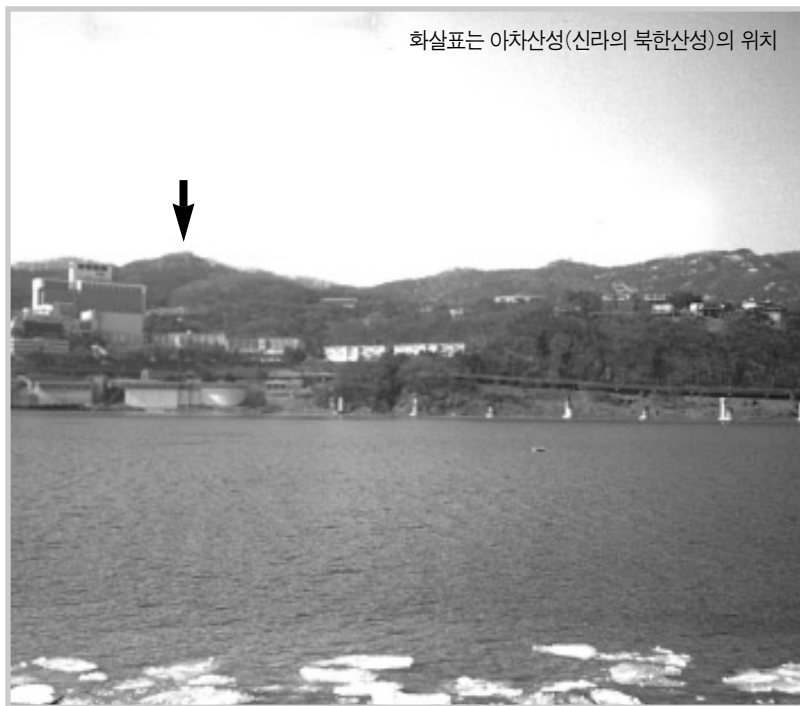
우리가 발품을 들여 찾은 향토사의 자료들은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토의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무턱대고 향토의 자료들을 전문연구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향토사 연구자의 자세가 아니다.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향토사의 자료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는 자세가 바로 향토사 교육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향토사는 발전한다.

동네 노인들로부터 들은 뒷산의 도깨비 이야기를 잘 구성해 활자화했다면 그 순간부터 도깨비 이야기는 구비문화으로서 전설이 된다. 찾아낸 고인들을 필름에 담고 규격을 명시했다면 그 자체가 고고학의 자료가 되는 것이다.

잘 다듬어진 향토사의 자료들은 향토의 정체성을 일깨워 주고 더불어 이웃한 우리들이 향토인임을 새삼 다지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향토사의 자료들이 모여서 향토사는 이뤄지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향토자료의 발굴과 정리, 그 자체가 향토사인 것이다.

그러므로 향토사가는 향토의 체취와 느낌에서 멀어져 있어서는 안된다. 항상 향토의 삶 속에서 옛 것을 찾아내고 앞으로의 삶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향토문화를 재생산하려는 적극적인 자



화살표는 아차산성(신라의 북한산성)의 위치

세가 필요하다.

우리들의 터전을 이어갈 청소년들은 문화의 갈증에 놓여 있다. 어떠한 문화이든지 그들은 여과없이 받아들인다. 전통문화의 맥인 향토문화가 제자리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그들은 퇴폐의 풍랑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옛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조상 대대로 다져진 향토임을 알게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옛 슬기와 애향을 바탕으로 드넓은 세계의 바다로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향토사는 다음의 세대를 텃밭에서 키우는 어머니인 것이다. 돌아오는 언어들을 맞이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향토는 언제나 맑은 샘이 흘러야 한다. 이러한 향토를 일구며 나가는 앞소리꾼이 바로 향토사가들인 것이다. **문**

●
우리가 발품을 들여
찾은 향토사의 자료들은
소중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향토의 자료들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무턱대고 향토의 자료들을 전문
연구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올바른 향토사 연구자의
자세가 아니다.
●

碑文에 쓰인 장소서 침향 발견 ‘단초’

나 라마다 문화부문의 중요성이 날로 커가고 있는데다 21세기는 문화 경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법석을 떠는 바람에 향토사 연구는 이제 낯설은 얘기가 아니다. 바야흐로 문화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지역별 문화적 특성과 이미지가 바로 상품이 되고, 경쟁력이 되며, 살아남는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시대다.

게다가 저마다 ‘지역문화의 특성화’, ‘차별화’, ‘상품화’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뭐니뭐니해도 이 모두는 지역 향토사 연구자들의 뒷받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향토사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모습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지역 향토사 연구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해져 가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향토사 연구자들의 역할에 따라서 지역문화가 상품화되고 나아가 지역간·국가간 문화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동안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히 오늘을 일궈낸 선임 향토사 연구자들의 노고에 삼가 경의를 표하며 향토사 연구에 대한 짧은 소견이나마 피력해 보고자 한다.

향토사 연구의 방법론이라 할까·연구 내용을 엮어가는 절차에 대하여는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겠지만 향토사 연구는 그 분야가 광범위한 만큼 이 또한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다.

집을 짓자면 먼저 집을 지을 터와 각종 재

료를 마련해야 하듯 향토사 연구도 마찬가지로 연구할 분야의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이 지을 건물의 쓰임새인데 이는 논문에 있어 주제에 해당 하겠고, 건물에 있어 내부구조 배열은 논문 목차에, 또 건물 완공 때까지 기술자에 의한 중간 점검은 향토사 연구에 있어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 비유할 수 있겠다. 어느 부분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겠으나 특히 중점을 두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지을 건물의 쓰임새이다. 철차와 공정을 거쳐 모처럼 새로운 건물을 지어 놓았는데 훗날 쓰임새가 없는 건물을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어느 때보다 연구된 향토사가 활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주제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다.

흔히들 보아온 예이긴 하지만 구전 설화로만 전해오던 향토민속의 뿌리를 연구해 지역 전통축제로 자리매김시켰다면, 지금까지 묻혀있었던 문화재의 원형을 밝혀내 이를 복원시킨 연구가 있는가 하면 연구를 위한 연구나 겉치레만 요란한 연구·발표와 토론만 일삼다 구호에만 그친 연구도 있다.

좀 특이한 예라고나 할까? 필자의 경우 평소 금석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어느날 신라 화랑의 자취가 남아있는 강원도 고성 삼일포 매향비문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다. 때마침 비문 내용과 일치하는 동해안 한 지점에서 1309년 당시 매향의 결과물로 보이는 침향이 발견되어 이때부터 체계적인 자료



정 항 교
향토사학자·제14회 전국향토문화
연구발표회 대상 수상자

수집에 나섰다. 발견된 자료가 참신한 데다 특이한 것이어서 일단 충분한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기존 연구 성과물에서부터 해당지역 향토자료를 수집할 계획을 세웠으나 해당분야 연구 성과물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다섯편에 지나지 않았다. 선행 연구물이 적다보니 연구의욕은 더욱 강하게 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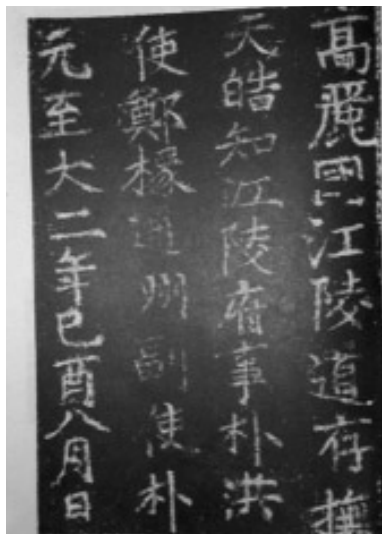
결국 관련 자료수집은 발로 뛰는 수밖에 없어 우리나라 매향과 침향에 대해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의견과 자료를 교환했다. 당시 많은 분들의 도움을 주었으나 그 가운데 대구에 있는 취운향당(翠雲香堂) 능혜(能慧)스님의 도움이 컸다.

논문이 발표된 시기가 마침 새 천년을 두 달 앞둔 시점이어서 천년의 내리사랑 침향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

마침내 논문이 발표되자 이를 토대로 새 천년 강릉 정동진 해맞이 축제에 미래를 위해 향목을 묻는 매향의식이 지역문화 행사로 펼쳐졌고 방송사에서 새 천년을 때 맞추어 전국에 방영할 <매향과 침향>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에 들어가 2개월 준비 끝에 2000년 1월 방영됐다.

그러나 당시 강릉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아홉고을에 매향을 하고, 그 내역을 기록한 비를 하필이면 고성 삼일포에 세웠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많았다.

앞으로 동해안 지역 매향과 신라화랑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아 우리나라 최고의 매향비가 있던 삼일포 주변 지역을 답사,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계획이다.



매향비 탁본(왼쪽)과 침향

이같이 우리가 연구해야 할 향토사는 주변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그 실체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항상 궁금해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전문학자가 아닌 우리는 다만 그 비밀을 벗겨 새로운 이해를 돕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들의 향토사 연구는 어떤 학설의 주장보다는 그 자료가 갖는 문화사적인 성격과 의미를 올바르게 규명해 제시하는데 있다. 대부분의 향토사 연구가들이 향토 사료에 대한 '분석과 해석'에 집착하다보니 자료가 지니고 있는 실체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늘 지적받아 왔다.

이해준 교수가 본지 <향토문화논단>에서도 밝혔듯이 "향토사 연구는 '가까운 주제', '분명한 목적', '논리적 배열'이 생명"이라 했다. 이는 바로 향토사 연구의 근본 지침이라 할 수 있겠다.

무엇보다 향토사 연구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말할 나위없이 연구 주제다. 향토사 연구는 평소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향토사 연구는 아무나 하는게 아니라 했다. 

● 집을 짓자면

먼저 집을 지을 터와
 각종 재료를 마련해야 하듯
 향토사 연구도 마찬가지로
 연구할 분야의 관련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이 지을 건물의
 쓰임새인데 이는 논문에 있어
 주제에 해당하겠고,
 건물에 있어 내부구조 배열은
 논문 목차에,
 또 건물 완공 때까지
 기술자에 의한 중간 점검은
 향토사 연구에 있어
 전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에 비유할 수 있겠다.



전화번호부 뒤져 ‘태봉’ ‘태실’ 추적

최 근에 와서 전국적으로 향토사 또는 지방사라는 이름으로 해당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강원도 역시 이러한 분위기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한국사 위주의 연구에서 탈피해 그 분야가 선사고고학에서부터 민속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연구가 향토사인가, 지방사인가 아니면 지역사인가라는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향토사란 연구의 주체가 비전문가들이고 아마추어들이 자신의 고향에 대한 애정으로 하는 연구의 영역인가, 또 지방사는 중앙사에 종속되면서 연구의 범위가 공간적으로 제한적인가라는 문제에서 모두가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사라는 용어로 사용하는 논의도 있어 왔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논외로 하고 지역사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필자가 경험한 사례 몇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1993년 2월, 춘천 인근인 신북읍 용산리에서 태실로 추정되는 유적이 도굴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제보를 받고 현지를 답사한 결과 오래 전에 민묘를 쓰고자하는 사람에 의해 태를 담은 석함(石函)과 태실 주인공의 출생일시와 태를 처음 매장한 일시를 기록한 비석인 아기비(阿只碑)를 산등성이로 굴러져 버린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강원지역 태실에 관한 연구-전국

태실조사를 겸하여'라는 글 쓰기 위해 전국의 태실을 조사를 하게 되었으나 막상 글을 시작하고 보니 매우 난감한 일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우선 태실에 관한 논문이 몇 편되지 않았고 발굴보고된 태실도 2곳에 지나지 않아 자료를 구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물론 어느 분야이든 연구라는 문제 앞에서 쉬운 일이 없겠지만 태실에 관한 분야는 더욱 그러해서 태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 이 때에 참고한 자료로 '한국지명총람'의 지명 중, 태실과 태봉산이란 단어를 발췌하고 한국전기통신공사에서 발간한 전국전화번호부의 태봉과 태실이란 단어가 들어간 상호를 확인하고 이들 점포에 전화를 걸어 이러한 상호를 사용하게 된 연유를 질문하면서 이외의 관계를 추적해 나갔다. 이 방법은 소비적인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답사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의뢰해 해당 마을의 노인회장과 이장 등의 명단을 확보하고 주요한 곳은 방문해 자료를 수집했다(이 방법은 많은 통신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나 어쩔수 없이 연구자가 감수해야 한다. 그래도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며 많은 자료를 얻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도 대다수의 태실이 산속에 위치하므로 지형지물에 관한 상식과 독도법을 익혀야 하는 등의 제반적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이러한 자료수집 후에 관계 문헌을 찾아야 하지만 1차자료로 볼 수 있는



홍 성 익
향토사학자 · 제13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대상수상자

왕실 족보인 선원록(璿源錄)의 등재 인물이 틀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사된 태실의 지석과 아기비를 연대순으로 나열한 후, 문헌을 정정하고 주인공의 문제에 대입해야 했다. 이 외의 자료를 구하는 것도 대부분 희귀본이라 쉬운 것은 없었다. 필자는 구하기 어려운 자료가 있을 경우에 선행 연구자에게 관계자료를 요청해 이를 분석해 나갔다. 또한 글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점검을 요청해 선행 연구자와 꾸준한 자료 검색을 통해 보완해 나갔다.

청평사의 자료를 찾기 위해 1989년부터 2년간 격주로 일요일마다 답사를 한 일이 있다. 지금도 그렇지만 청평사는 2곳의 입장료를 내고 구간버스와 배를 타고 가야하는 지역으로 답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것도 문제지만 사찰에 관한 자료를 구하는 것도 역시 어려워 경내지를 답사하다 보면 사찰 관계자로 부터 문화재 도난범으로 오인 받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일주일간 휴가를 내어 청소부 아저씨와 함께 사찰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기로 청평사의 자료와 암자터를 찾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얼마전 영월군의 단종능 옆에 있는 보덕사의 불상 복장물과 극락보전 상량문을 조사하러 갔을 때의 일이다. 마침 주지스님이 요사채의 마루에 걸터앉아 소품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셨다. 바쁜 일정이었으므로 스님께 답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스님이 작업을 끝내실 때까지 옆에 앉아 구경을 하고 있었다. 얼마 후에 스님이 왜왔느냐고 물으시기에 절이 좋아 들

렀다고 하고 한참 후에 다시 물으시길래 인근지역의 유적에 관한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이 절은 무척 오래되어서 법당과 불상에 관한 자료가 많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풀어가다가 법당의 상량문이나 불상의 복장물이 있을 만하다고 말문을 열자 스님은 이를 보여주시면서 자료로 쓰면 어떠냐고 상량문, 복장물 등 옛기록 11편을 복사해 주었던 일이 있다. 몇시간을 말없이 기다려서 말이다. 양구군 심곡사 불상의 복장물 복사본도 같은 방법으로 스님께 건네 받은 일이 있다.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1990년 8월경 이른 아침에, 춘천시 서면 서상리 3층석탑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 조사를 하던 중 주민이 석탑 사리함의 도굴범으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해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자료를 기록한 노트와 주민 등록증을 확인하고는 쉽게 오해를 풀 수 있었다.

여기서 사례를 다 말할 수 없지만 답사는 답사객의 입장이 아니라 항상 그 주인과 환경에 대한 배려를 먼저하고 자료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면 묻혀져 있는 귀중한 사료들을 자연스럽게 찾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늘 사찰 관계자료를 조사할 때면 향과 초를 준비해 법당에 들러 이를 놓고 오곤 한다.

지역사는 아직 연구되지 않은 처녀지와 같다. 시작부터 끊임없는 질문과 회의(懷疑)를 바탕으로 성립되고 시간과 경제적인 희생을 전제로 한다. 지치지 않는 열정과 탐구심 그리고 겸허한 정신은 지역사 연구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적 뿌리가 튼

튼하다면 누구나 지역사 연구의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준비가 되었다면, 여러분을 지역사 연구의 큰 마당으로 초대한다.문



태실



태봉

●
사찰 관계자로 부터
문화재 도난범으로
오인 받기가 일쑤였다.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일주일간 휴가를 내어
청소부 아저씨와 함께
사찰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계기로
청평사의 자료와 암자터를 찾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

사료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향토사'

전 명 찬 전국문화원연합회 문화정보과장

1. 논문작성법에 충실해야

논문 작성시 필자의 주장을 분명하고 설득력있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문작성법에 충실해야 한다. 접수된 논문 중 왕왕 주장이 매끄럽지 못하거나 다소 힘이 빠지는 경우, 대부분 논문작성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주장을 펼쳤기 때문이다.

논문작성시 서론은 본론으로 들어가는 도입 부분으로, 본론에 들어가기 위한 예비적 서술 또는 방향제시가 목적. 다음의 5가지가 들어가야 좋은 논문이 된다. ①연구의 목적 ②연구의 필요성과 문제의 제기 ③논문에서 해결하지 못한 연구의 제한점 ④선행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⑤자료나 논거의 출처 · 연구방법 · 연구범위 등. 본론은

논문 내용을 완성하는 부분으로 수집된 향토사료를 치밀한 계획에 따라 논거(論據)를 제시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아무리 수집과 해석에 공을 들인 사료라도 논문 전개와 직접관련이 없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논의(論意)에서 필자의 창의적인 견해나 독창적인 방법을 보여줘야 한다. 논지의 전개는 큰 문제로부터 차츰 좁혀서 작은 문제로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 좋다. 결론은 본론에서 제시된 논거를 바탕으로 논의된 결과를 귀납적으로 얻어진 것을 서술한다. 사료의 근거를 바탕으로 명백한 사실을 결론으로 도출하면 된다. 결론에서 논문을 써 가는 동안 아직 해명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이를 밝혀 둘 필요가 있다

2. 정확한 사료 · 객관적 주장을

기존 학계의 연구성과나 정설로 되어 있는 학설에 대해 이론(異論)을 제시할 때는 주장의 객관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료의 선택이나 해석에 있어서도 혼자만의 주장이 아닌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논제와 관련된 사료와 기존 연구성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논문은 정확성과 객관성을 생명으로 하기 때문이다.

3. 발로찾는 '내고장' 주제라야

향토사는 A지역(지역민)이라는 씨줄과 B시대라는 날줄이 엮여져서 만들어 낸 지극히 지역적 특수성을 갖는다. 응모자는 향토사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내고장의 향토사를 창의력과 주제성을 갖고 논제화시키는 것이 좋다. 향토사의 매력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데 있다. 논문에는 필자가 발로 뛰어 찾아낸 연구성과가 집중적으로 녹아 있어야 한다.

4. 새롭고 신선한 내용으로

접수된 논문중 일부가 이미 학계에 널리 알려진 내용들이 많다. 비록 그것이 해당 지역에서는 연구성과가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타 지역과 비교하여 크게 주목될 요소가 없는 연구성과라면 주목을 끌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나, 학계의 연구성과가 미미한 논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창의력 있는 논문이 될 수 있다.

이밖에 ▲전문가의 자문 ▲사진, 지도, 기타 자료 첨부로 풍성하고 깔끔한 편집 ▲적절하고 학술적인 논문제목 선택 ▲문장 구성, 맞춤법, 주석이나 참고문헌의 양식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 



사진으로 보는 전주의 옛모습

지난 8월 28일 부터 9월 3일까지 전주역에서 개최된 '사진으로 보는 1900년대의 전주풍물'. 전주문화원은 1943년에 발간된 '全州府史'를 비롯 '全北百年' '全北道史' '조선시대의 생활과 풍습' 등의 사진을 활용해 옛사진전을 열었다. 이번 사진전에서는 1900년대초 전주의 풍경사진과 함께 서당·주막·장터·군아·역·마을·집안 등 옛모습이 소개돼 세월의 애환과 향수를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사진제공:전주문화원> 



1930년대 무렵 전주의 풍경



서당선생과 학동들

“나는 한국문예술진흥원을 연출한다”

박 계 현 기자 fire@kccf.or.kr

한국 연극계의 대부(大父), 김정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69). 그를 처음 대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일명 뽕덕모자 밑의 나비눈썹. 사람들은 그의 나비눈썹보고 ‘광대의 끼’가 느껴진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연극계의 거장인 그는 자신을 광대라 해도 좋고 뽕따라해도 좋고 예술가라 불려도 상관없다며 살며시 웃는다. ‘뽕따라’라는 표현이 좋은 어감이 아닌 건 사실이지만 어떤 명칭으로 불리든 예술을 행하는 나름대로의 신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란단다.

그의 예술혼은 사십여년 동안 만들 어낸 1백여편의 연극 속에 그대로 투영됐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이 될꼬하니〉(78)는 집단창조·토틸 시어터·몽타주 수법 등을 도입해 우리의 연극계에 새로운 지평을 제시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지극히 한국적인 내용과 형식이었는데도 국경과 언어의 벽을 뛰어넘고 세계의 연극인·평론가·관객에게 큰 호응과 호평을 받았을 뿐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연극계에도 큰 반향을 일으켜 비슷한 메소드를 도입하는 연극인들이 많아졌다.

이후 그는 〈달맞이꽃〉(82), 〈피의 결혼〉(82), 〈바람부는 날에도 꽃은 피네〉(83),

〈이름없는 꽃은 바람에 지고〉(86), 〈수탉이 안올면 암탉이라도〉(88), 〈그리고 그들은 죽어갔다〉(89) 등 일련의 작품을 만들어 냈다.

연극과 얽힌 그의 사연을 보듬어 보면 광주서중에 다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그 무렵에 한창 성행하던 악극단이며 가극단 따위의 공연에 크게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광주에서의 공연을 마치고 공연단이 목포로 옮겨가면 그곳까지 따라갈 정도였으니깐. 그때 건잡을 수 없는 열병처럼 배우들을 보면서 애착 비슷한 ‘우정’을 느끼기도 했다.

56년 프랑스 영화공부 ‘유학길’

그의 주체할 수 없는 끼는 6·25 동란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56년 프랑스로 영화공부 유학길에 오르게 한다. 아버지가 의사였던 덕분에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기도 했고, 큰형이 의사가 되었기 때문에 3남중 둘째인 그는 집안에서의 특별한 반대없이 그 시절에 소위 ‘뽕따라’ 공부를 하러 갈 수 있었던 것. 소르본대학에서 연극뿐 아니라 현대불문학과 영화 등을 두루 섭렵하고 귀국한 그는 이화대학교 문리대 연극반에서 아리스토파네스의 〈리시스트라다〉(61)를 무대에 올리는

것으로 연극계에 데뷔했다.

그는 언제나 한국 연극의 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고 충분히 개성적이라 할 수 있는 솜씨를 보여주었다. 그는 “일반적으로 예술창작은 무언가 개성과 독창을 확대시켜야만 그 존재가치를 높일 수 있다”며 “새로운 시도가 가끔은 겁나기도 했지만 그것만은 무대에 사는 내가 부릴 수 있는 만용이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내가 부린 만용을 관객들이 좋아하더라”고 회고한다. 그가 말하는 만용은 새로운 조화를 가능케 하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연출은 각각의 요소가 지닌 특징을 살리며 전체적으로 새로운 질서를 이루는 것입니다”

TV 드라마만 빼고 영화·창극·라디오·무용·회극 등 안해본 장르가 없다고 말하는 그는 “요즘은 ‘연출’이라는 의미가 ‘거짓을 꾸미다’라는 의미로 오용되고 있지만 사실 연출이라는 것은 뭔가 본질적인 진실을 이끌어 낸다는 뜻이다”라고 연출에 대한 정의를 내린다. “연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관용을 베푸는 것입니다. 속된말로 너죽고 나죽자가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한다는 것이죠”

그의 연출관(演出觀)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이라는 자리에 앉아서도 똑같이 빛난다. 한국문예진흥원이라는



김정옥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

무대를 연출하고 있는 것. “전국문화원 연합회가 2백개가 넘는 전국의 문화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듯이 우리 한국문화예술진흥원도 동송동의 문예진흥원이 아니라 전국의 각 지역을 포괄하는 문예진흥원으로 역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연극을 하는지 생각해야”

그에게 문화예술은 종교와도 같다. 그는 “미국이 사상 유래없는 테러를 당한 것도 뒤집어 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제를 유발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겠느냐”며 “지금은 오히려 흑과 백 어느 축에도 끼지 않는 ‘회색인간’이 나와 양쪽 인류를 화합하고 구원하는 일을 해야한다”고 말한다. 그

런 사회적 책무를 맡을 사람이 바로 문화예술인이라는 것이다. 원로의 입장에서 요즘의 연극들을 평가해보면 여러 가지 제한이 있을 때보다 치열함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 하지만 잡초들 속에서도 작품은 나오게 돼있다며 “연극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 연극을 해야되는가?’를 언제나 생각해야한다”고 충고한다.

그만큼이나 그는 욕심도 많고 열정도 많다. 1차적으로 자신과 관객들이 애정을 갖고 있는 〈따라지의 향연〉, 〈도적들의 무도회〉, 〈피의 결혼〉 등 극단 자유의 작품 10여편 정도를 선별해 언제나 리바이벌할 수 있도록 레퍼토리화할 예정이다. 또 마르셀 빠니올의 작품 〈하니〉, 〈마리우스〉, 〈세잘〉을 한국식으로 변안하고 하나의 작품으로

묶어서 공연해볼 생각이다. 영화도 평생에 3편은 남기고 싶다. 그리고 희곡도 쓸것이란다. 나이가 들었기에 지금 희곡을 쓰면 삶의 깊이가 묻어날 것이고 그것이 문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란다.

고회를 바라보는 그의 건강이 걱정돼 물어봤더니 2주에 한번꼴로 주말에 부인과 함께 경기도 광주에 있는 시골집으로 간다. 그곳에서 작품구상도 하고 건강관리도 하면서 심심풀이로 조그만 텃밭에 심은 호박과 가지가 두 부부가 먹기엔 너무 많아 이웃들과 나누어 먹는 기쁨도 제법 크다며 환하게 웃는다.

웃음따라 움직이는 노장의 나비눈썹이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문**

음력 9월 9일 홀수가 두 번 겹쳐 ‘복 들어오는 날’

중양절(重陽節·음력 9월 9일)은 양수(陽數)가 겹친 날이라는 의미가 있다. 중양절은 다른 말로 ‘중구일(重九日)’이라고도 하는데 중구(重九) 역시 구(九)가 중복된다는 의미이다. 옛 어른들은 홀수가 두 번 겹치면 복이 들어오는 좋은 날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단오나 칠석날처럼 중양절을 양수중복일(陽數重複日) 풍속의 하나로 삼아 가을의 정취를 더해주는 계절의 풍요로움과 함께 다양한 시절음식(時節飮食)과 풍속(風俗)을 즐겼다. 높은 곳에 올라가 국화로 빚은 술을 마시며 즐겁게 놀거나 술친구를 찾아가 함께 즐기며 술을 선물하기도 했던 것이다.

박 후 식 전국문화원연합회 운영위원

우리의 풍속 중에 중양절(重陽節)을 맞으면 경치가 좋은 산을 찾아 시절음식을 배불리 먹고 하루를 흥겹게 지내는 풍속이 있다. 이를 ‘단풍놀이’라고들 하는데 이는 본래 중국 후한(後漢) 때 환경(桓景)이라는 사람에게서 유래된 ‘등고(登高)’의 풍속을 답습한 것이다.

옛날 중국 어느 마을에神通한 능력을 가진 장방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장방은 마을의 불길한 기운을 느껴 환경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돌아오는 9월 9일(음력)이 고을에 큰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러니 식구들을 모두 데리고 산으로 가되 주머니에 수유꽃을 넣었다가 팔에 걸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라고 환경에게 일러줬다.

9월 9일이 되어 환경은 장방이 시킨대로 산으로 올라가 국화주를 마시며 하루를 보냈다. 그리고나서 장방의 말대로 해가 떨어진 후에 마을로 내려와보니 마을에 재앙이 닥쳐 가축들이 한 마리도 남김없이 죽어 있었다. 그 후부터 중양절이 되면 산에 올라가는 풍

습을 지키게 되었고 또한 국화주를 마시게 되었다. 특히 시인(詩人), 묵객(墨客)들은 시절음식(時節飮食)을 차려놓고, 술잔에 국화 꽃잎을 띄워 풍류(風流)를 즐기면서 가을을 만끽했다.

중양절은 추석처럼 큰 명절은 아니어서 특별한 놀이를 하지는 않고 대신 음식을 가지고 산과 들을 찾아가 하루를 즐겁게 놀았는데 이러한 전통(傳統)이 가을소풍이나 단풍놀이로 현대까지 계승(繼承)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중양절은 복이 들어온다는 날이지만 결혼식이나 잔치를 열지 않았다. 남이 즐길 수 있는 좋은 날에 자기집 잔치로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 또한 이 시기엔 봄에 떠났던 기러기가 우리나라를 다시 찾아오고, 봄에 찾아 왔던 제비들

은 강남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여름 내 극성이던 모기가 사라지고, 뱀이나 개구리도 겨울잠을 자기 위해 사라지고 중양절부터는 겨울을 날 수 있는 동물들만 남게 된다. 즉 중양절 이후부터는 가을이 가고 계절이 바뀌는, 즉 무르익는 가을을 마지막으로 즐기기 위한 명절이었다.



중양절의 시절음식(時節飮食)

국화전(菊花煎) 중양절에 즐겨 먹던 음식은 국화주 외에 국화전(菊花煎)을 꼽는다. 여염(閭閻)집 가정에서 중양절에 국화 꽃잎을 따서 찹쌀가루와 반죽해 단자(團子) 모양의 찹쌀떡을 만들어 먹는 것이다. 봄에 먹는 화전은 진달래전, 여름엔 노란 장미를 올린 화전, 가을인 중양절엔 국화전 우리 선조들은 그때 그때 계절마다 피는 꽃으로 화전을 만들어 먹을 줄 알았다.

화채(花菜) 이날의 빼놓을 수 없는 음식중의 하나가 화채. 가을이면 노랗게 익은 유자(柚子)를 따다가 송송 썰어, 잘게 썬 배와 함께 꿀물에 타고, 여기에 석류(石榴)알과 잣을 동동 띄워 마셨다. 특히 이 화채는 계절의 미각을 느끼게 해주는 시절음식으로 제사(祭祀) 때 사용하기도 했다.

열구자탕(悅口子湯) 현대의 연회(宴會)에서 상에 마련되는 신선들의 화로(火爐) 음식이라는 의미의 신선로(神仙爐)는 화로 위에 전골 틀을 놓고 쇠고기나 돼지고기에 무, 오이, 마늘, 파, 계란 등을 넣어 장국으로 끓인 것이다. 입을 기쁘게 한다하여 열구자탕(悅口子湯)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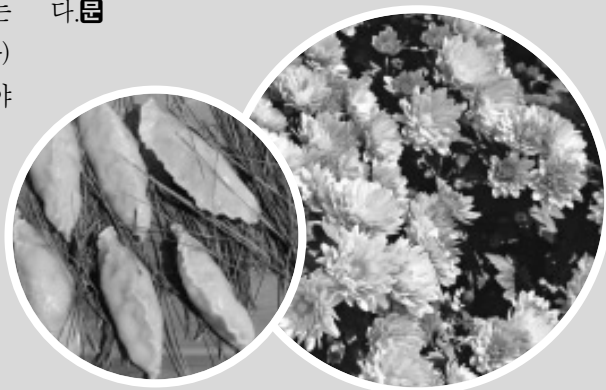
만두(饅頭) 메밀가루나 밀가루로 만두(饅頭)를 만드는 데, 속에는 채소, 파,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두부 등을 다져 넣고 장국에 끓여 먹었다. 이 음식은 중국의 삼국 시대에 제갈공명이 위(魏)의 맹획(孟獲)을 공격할 때, 어떤 사람이 “남만(南蠻:남쪽 오랑캐)에서는 사람을 죽여서 그 머리를 제물(祭物)로 하여 제사를 지내는 풍속이 있는데, 그러면 신이 음병(陰兵:은밀하게 도움을 주는 병사)을 보내 준다고 합니다”라며 그렇게 하기를 권했던 이야기에서 유래되었다. 그때 공명은 그대로 하지 않고 양고기와 돼지고기를 섞어 소를 만들고 밀가루로 싸서 사람의 머리 모양을 만들어 신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 음식 이름을 ‘남만(南蠻)의 머리’라는 의미로 ‘灣頭(만두)’라 했던 것이 ‘饅頭(만두)’라는 뜻으로 변화되었다.

난로회(暖爐會) 서울 풍속 중에 화로(火爐)에 숯불을 피워 놓고 모여 앉아 기름장, 계란, 파, 마늘, 고추장 등으로 양념한 쇠고기를 솔뚜껑 모양의 전철에다 구워 먹었던 음식 풍속이 있었는데 이를 난로회라 하였다.

연포탕(軟泡湯) 두부를 잘게 잘라 썰어서 꼬챙이에 꿰어 기름에 부치거나 닭고기를 섞어 국으로 끓인 것을 연포탕이라 했다. 여기에서 ‘거품’이란 뜻의 ‘포(泡)’가 두부를 의미하는 것. 두부는 현재까지 서민들의 기본 반찬으로 많은 영양가를 제공하는 음식으로 사랑받고 있다.

강정 찹쌀가루를 물과 술로 반죽해 둥글거나 모나게 만들어 햇볕에 말렸다가 기름에 튀기면 마치 누에고치처럼 부풀어 오른다. 이때 속은 비게 되고 그것에 붉은 흰 참깨나 들깨, 흰 콩가루, 파란 콩가루 등을 얹어다 버무려 붙이면 강정이 된다. 시월 경부터 시절음식으로 많이 만들어 먹는데, 그 재료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고 특히 홍색과 백색의 강정은 설날과 봄철에 민가에서 제수(祭需)로 과실과 같이 취급하며, 세찬(歲饌)으로 손님을 접대할 때에도 많이 사용하는 음식이다.

김장 김치 ‘추수동장(秋收冬藏)’이란 말처럼 가을에 수확한 곡식을 겨울에 저장해서 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시기에 겨우내 집안의 기초 음식으로 김장 김치를 담근다. 현재 우리 나라 전통음식인 김장 김치는 여름철의 장담그기와 함께 일반 가정에서 1년 중 매우 중요한 행사이다. **문**



운동장 안은 '순간' 운동장 밖은 '영원'

‘백제문화’ ‘과학도시’ 알리고 ‘주민결속력’ 높일 절호의 기회



이 기 진
동아일보 대전주재기자

흥분하라. 더욱 흥분하라. 취한 것처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오랫동안 푼 것처럼 기뻐하라. 목이 쉬도록 소리쳐라. 옆에서 얘기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앉아 있지말고 움직여라. 일어서라. 그리고 손이 새파랗게 멎을 정도로 박수를 쳐라. 온 몸이 녹초가 되도록 소리치고 움직이고 박수치고 그리고 열광하라. 환호하라.

지난 9월 13일 오후 8시반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경기장. 경기장 개장기념 행사의 하나로 열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나이지리아 대표팀의 친선경기. 전반전 0대2의 패배에서 후반전으로 접어들어 1대2까지 추격한 가운데 터진 최용수선수의 멋진 동점골. 운동장을 가득 메운 4만여 관중들의 환호는 한발짝 대전을 올리게 했다. 순식간에 관중은 일어났고 목과 손 몸통 인간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구사하면 서 관중은 기뻐했다. 우리 팀 골대 뒷편에서 시작된 인간과도는 순식간에 운동장을 수 바퀴를 돌면서 모두가 하나됨을 확인하고 있었다. 열광과 흥분, 그리고 하나됨이 각본도 없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하나됨 그 하나됨을 위해 바로 월드컵은 존재하는가 보다. 더욱 견고하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더욱 흥분하고 더 높게 소리치며 더 높이 자리에서 일어나보자.

‘꿈의 제전, 세계인의 축제’ 2002 월드컵이 8개월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88년 서울올림픽이 한국을 바꿔 놓았다면 지난 93년 1천만명이상의 관광객이 다녀간 대전엑스포는 대전을 바꿔놓았다. 대회를 계기로 도로 교량 교통신호체계 등 사회기반시설의 급격한 발전은 물론 시민 의식과 문화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Up-grade)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제 대전은 또 한번 비상의 채비를 하고 있다. 대전에서는 요즘 월드컵을 위한 각종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대전은 이 대회를 계기로 비로소 세계속의 도시로 우뚝 솟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전이 열리게 될 대전 유성구 노은동 월드컵축구경기장은 초가를 문턱에서 눈이 부실정도로 초록의 빛을 발하고 있다. 3년여 공사를 거친 월드컵 경기장의 개장경기가 열린 지난 13일에는 4만600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우려했던 교통문제나 질서 청결면에서 손색없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성공적인 월드컵이 감지된 행사였다. 내년 월드컵때 대전에서 열리는 경기는 6월 12일, 14일의 조 예선전과 6월 18일의 16강전 등 불과 3개 경기. 비록 3경기를 위한 푸른 구장이지만 이 좁은 공간에서 대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다.

● 월드컵은 대전에게 무엇인가?

흑자는 “웬 난리법석이나”고 말한다. “불과 3개 경기가 대전을 어떻게 바꾼다는 얘기냐” “3경기를 치르고자 수천억원

의 예산을 들여 경기장을 새로 짓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아니다. 그것만은 아니다. 또 그렇게만으로 해석해선 안된다. 대전시는 월드컵을 계기로 다시 한번 국제적인 도시로 부상하겠다는 야심에 차 있다. 데이터상으로는 월드컵이 대전에게 9000여억원의 생산유발과 1만5000명의 고용창출효과를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문화와 체육인프라 구축은 물론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도 상당한 성과와 영향을 줄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98년부터 월드컵 추진본부라는 별도의 행정조직을 갖추고 경기장건설과 대회운영준비 시민문화운동 등 12개 분야 344개 단위사업 별로 치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교통의 중심지이며 세계적인 과학기술도시이자 제2의 행정수도라는 비전을 대

회기간동안 제시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중이다. 150만 시민에게 수준높은 문화행사를 통해 즐겁고 색채깊은 향토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월드컵이 열리는 동안에 지구촌 구석구석에 대전의 모습이 전파되면서 대전을 알리는 동시에 그들에게 ‘가보고 싶은 도시, 그리운 도시’로 남을 것이다. 대전 시민은 바로 ‘월드컵 개최한 시민’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 준비는 어떻게 되나?

호남고속도로 유성톨게이트 바로 앞에 건설된 사각형 지붕개폐식의 월드컵 경기장은 한마디로 과학의 도시 대전답게 우주선을 연상케한다.

지난 98년 12월 첫삽을 뜬 후 1250억원을 들여 32개월만에 완공된 경기

장은 전체부지 5만2000여평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4만1000명 수용 규모다. 국내 10개 전용구장 가운데 규모는 가장 작지만 지붕개폐식 구조와 함께 그 디자인과 예술성은 세계 어디에 다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

경기장 이외 골프연습장과 게임센터 헬스장 수영장 문화교실 콜라텍 어린이체육관 스포츠박물관 등도 들어서 있어 월드컵 이후에는 시민들의 스포츠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 구장밖의 월드컵 문화행사는?

경기장과 숙박시설 교통문제 등이 월드컵의 하드웨어라면 문화행사는 소프트웨어다. 오히려 경기는 승패에 따라 승리의 기쁨도 순간, 패배의 아픔도 순간이지만 문화행사는 전혀 다르다. 외래 관광객들에게는 대전의 모습과



주변 백제권 문화의 진수를 소개하는 기회이면서 행사준비와 연출을 하는 시민사이에게는 결속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대전의 향토문화를 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이면서 선진의식문화를 뿌리내려주는 계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외래 관광객들에게는 가슴속 깊은 곳에 대전의 인상을 깊게 심어주고 본국에 돌아가서도 주변에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다시 오고 싶은 감정을 심어주는게 주요 과제이다. 우선 경기장과 숙박장소를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여건은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관광객들의 숙박지가 될 유성관광특구도 온천휴양지일 뿐만 아니라 불과 승용차로 10분거리에 계룡산국립공원이 위치해 있다. 이밖에 각각 30분, 1시간 거리에 백제의 고도인 공주와 부여가 위치해 있으며 과학도시답게 대전엑스포과학공원과 대덕밸리도 지척에 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과거와 현재, 역사와 문명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월드투어를 개발해 후회없는 관광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회기간중에 전국 최대규모의 과학테마축제인 사이언스

페스티벌과 세계유머페스티벌 대전월드컵프렌즈축제 대규모 군악대연주와 의장대퍼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 월드컵프렌즈축제는 대전의 전통연극공연과 향토음식인 '6미3주'(삼계탕 숯골냉면 구죽도토리묵 동춘당국화주 구죽농주 대청함오미자주)의 시식과 시음을 맛보는 행사로 참가자에게 영원한 추억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밖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준비도 추진중이다. 유성인터체인지의 요금소 및 접근로를 확장하고 한밭대로 등 100개 교차로에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을 설치하고 있다.

● 월드컵 성공의 관건은?

그러나 월드컵의 성공여부는 이같은 하드웨어적인 또는 조직과 시스템의 완벽함에 달려 있는게 아니다. 경기외적인 소프트웨어 측면, 특히 시민들의 문화시민의식이 그 관건이다.

월드컵조직위원회는 2002 월드컵을 경제월드컵, 문화월드컵, 환경월드컵, 국민월드컵, 평화월드컵이 되게 하도록 월드컵의 성격과 목표를 천명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성공적인 문화월드컵을 위해 선 축제분위기가 배어나는 행사, 월드컵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문화수준이 한 차원 높아져야 한다.

월드컵은 한시적으로 진행되지만 이를 계기로 한 문화축제 문화상품개발 문화환경조성은 영구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나아가 지역민의 시민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효과를 발휘한다. 현재 대전시민의 질서의식이 글로벌시대에 어느정도인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정교하게 따져봐야 할때이다. 대전시를 비롯한 행정기관도 행사만을 성공적으로 치러내는 것이 대회개최의 목표인양 착각하지 말고 제도약을 위한 또 다른 전기로 삼는다는 목표의 재설정이 있어야 한다.

특히 대전의 경우 그동안 이곳에 연고를 둔 프로야구와 프로축구단 관계자의 말을 감안해볼때 스포츠를 통한 지역의 통합은 기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었다. 이번 대회는 시민의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좋은 기회다. 더욱이 현재로선 한국팀의 경기가 대전에서 열리기는 불가능할 전망이어서 쉽게 달아오르지 않는 충청도 정서를 감안해 열기를 살릴 수 있는 방법모색이 필요하다. 공격적인 축구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월드컵의 마케팅도 필요하다. 완벽한 수비만을 원할 것이 아니라 완벽하고 철저한 준비체제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것만이 충청도민의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열기를 달아오르게 하고 구장에 모인 관객을 흥분하게 할 것이다.

축제가 다가온다. 다 같이 완벽하고 정교하게 흥분하자. 월드컵은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문**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는 하나”

김 계 담 서귀포문화원장

여행에서 돌아오고 난 후 5박6일의 여정 그 하루하루가 내내 가슴속을 맴돌고 있다. 그만큼 이번 여행은 내게 특별했다. 더구나 우리 나라 최남단 국경의 한라산 자락에서 태어나 살며 수시로 한라산에 오르고 있는 나로서는 최북단 국경의 백두산 정상에 직접 서 보았으니, 국토 상상의 두 영산 사이를 다 누벼본 듯한 기분으로 가슴 벅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8월 22일 12시 35분 인천국제공항을 떠난 우리 일행은 오후 2시 20분 중국 장춘공항에 도착했고 일행은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길림성 동부에 있는 연변을 향했다.

연변은 조선말기부터 한국인이 이주해 개척한 곳으로 이전에는 ‘북간도’라 불렸던 곳이다. 조선족·한족·만주족·후이족 등 11개 민족 219만여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38%가 조선족이라고 한다. 연변에서는 쌀·콩·조 등의 곡물이 생산되는데, 벼농사는 한국인이 이주한 뒤에 발달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연변은 1955년 12월에 자치주로 승격해 ‘연변조선족 자치주’가 되었으며, 주도인 연길시·용정시·훈춘시·

돈화시·도문시·화룡시 등 6개 시와 왕청현·안도현 등 2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길 공항에 도착한 일행은 호텔로 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올랐다. 버스는 어찌된 일인지 냉방시설이 작동하지 않더니, 급기야는 시동도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조급한 마음으로 찢찢매는 것은 우리 일행들뿐이었다. 주민의 절반이 한국인이라고 하지만 역시 ‘만만디’로 표현되는 중국땅이로구나 싶었다. 결국 다른 버스로 갈아타고 호텔을 향해 떠났다.

버스는 15분쯤 뒤에 ‘연변대우호텔’에 도착했다.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주도인 연길시는 인구 25만 8천명 중 절반이 한국인이다. 중국인이 한국말을 배워야 할 정도로 거리의 간판은 반드시 한글이 먼저 표기되고 번역이라든가 중국어가 함께 표기돼 있다.

그래서일까? 처음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낯설지가 않았다. 도심 가까이 까지 남아있는 초가들이며 어설픈 서체의 간판들이 빚어내는 도심지의 풍경은 30여 년 전의 우리 거리 같아,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 온 듯한 기분마저 들게 했다.

30년전 우리 거리같은 ‘연변’

다음날인 8월 23일의 조찬은 연변조

선족자치주 인민정부 이길은 부주장과 함께 했다. 그는 서울, 부산, 제주 등을 방문했던 경험담을 들려주었는데, 그중 제주도가 제일 좋았다고 해 제주일행들을 우쭐하게 해주었다.

조찬이 끝난 뒤, 일행은 도문시의 ‘조중국경다리’로 향했다. 중국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었다. 건설 붐이 일어 곳곳이 공사장이었는데, 양쪽길 가에는 하수구 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일을 하는 사람들보다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더 많은 듯했다.

1941년에 준공됐다는 너비 6미터 길이 300미터의 거대한 다리 아래로는 두만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다리는 중국과 조선이 각각 150미터씩 차지하고 있어 조선과 중국의 국경임을 의미하는 ‘조중국경다리’라고 한다.

‘700리 두만강’이라고 불리는 두만강의 실제 길이는 505.4km라고 한다. 끝간 데 없는 거대한 강줄기가 그저 가슴 벅찰 뿐, 505.4km가 어느 정도의 길이인지 실감이 나지 않았다.

두만강의 푸른 물줄기를 가슴에 담은 채, 이번 여행의 목적인 ‘민족전통음악제’에 참석하기 위해서 우리 일행은 오후 일정을 서둘렀다. 달리는 버스 안에서 경계선 너머의 두만강을 바라보며 일행은 두만강 노래를 합창했다.

눈물 젖은 두단강이라고 했던가. 바로 눈앞에 두고도 가볼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983년에 건립된 연길시 예술극장은 아이러니 하기도 일본군 구치소가 있었던 자리에 들어서 있었다.

2,500 객석을 꽉 메운 사람들을 보노라니, 민족전통음악제에 대한 연변 사람들의 관심과 열의가 느껴져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음악제는 한국 전국문화원연합회가 중국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해외문화교류사업이다.

“배달민족의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체제와 이념의 벽을 넘어 민족의 동질성과 일체감을 키우며 한국과의 문화교류를 추진하려는 취지 아래 펴낸 풍요로운 문화잔치”라는 연변조선족문화발전추진회의 조성일 회장의 대회사와 “작은 물줄기가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이 행사가 연변조선족만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남과 북, 그리고 세계도처의 해외동포들이 함께하는

화합의 축제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는 한국 전국문화원연합회 이수홍 회장의 격려사에 이어 수상자 공연과 축하공연이 끊이지 않는 박수 속에서 펼쳐졌다.

수상자들이 들려주는 동동타령, 진도아리랑, 사타가, 이별가, 새타령 등 낮익은 우리 민요들을 듣노라니, 말의 억양은 조금 달라도, 역시 우리는 한 민족 한 핏줄이로구나 싶어 가슴이 뜨거워졌다.

남북 및 해외동포들간에 이질화된 민족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길은 공동분모를 이루고 있는 문화를 끄집어내는 일이라는 걸 새삼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축하공연을 펼친 한국 성악가 황영금 교수와 안영일 교수의 노래는 예술극장이 떠나갈 듯한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현 제주문화원장인 양중해 시인이 노랫말을 붙인 ‘떠나가는 배’와

연변의 일송정을 노래한 ‘선구자’는 객석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양측 공연자와 연변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펼치는 음악제는, 문화공유의 한 마당으로서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향하는 밑바탕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는 믿음을 충분히 갖게 했다. 더불어 문화인들 사이에 인간적인 우의와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으니 참으로 뜻 있는 행사가 아닐 수 없다.

‘떠나가는 배’ 감동의 도가니로

다음 날 아침, 백두산에 가기 위해 연변대우호텔을 출발했다. 마침 출근 시간이어선지 버스가 외곽지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곤욕을 치렀다. 교차로에도 신호등이 거의 없어 자동차며 자전거 거머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교통이 혼잡하기 짝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 곤혹스러워 하는 것은 우리 일행들뿐이었다. “중국은 무질서가



백두산을 등정한 서귀포 문화원 회원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필자)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전국 문화원 임직원·회원들이 대우호텔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질서”라고 했던 가이드의 말이 이해가 됐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무질서한 것 같은데 저마다 서로 부딪치는 일 없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외곽지로 들어서자 가로수와 꽃으로 단장한 도로가 이어졌다. 연변대우호텔에서 백두산까지 다섯 시간 이상을 달렸는데, 놀라운 것은 다섯 시간 내내 차창 밖으로 꽃길을 감상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은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은 만큼 관광지와 관광지 사이가 엄청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지나는 도로마다 꽃을 심어 놓을 정도로 관광사업에 힘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연변 총수입 중 30%가 관광수입이라고 한다. 관광객의 99%는 한국인이고, 중국의 엄청난 땅덩어리와 인구를 생각해 봤다. 우리 나라를 찾는 중국관광객은 과연 몇이나 되나? 우리에게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니 참으로 심란해졌다.

백두산! 백두산을 만난 감동을 어찌 다 표현할 수 있으리.

한라산이 어머니 산이라면, 백두산은 아버지 산이라 했다.

과연 백두산은 장엄하고 웅대한 사나이의 기개를 품고 있었다. 2,744미터라는 높이도 그렇지만, 북동에서 서남서 방향으로 장군봉, 향도봉, 쌍무지개봉, 청석봉, 백운봉 등을 이루고 있는 장백산맥이 웅장하게 뻗어 있고, 남동쪽으로는 마천령 산맥이 끝간데 없이 뻗어 있다. 그 넓이가 9,165km²라는 천지는 바라보기만 해도 두려울 정도로 거대하고 깊어 보였다. 평균 수심이

213m, 최대수심이 384m라니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하지 않은가.

이곳에서 익산문화원의 이인호 원장이 준비해온 제복을 갈아입고 천신제를 드리자 주변의 관광객들이며 중국인들이 모여들었다. 가이드는 연간 2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백두산을 찾지만, 이렇게 천신제를 드리는 관광객의 모습은 처음 본다고 신기한 얼굴로 우리 일행을 새삼 둘러보기도 했다.

하지만 백두산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 백두산에서 내려와 장백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다. 다음 날은 연길시의 경계선인 모아산을 넘어 용정시 비암산의 일송정을 만나러 갔다. 가는 길 내내 ‘일송정’ 하면 떠오르는 강, 해란강이 펼쳐져 있었다. 독립운동과 항일선구자들의 상징인 비암산의 일송정. 50년 전까지만 해도 깎아지른 벼랑 끝에 두 아름도 넘는 소나무가 바위에 뿌리를 박고 역세게 자라고 있었다고 한다. 그 모양이 돌기둥에 푸른 청기와를 얹은 정자와 비슷하다 해서 일송정이라 불렀다는 것.

그런 일송정이 수난을 당한 것은 일제 강점기 때. 당시 총사령사가 일송정이 영사관을 호시탐탐 노려보기 때문에 영사관이 불에 타고 영사들이 병에 걸린다면서 없애라고 명령했다.

총영사와 헌병대장이 공모해 일송정을 군사들이 실탄연습을 하는 과녁으로 삼고 매일같이 보총과 박격포를 쏘았지만 포탄알은 일송정까지 미치지 않았다. 그러자 한밤중에 줄병을 파견하여 일송정 줄기의 껍질을 도려내고 구멍을 뚫어 후추씨를 넣고는 도려냈던 껍질을 붙이고 대못을 박아 흔적을

없앴다.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한 일송정은 1938년 영영 말라죽고 말았다고 한다.

1990년에야 작은 소나무를 일송정 본 자리에 심고, 일송정이란 정자를 짓고 기념비를 세워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 외에 선구자 노래비, 강경애 문학비가 있었다.

일송정의 역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용정은 일정시대 독립운동의 요람이었다. 용정은 또한 윤동주 시인의 고향이기도 하다.

용정중학교에 당시의 상황들과 독립운동 활동들이 전시되어 있다.

문화동질성 확인 ‘값진 소득’

5박6일의 여행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들어섰을 때, 여행 전에는 무심코 보았던 것들이 새삼스럽게 다가와 내 눈을 의심했다. 우리의 불빛 하나도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던 것이다.

떠나보아야 사는 곳의 소중함을 안다 했던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넓은 땅덩어리와 인적자원을 가진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이삼 십 년쯤 뒤진 생활을 하고 있음을 체험하고 나니, 우리는 윤택하기 그지없는 문명생활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윤택한 것인 줄 몰랐구나 싶었던 것이다.

국토의 남쪽 끝에서 북쪽 끝이라. 돌이켜 생각해보니, 참으로 먼 거리를 여행하고 돌아왔다. 그 먼 곳에서 50년 단절의 역사를 너머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동질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번 여행의 수확은 값지고도 큰 것이 아닐 수 없겠다.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또 어디 있어?” 문화상품개발업체 토트의 박은영 대표(36)가 신제품을 설명하다 불쑥 내뱉은 말이다. ‘똥’은 11월을 뜻하는 화투패. 토트는 최근 우리 민화로 된 화투를 개발해 시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앞서 내놓은 인기상품은 락앤롤(rock&roll). 사라져가는 윗놀이와 쌍륙(雙六)을 현대적으로 재현한 놀이다. 글자그대로 플라스틱속에 들어있는 윗과 주사위를 흔들어 굴리는 놀이도구다.

지난해 4월 편집회사 동료들과 함께 디자인회사를 차리고 홍보카달로그 등 인쇄물을 제작해오다 윗놀이를 문화상품으로 만들어보면 재미있겠다는 생각에 일을 벌렸다.

하지만 실제로 부딪쳐본 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통을 사출할 금형 제작부터가 쉽지 않았고 쌍륙에 이용할 주사위가 없어 영국서 수입해야 했다. 지난 5월에야 락앤롤은 비로소 완성됐다.

윗판 문양이나 행마법도 전통 그대로다. 한단계 후퇴하는 일명 ‘뒛도’의 재미도 살렸다. 손마디만한 플라스틱 윗 겉에는 호랑이 문양을 넣었다. 물론 풍습처럼 윗을 세번 던져 윗점을 칠 수 있다. 점괘는 64가지. 윗판을 뒤집으면 주사위 놀이인 쌍륙판. 놀이방법은 윗과 비슷하다. 실용신안 특허제품.

락앤롤은 첫 출품한 여성기업우수상품박람회에서 다른 부스로 부터 부러움어린 비아냥을 받을 정도로 인기리에 팔렸다. “윗통을 달랑달랑 흔들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몰려들곤 했어요. 특히나 윗놀이

한국적 색깔 담긴 놀이도구 만드는 박은영 토트 대표

‘휴대용’ 윗 · ‘한국형’ 화투 문화상품化

에 향수가 있는 30~40대 대부분은 발길을 멈추고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매장에 놓아두기만 하면 안되고 제대로 홍보를 해야 팔린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특히 언제나 휴대가 가능하도록 작게 만든 덕에 설·추석때가 아닌 평상시에도 게임을 즐길 수 있다. 더러는 점심시간에 ‘사다리타기’로 이용하곤 한다. 영문설명서도 들어 있어 외국인과 함께 즐기거나 선물용으로 좋다. 소비자가격 6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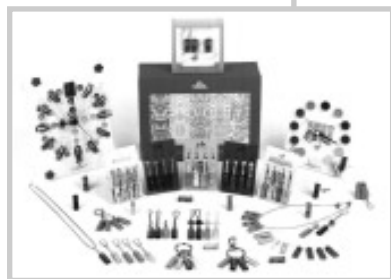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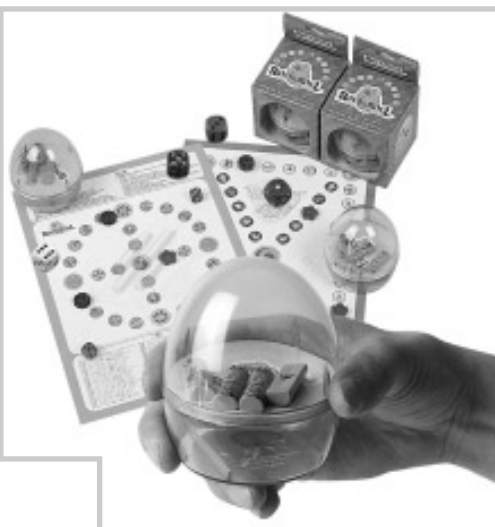
토틈가 내놓을 또하나의 제품은 ‘미나투(美娜圖)’. 이른바 한국형 화투다. 명절때 가족놀이로 한몫 단단히 하는 화투를 ‘우리것’으로 바꿔 보자는 취지에서 만든 것이다. 일예로 화투의 벚꽃 그림을 동백꽃으로 바꿨다. 일본말도 없었다. 이를테면 ‘고도리’를 여섯마리의 새란 뜻의 ‘육조’로, 나가리를 순수한 우리말인 ‘곰이어’로 고쳤다. 더 나아가 마흔여덟장의 화투에다 여섯장을 추가해 트럼프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역시 한국형으로 리디자인했다. 트럼프의 쿤을 까치호랑이로 대체한 것이 한 예. 이 모두가 9개월에 걸쳐 도서관이나 박물관·민화전문가를 찾아다니며 개발한 결과다.

“화투를 더 많이 확산해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본래 라면이 일본 것인데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김치가 우리나라 것인데도 일본에서 더 유명해지지 않았나요? 이처럼 화투도 일본 것이지만 우리 놀이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박씨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고스톱이 온라인상에서 대 인기를 끌고 있는 사실을 아느냐”고 반문하며 “국내의

모 게임업체에서 일본에 온라인 고스톱을 역수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야후아메리카에서도 이미 관심을 갖기 시작해 고스톱이 세계적 게임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내다봤다. “그렇게 되면 미국사람들도 화투를 한목씩 살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으로보아 화투는 닌텐도에서 살 것입니



다. 고스톱은 우리가 퍼뜨리고 돈은 일본이 챙기는 격이 되는거죠”

실제로 포항출신인 박씨는 대학교때 서울서 자취하며 고스톱에 미쳐 시험 망친 일도 여러번이고 졸업후엔 잡지사에서 야근하며 포커치는 일도 많았다고 한다. 또 결혼하고 보니 시댁식구들이 화투를 그렇게 좋아해 이래저래 화투와의 인연은 계속됐다고.

박씨는 앞으로 서로 힘든 사람들이 돕고 살자는 생각으로 민화작가뿐만 아니라 구족(口足)화가에게도 그림을 의뢰할 계획이다. 토틈는 그동안 상품개발에만 전력하느라 신경을 못썼던 마케팅에 대해서도 전략을 짜고 있다. 1차적으로는 썬즈코리아·월드팁스·정글·코렉스몰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업체를 통해 판매를 계속하고 2차적으로는 기업체 고품위 사은품으로 접근할 계획이



다. 이미 인천공항공의 모택화점에서도 주문이 들어오는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사와도 기내용 상품으로 납품하기 위해 상담중이다.

이밖에 토틈는 옷을 응용한 시계·목걸이·티셔츠 등을 비롯해 옷개비라는 브랜드로 도깨비 문양의 열쇠고리·핸드폰줄도 개발했다. 인터넷 사이트(www.thoth.co.kr)도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문화상품만을 떼내어 우리놀이에 대한 콘텐츠와 또다른 화투 게임 등을 올리고 싶은게 꿈.

이런 토틈의 꿈이 하나 둘 이루어 질 날을 기대해 본다.(02-838-4643)

제주에 유배온 정씨부인이 만든 母酒서 유래

류 장 수 前 월간 '우리문화' 편집주간

요즘은 '술'이라 하면 소주나 맥주를 즐겨 찾지만 60년대까지만 해도 '서민의 술' 하면 '막걸리'가 꼽혔다. 막걸리는 모주·젖대기술·탁배기·탁주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린다. 중국의 문호 두보(杜甫)도 막걸리의 운치를 극찬한 바 있다. 이 막걸리에 얹힌 비화가 있다. 이 비화를 알아보기 전에 우리나라 술의 역사부터 더듬어 보도록 하자.

우리 술의 역사

원시시대에는 과실주, 유목시대에는 유주(乳酒), 농경시대에는 곡주를...

술은 원시시대부터 있었다. 어느 나라든 간에 대개 건국신화에는 술의 기원을 알려주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유독 우리나라만 술의 기원을 전해주는 신화가 따로 없다. 다만 고구려 시조 주몽의 탄생에 관한 신화인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비단자리 눈부시게 깔고 금술잔에 맛있는 술을 따라 놓았다. 과연 스스로 들어와 대작하여 술을 먹고 크게 취하였다.”라는 이 인용부분은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웅심 연못가에서 하백의 딸인 유화·현화·위화, 이 세 자매를 유혹하려고 미리 술을 준비해 놓았다가 그녀들과 술을 마시고 취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 설화의 한 토막에서 술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때의 술은 어떻게 빚었을까. 술은 옛날부터 있었지만 양조법은 많은 변천과정을 거쳤다.

원시시대에는 자연발효로 만들어진 과실주를 주로 마셨고 유목시대에는 가축의 젖을 발효시켜 만든 유주(乳酒)를 마셨으며, 농경시대에 와서는 곡식으로 술을 빚었으니 이것이 양조법의 변천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술에 관한 기록을 찾아 보자면, 방기환이 엮은 '한국생활풍습백과'에 “우리나라에서 누룩으로 술을 빚은 연대는 잘 알 수 없으나 일본에 건너간 백제 사람이 곡주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이전부터였다고 추측된다”하였다.

또 이수광의 '지봉유설'에 “미인이 쌀을 씹어 만드는 미인주는 하룻밤만 지나면 술이 익는다”고 하였으며, '고려도경'에도 “고려에는 누룩으로 빚은 술이 있는데 술이 진하고 맛이 강하여 쉽게 취하고 속히 깨다”라는 기록이 있다.

광해조때 생긴 막걸리

막걸리는 방문주를 뜨고 남은 모주(母酒)를 얻어다가 물을 붓고 다시 걸러서 빚어낸 술...

막걸리는 광해조 때 생겼다. 광해군 5년(1613년)의 일이다. 광해군은 선조의 후궁인 공빈 김씨 소생으로 대북(大北)의 이이첨과 정인홍의 세력을 등에 업고 즉위했다. 그는 대북(大北)·소북(小北)의 당쟁 소용돌이 속에서 폭군으로 군림했다. 궁중에서 삼천궁녀를 회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는 파리 잡듯 했다.

막걸리는 인목대비(선종의 계비)의 아버지인 연흥부원군 김제남 집안 풍파와 관련이 있다. 김제남은 광해군 시절 대북파와 손잡고 자기 딸(인목대비) 소생인 영창대군을 추대하려 한다는 모함을 받아 잡혀 죽었다. 그의 부인 정씨와 어린 손자인 천석만은 화를 면했으나 그들은 목숨을 보존할 방도가 없었다. 정씨 부인은 손자가 급사했다는 소문을 퍼뜨려 선영에 거짓 장사를 지낸 후 숨어서 살도록 했다. 그리고 정씨는 제주도에 유배·안치되었다. 갈포라는 아주 작은 어촌이었다. 제주도에서 혈혈단신 초췌한 몸골로 목숨을 부지하기 십년 삶에 지친 정씨 부인은 소일삼아 마

을 어구에 조그만 목로주점을 차렸다. 다 쓰러져 가는 술집이었지만 술 손님은 언제나 득실거렸다. 그 집 주모가 정갈스럽고 안존하다는 입소문이 퍼져 뺏사람들이 많이 찾아들었다. 외상술값이 걸려 있는 손님들일지라도 찾아주는 것을 고마워하는 주모였다.

술손님들은 담 밖에서 술 있느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제 집 드나들 듯하며 굿은 일, 좋은 일 등 일상사를 털어놓으며 술자리를 했다. 술값이 없으면 그냥 가고, 또 술값이 있으면 몇 푼 내놓고 가고. 언제나 주모는 후덕하기만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모는 손해날 게 없었다. 방문주(=맛을 좋게 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빚은 술)를 파는 것이 아니라, 이웃 주점에서 방문주를 뜨고 남은 모주(母酒)를 얻어다가 물을 붓고 다시 걸러서 팔기 때문이었다.

이웃 주점에서는 모주가 남아돌아 정씨 부인에게 빨리 안가져간다고 성화였다. 정씨부인이 남아도는 찌꺼기를 얻어다 다시 걸러서 만든 술의 반응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맛도 괜찮고 목에 걸리는 것도 없어 시장기가 든 사람에게 쥐 보내기도 했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고 주모의 인심이 후덕하다고 하여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게 어디 술인가? 정씨부인은 밀친 없이 시작한 장사였고, 사람들은 처음 맛보는 텅텅한 술맛과 돈 없이도 마실 수 있다는 매력을 느껴 이 작은 목로주점으로 모여든 것이었다.

그래도 주모에게 수입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몇푼씩 모아지는 돈으로 가



난한 이웃의 관혼상제와 같은 대소사에 부조도 했다. 언제 돈가지고 제주도에 왔던가? 후한 인심덕분에 살아 남은 것이 아닌가?

정씨부인은 술에 취하면서 한을 되 씹어도 보았다. 그녀는 이웃에게 돈을 아끼지 않았고, 부지런히 모주를 얻어다 술을 만들었다. 막걸리는 이렇게 태어났다.

주모의 금의환향

애달은 한으로 빚어낸 막걸리, 한국적인 독특한 모미가 살아있어...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다. 멀리 동녘 수평선에 붉은 해가 솟아오를 즈음 주모가 전날 밤 얻어다 놓은 모주를 거

정씨부인이 남아도는 찌꺼기를

얻어다 다시 걸러서 만든

술의 반응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맛도 괜찮고 목에 걸리는 것도 없어

시장기가 든 사람에게 쥐 보내기도

했는데 그것이 소문이 나고

주모의 인심이 후덕하다고 하여

사람들이 꼬이기 시작했다.

●

사람들은 정씨부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녀가 걸러냈던 텃텃한 술을
'모주'라 불렀고,
모주를 만들어 먹는 법도
그때부터 비롯됐다.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탁주 혹은 막걸리를
'모주'라 부른다.

●

옛 농촌의 풍경은
힘든 농사일을 하다가
목이 켄켄하면 막걸리로
갈증을 풀고, 새참으로
시장기를 면하는 정취가 있었다.
막걸리는 단맛과 신맛,
쓴맛이 어우러져 청량미를
내기 때문에 땀흘려 일하는
농민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술이었다.

●

를 양으로 부지런히 서두르고 있는데 단
골 뱃사람 고서방이 헐레벌떡 뛰어들어
오면서 소리쳤다.

“아주뎡, 아주뎡 기쁜 소식이외다.”

고서방은 정씨 부인을 잡고 흔들었다.

“글쎄 아주뎡, 아니 부인, 노부인을 모
시러 왔다니까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여?”

주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까맣
게 잊었던 지난날의 기억이 공포로 다가
왔다. 고서방은 숨을 돌리며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어서 밖으로 나가보세요. 온 마을 사
람들이 모두 포구로 몰려가 서울에서 내
려온 사람을 구경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요. 어서 나가보세요.”

고서방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말굽소
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금부도사가 말에
서 내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호령했다.

“연흥부원군 김제남 대감의 안방마님
정씨 부인은 들으시오. 나라에 큰 대사가
생겨 포악부도한 광해군은 쫓겨나고 새
임금이 등극했소. 그래서 대비마마의 복
명을 받들어 왔소. 노부인께서는 어서 상
경할 차비를 서두르시오.”

“아니?”

정씨 부인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목이
메여 말을 잊지 못했다.

금부도사 일행은 마을을 한바퀴 순행한
다음 승지와 사신들이 머물고 있는 조천
관(朝天館)으로 들어갔다. 온 마을이 발
각 뒤집히고 섬사람들의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제주도의 작은 포구에서 혈혈단신 외롭
게 목숨을 부지해 오던 연흥부원군 김제
남의 부인 정씨. 인조반정이 성공하자 그
녀는 지난날의 누명을 벗고 금의환향하여

영화를 되찾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은 그후 정씨부인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녀가 걸러냈던 텃텃한 술을
'모주'라 불렀고, 모주를 만들어 먹는 법
도 그때부터 비롯됐다.

제주도에서는 지금도 탁주 혹은 막걸
리를 '모주'라 부른다. 오늘날 우리가 마
시는 '막걸리'는 청주를 따지 않고 그냥
막 걸러서 먹는 술이고 이것이 정씨 부인
이 걸러내던 '모주'와 다른 점이다. 뿌영
고 텃텃한 막걸리는 정씨부인의 이같은
애닯은 한이 서려있어 한국적인 독특한
요미가 있는지도 모르겠다.

옛 농촌의 풍경은 힘든 농사일을 하다
가 목이 켄켄하면 막걸리로 갈증을 풀고,
새참으로 시장기를 면하는 정취가 있었
다. 막걸리는 단맛과 신맛, 쓴맛이 어우
러져 청량미를 내기 때문에 땀흘려 일하
는 농민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술이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해서 요즘은 들판에서
도 막걸리보다 맥주가 더 인기를 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도 막걸리는 우리나라
서민의 술로 여전히 애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월간 '우리문화'
인터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www.kccf.or.kr

구독 · 광고문의 T.(02)704-2311



쇠리

우리 민족은 옛부터 말 잘 타고 활 잘 쏘기로 유명하다. 태양을 겨냥듯 눈을 가늘게 뜨고 활시위를 당기는 장부(丈夫)에게서 우리 민족의 웅혼한 기상이 다시금 엿보인다. 사진은 9월 10일 충남 당진에서 열린 제13회 남이흥장군문화제 가운데 한 장면이다. 전통무예 재현은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가 후원했다.



“문화 행정 · 재정적 지원 방식 개선 필요”

2001, 지역문화의 해 ‘충청북도 지역문화의 현안과 대안’ 행사 개최

김 두 진 '2001, 지역문화의 해' 사무국팀장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위원장 이중한)는 지난 8월 경남지역에 이어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간 충북지역의 문화현장을 탐방했다. 이번 충북탐방으로 지역문화 활동가들의 지역문화 활동 성공담과 문제점을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첫날은 조선초 음악가이자 학자인 난계 박연을 기리기 위해 영동군에서 열린 ‘난계국악축제’를 참관하고 오찬 후 주제발표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학실 청주시 문화사업단 기획팀장은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하여’라는 주제로 “각종 문화시설이 공공적 성격만으로는 운영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과감한 민영화와 능률성 및 경제성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며 문화에 대한 공적 지원을 요청했다.

보은문화마당의 박달환씨는 ‘보은동학곳과 지역문화의 기대와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문화는 예술이나 이벤트성 행사만이 아니라 삶 자체도 의미한다”며 “주인의식과 명확한 지역사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미래사회에 대한 삶의 가치를 모색해야 지역문화가 꽃

필 수 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문화정책을 세울 것을 충고했다.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임승빈 청주대 교수는 ‘문화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방식의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기존의 지원방식이 획일적이므로 지원대상을 보다 면밀히 검토해 역점지원과 일반지원으로 지원의 성격을 나눌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토론이 끝난 후 참가자 일동은 국악기박물관과 난계사를 탐방한 후 보은군의 선병국 고가, 정이품송 등을 둘러 봤다.

둘째 날에는 괴산에서 만동묘와 ‘임

제 목		성 명	소 속
9월 25일(화)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관하여	김학실	청주시 문화사업단 기획팀장
	청원지역의 역사성과 향토축제의 개발	김영교	청원문화원장
	보은동학곳과 지역문화의 기대와 전망	박달환	보은 문화마당 아사달 마당식
	새로이 발견된 옥천군 관내의 삼국시대 산성의 현황	황건하	옥천문화원 부원장
	‘三道和合’ 行事	金石烈	永同文化院長
	문화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임승빈	시인 · 청주대 교수
9월 26일(수)	지역문화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	장수봉	충주문화원장
	충북 북부지역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자원화 방향	이창식	세명대학교 미디어문화학부 교수
	人間과 文化	송재섭	시인 · 한국문협 진천지부장
	이데올로기에 숨겨진 홍명희 선생의 행적	김순영	민족문화작가회의 충북지회 회원
	품바 축제 활성화 방안	이석문	충북예총 음성지부 사무국장
	삼국시대 단양의 관광유적들	윤수경	단양문화원 부원장
	문화민주화와 지방문화의 향상	유병택	증평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

걱정'의 작가 홍명희 선생의 생가를 방문한 후 충주로 옮겨 충북 중부와 북부의 7개 지역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장수봉 충주문화원장은 '지역문화가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원년이 되었으면'이라는 글을 통해 "문화사업을 벌이기 위한 지방문화원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각 시·군에서는 문화예술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운영' 조례를 제정,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재섭 문협 진천지부장은 '인간과 문화'라는 발표에서 "기존의 문예진흥기금이 공연예술 분야에 편중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순영 민족문학작가회의 충북지회 회원은 '이데올로기에 숨겨진 홍명희 선생의 행적'이라는 주제로 "홍명희의

생가 보존, 문학비 건립, 문학제 등의 사업이 지역 보훈단체들의 반발이 있었다"면서 문화가 이제는 사라진 이데올로기적 대립에 휘둘리는 것을 안타까와 했다.

주제 발표를 마치고 셋째 날에는 충주의 중앙탑과 중원고구려비, 제천의 청풍문화재단지와 TV드라마 '태조왕건' 촬영장을 둘러보고 단양의 온달산성을 탐방하며 현장에서 즉석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문**

오른쪽은 국보 제6호로 흔히 '중앙탑'이라 불리는 충주시의 중원 탑평리 7층 석탑.
아래는 제천시의 태조왕건 촬영장.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사업 **제주**

만장굴에 메아리 치는 ‘오색화음’

북제주군, ‘만장굴동굴음악회’ 개최

광복절이자 말복이었던 지난 8월 15일 오후 3시부터 만장굴 공개구역 내에서 ‘만장굴동굴음악회’ 행사가 있었다. 북제주군 주최, 동굴소리 연구회 주관 아래 ‘2001, 지역문화의 해’가 후원한 이번 행사는 광복절을 기념하고 평화와 화합을 다지기 위한 공연이었다. 행사는 광복절을 기념하고 평화와 화합을 주제로 하는 공연으로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가 후원했다.

출연자는 동굴음악회 창안자인 테너 현행복, 소프라노 이규도, 테너 김신환, 플룻 연주자인 문성집, 한라소년합창단(지휘 안성복), 7인 앙상블 C&C(대표 허성훈) 등이 참여했고,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프로그램은 소년합창·테너 독창·플룻연주·소프라노 독창·실내악 연주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져 3시간 동안 멋진 공연이 펼쳐졌다. 현장을 참관한 추진위원회의 이원태 추진위원(한국문화정책개발원 책임연구원)은 “한여름에 시원한 동굴에서 은은한 조명과 함께, 음악이 동굴 속에 울려 퍼져 매우 독특하고 색다

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천연기념물인 제주만장굴에서 그런 행사를 하면 혹시나 동굴이 훼손되지는 않는지 걱정을 했다고 하는데, 석회암지대인 강원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동굴들과는 달리 제주의 동굴은 용암이 흐르며 생긴 탓에 동굴 환경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이번 제주 동굴음악회는 주변의 환경을 적절히 이용한 아주 특색 있는 행사였다. 점차 관광의 유형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획된 행사여서 더욱 주목을 끌었는데 경치와 문화재들을 둘러보는 여행에서 이제는 현지주민과

접촉하고, 축제나 공연 등의 문화행사에 참여하는 여행이었다. 많은 여행사가 관광객들을 제주도의 몇몇 명승지만 둘러보도록 유도하는데, 앞으로는 문화행사와 연관된 여행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편의시설을 잘 갖추고, 멋진 풍광을 유지하고, 새로운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굴음악회처럼 조그맣지만 신선한, 현지의 환경을 적절히 이용한 기획들이 계속 있어야 할 것이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음악이나 다른 나라의 토속음악들도 함께 기획해 기간과 횟수를 늘려 개최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문**



지역사회 소규모 특성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사업 **논산**

‘한국문화의 힘’ 지역문화서 찾아야

건양대, ‘지역문화 심포지엄’ 개최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맞아 지역 문화의 특성화와 그 발전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8월 23일 오후 충남 논산시 건양대학교 경상학관 강당에서 개최됐다.

건양대학교 충남지역문화연구소(소장 이철성 교수)가 논산시와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개최한 ‘논산시 지역문화 특성화 프로그램 심포지엄’에서는 논산시 지역문화의 현황과 활용방안 및 지역축제의 활성화 등이 주로 논의됐으며 논산시 박찬우 부시장,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 이종인 상임위원, 문화관광부 문시영 서기관 등 1백여 명이 참석, 지역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먼저 ‘논산 지역사 자료수집 및 활용방안’에 관하여 발표한 이철성 교수는 먼저 한국문화가 세계 타지역의 문화에 비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지니지 못한 원인을 “서율중심의 지배층문화, 고급문화, 상층문화에 대한 강조가 지역문화의 계발을 억제하고 문화발전의 불균형을 초래해 한국문화 정체성 형성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지역민들이 느끼는 동질성과 공감대를 확인하고 그를 바탕으로 지역문화

의 특수성과 보편성이 확인될 때 생명력 있고 경쟁력 있는 한국문화가 형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산의 백제문화와 관광상품화 방향’을 발표한 서오선 국립부여박물관장은 논산지역의 역사가 타지역에 비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이유로 “첫째, 지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저하,



둘째, 행정 관청 혹은 문화원과 동호회 등 기관과 단체간 교류 및 공감대 형성 결여, 셋째, 실질적인 문화인프라의 부족” 등을 예로 들었다.

또 ‘논산지역 축제의 발전방향과 전략’이란 주제로 발표한 지진호 교수(건양대 관광학과)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논산지역 축제의 발전 방안으로, “매력을 갖도록 하는 관광상품성의 강화,

지역문화 정체성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연계관광상품의 개발, 마케팅 컨셉의 도입, 민간주도형 축제로의 전환, 재래시장의 활성화”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논산 유교 및 예학문화권 개발 방향과 전망’을 발표한 이해준 교수(공주대 사학과)는 논산 유교문화의 개발 방향으로 “첫째, 체험과 유교문화 이해 프로그램의 확대, 둘째, 유교문화와 관련된 유·무형 모든 자원의 활용, 셋째, 시대별 문화양상의 차이에 대한 이해, 넷째, 논산 지역민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조했다.

이 날 행사는 충남 남부지역의 중소도시인 논산에서는 처음으로 지역문화를 진지하게 논의하는 자리로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그동안 일반인에게 신병훈련소 등의 이미지로만 굳어진 이곳에 처음으로 ‘문화’와 주민의 문화향수권을 생각해 보는 자리가 마련된 것이다.

다만 지역사회에서 청년문화를 꽃피울 대학의 기능과 역할이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이 한가지 아쉬움으로 남는다. 가령 지역축제와 대학축제의 연계라든가,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센터로서의 기능, 활발한 청년문화와 전통성을 간직한 지역주민들의 융화 등은 대학을 위해서나 지역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

사라진 명절 '백중' 을 되살린 연산 사람들

‘제12회 연산 백중놀이’ ‘제1회 댜민축제’ 서 재현

9월 7일 충남 논산시 연산면 연산천변에 위치한 연산면체육공원에서 ‘제12회 연산백중놀이’ 정기공연과 ‘제1회 댜민축제(연산댜민 체육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연산백중놀이보존회(회장 강대혁)의 주최로 충청남도과 논산시 그리고

연산면이 협찬을 했고, ‘2001, 지역문화의 해’는 연산백중놀이 정기공연 부분에 후원을 했다.

연산백중놀이는 1989년 당시 처음 발굴되어 1990년 제3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고, 1991년에는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제14호로 지정됐으며, 이후 매년 음력 7월 15일(백중)에 정기공연을 가졌다. 올해는 양력 9월 2일이 백중이었으나 댜민체육대회와 함께 치르기 위해 일자를 약간 늦춰 치렀다고 한다.

유래

연산백중놀이는 520년전, 현 논산시 두마면 왕대리를 중심으로 연산면 일대에서 전승되어온 민속놀이로서 조선 성종때 좌의정을 지낸 광산김씨 김국광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의 생가가 있던 왕대리와 그 인근 27개 마을 주민

들이 농사일이 끝나는 시기에 김국광의 묘에 참배하고 두계천변에서 큰 잔치를 벌이던 것에서 유래했다. 나중에 후손들이 연산면 일대로 이주하면서 연산천변에서 4백54년간 광산김씨가 백중놀이에 관한 모든 비용을 전담하며 지내오다가 일제의 탄압으로 1942년에 중단되었다. 현재도 광산김씨 종친회에서 1942년 당시의 용기(龍旗)를 보관 중이라고 한다.

놀이패와 놀이의 구성

김선원 연산면장은 군청 문화계장으로 근무하던 1989년 당시 연산백중놀이의 복원에 매우 크게 기여했고, 현재도 보존회 강대혁 회장과 함께 백중놀이의 전승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보존회는 강회장을 비롯해 이경원 예능보유자 등 2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산면사무소 내 건물을 빌려 놀이에 필요한 의상과 도구들을 비치해 놓고 있다.

놀이패는 연산백중놀이기 1, 쌍용기 1, 용기 3, 농기 3, 영기 3, 마을기 27, 풍물 42, 도좌상 1, 지역좌상 3, 축관 1, 공원 1, 선소리꾼 2, 효자효부 2, 불효자 1, 동리아낙 3, 모범농민 3, 지계꾼 16, 갈퀴 2, 가래 2, 삼과 팽이 10, 농부 36등 총 170명이 놀이마당을 벌



인다.

놀이는 모두 여덟 마당으로 구성된다. 첫째 마당에서는 지역 좌상들의 인솔로 용기와 농기를 앞세워 놀이마당으로 집결해 기(旗)싸움을 벌인다. 둘째 마당에서는 지역좌상기들은 도좌상기인 쌍용기에 기세배를 한다. 셋째 마당에서는 국태민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농신제를 올리며 넷째 마당에서는 농기구에 다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미에서 각종 농기구를 소각하며 액막이

노래를 부른다.

다섯째 마당에서는 농신제와 액막이 놀이가 끝나면 효자효부에게 상을 주고, 여섯째 마당에서는 불효자를 징벌한다. 일곱째 마당은 농사를 잘 지은 상머슴에게 푸짐한 상을 주며 격려한다. 주민들은 상을 받은 머슴들을 지게 가마에 태우고 동리마당을 돌며 축하와 위로를 해준다. 여덟째 마당은 이 지역 풍물가락을 앞세워 모두 함께 난장을 벌이게 된다. 



행사스케치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아주 멋진 소규모 지역 축제였다. 임성규 논산시장 역시 직접 사포 복장으로 나와 “멋지게 놀자”라는 한 마디로 개회사를 던졌다. 하마터면 사진도 찍지 못할 정도로 간단한 인사말이었다. 개회사와 축하사만 1시간씩 걸리는 다른 행사들과는 달라서 일단 기분 좋았다.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었다. 원래 행사는 훨씬 길었을 것으로 짐작

임성규 논산시장 “멋지게 놀자” 한마디로 개회사

되나 복원 당시 고증을 해줄 분이 많지 않아 45분 정도로 간단하게 복원이 되었다는 점이다. 또 남자 주민들의 참여가 너무 적고,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던 듯하다. 행사장은 구경나온 면민들이 자리를 잡고 앉기가 불편하게 돼 있고, 상인들이 자리 문제로 경찰과 실갱이도 벌어졌다.

그러나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한 것 자체가 멋이자 흥이고 정이다. 내 자신이 외국인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무심히 지나치던 일상을 새롭게 볼 수 있다. 연산백중놀이의 그런 소박한 모습들은 낯선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탈일상의 즐거움이고, 우리가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

놀이패가 쌍용기를 앞세우고 마을을 돌며 흥을 돋우고 있다(위) 기싸움을 마치고 지역좌상기들은 도좌상기에게 기세배를 올린다.



영상공모

지역주민 요청따라 10월 31일로 마감 연장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회가 실시하는 영상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네티즌들 사이에 많은 문의가 있었다. 그 가운데 상당수가 마감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는 8월말 운영위원회를 소집, 보다 많은 시민들이 지역문화에 관심을 갖고 응모할 수 있도록 마감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편집완성본이 아니더라도 응모 가능하도록 했다. 변경된 내용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Q 편집을 꼭 해야 하나요?

A 편집하지 않아도 응모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Q 마감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영상공모는 두 분야로 나뉩니다. 먼저 ‘영상세대 카메라출동’은 당초 8월 31일까지였으나 10월 31일까지로 두 달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주민 대상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종전과 같습니다.

Q 카메라출동은 예선과 본선이 있었는데, 두 번 촬영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A 많은 분들이 예선을 통과하지지도 않고 그런 걱정부터 하시더군요. 종전에는 예선을 통과한 작품에 본선 제작을 위한 제작지원금을 제공기로 했으나, 일정을 늦추고 대신 예선과 본선을 따로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에 따라 본선 제작 지원금도 없습니다. 두 번 촬영하기가 부담스러운 분께서는 훨씬 편해진 셈이죠.

Q 많이 접수됐습니까?

A 그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신 자신감을 가지시고 주변의 문화를 촬영하신 다음 빨리 응모하십시오. 비싸게 주고 산 캠코더를 활용도 하시고, 캠코더 값을 만회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Q 지방문화원과 문화학교의 행사 기록물이나 수강생 작품을 응모해도 됩니까?

응모부문 및 응모요령

영상세대 카메라출동

- 응모마감 : 2001년 10월 31일
- 응모자격 : 13세 이상 18세 미만(청소년부), 18세 이상 30세 미만(성년부)
- 응모방법 : 촬영지역에 대한 제한없이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10분 분량의 영상물을 촬영, 응모신청서와 함께 제출(편집 필요 없음)
- 심사발표 : 2001년 11월 15일

지역주민 대상 ‘작은 것이 아름답다’

- 응모마감 : 2001년 10월 31일
- 응모자격 : 제한 없음
- 응모방법 : 응모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문화를 소개하는 10분 분량의 영상물을 촬영, 응모신청서와 함께 제출(편집 필요 없음)
- 심사발표 : 2001년 11월 15일

응모신청서와 문의 및 제출처

- 구체적인 공모내용과 응모신청서는 ‘2001, 지역문화의 해’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십시오.
- 문의 및 제출처 : 우편번호 121-715 서울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2001, 지역문화의 해’ 사무국 공모담당자 앞
☎ 02-713-9914, culture2001@naver.com

공모부문별 시상내역

영상세대	청소년부	문화관광부장관상	1명	1,500,000원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상	2명	각 1,000,000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1명	1,000,000원
카메라출동	성년부	문화관광부 장관상	1명	2,000,000원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상	2명	각 1,500,000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1명	1,500,000원
지역주민 대상 ‘작은 것이 아름답다’		문화관광부 장관상	1명	2,500,000원
		‘2001, 지역문화의 해’ 추진위원장상	2명	각 1,500,000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1명	각 500,000원

잠두봉에 오르면 시가 절로 흥이 절로

중국사신 ‘단골’로 찾아 풍광 바라보며 詩酒·뱃놀이 즐겨

양화나루는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 양천·김포방면으로 나가는 큰 나루터로 수상교통의 요지였다. 마포·서강에서 흘러오는 물이 맑고 잔잔해 뱃놀이는 물론 고기잡이에도 제격인 곳이었다.

강변에 우뚝 솟은 잠두봉에 오르면 강물이 절벽 아래를 스치고 지나가는데 봉우리 위에는 노송의 푸른 가지가 드리워져 햇빛을 가리우니 삼복에도 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 또 강건너 맞은 편 나루터 옆으로는 옛날 신선이 놀던 곳이라는 선유봉이 바라다 보이니 강과 산이 잘 조화를 이룬 명승지였다.

옛날에는 북악에서 서쪽으로 뻗어나온 산맥이 이곳에 이르러 머리를 들었다고 하여 들머리, 즉 가을두(加乙頭)로 표기하기도 했다. 그 모양이 마치 누에가 머리를 든 것 같다하여 잠두봉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이고 이 ‘잠두’를 다시 ‘용두’로 바꾸어 용두봉이라 부르기도 한다. 한때 잠두봉 아래가 천주교인들을 다수 처형한 곳이라 해서 절두산이라는 이름이 생기기도 했다.

잠두봉은 지형과 풍경이 좋고 또 도성에서 가까웠기에

정부에서는 외국의 사절, 그

중에서도 중국 사

신들이 오면 으레

이곳으로 인도해

시주(詩酒)를

즐겼다. 그들

은 남쪽의 제

천정(濟川亭)과

함께 서쪽 양화나

루를 찾았다. 양화

나루에 나오면 어

김없이 잠두봉에

올라 그 풍광에 놀라곤 했다. 그 풍광을 시로서 주찬했는데 명나라 사신 예겸(倪兼)과 진감(陳鑑)이 읊조린 시도 잠두봉에서의 감회를 말해주고 있다.

한강의 옛 나루터/그 이름 양화(楊花)라 하는데/좋은 곳 찾아 정자 지으니/물가에 가깝구나//저 멀리 돛단배가/먼 포구 향해 떠나는데/문득 들으니 기러기 소리/모래판에서 일어난다//숲에 가린 북녘에서는/솔잎을 볼때고/자리에 들어온 봄 소반엔/여귀쌍이 새로 났구나//황성을 떠나오니/사천리 먼 길인데/신선의 배 여기 매일 줄/어찌 알았으리.

- 예겸(倪兼) -

양화도(楊花渡) 옛 나루터가/맑고도 그윽한데/불쑥 나온 기이한 봉우리/푸른 강물을 배개 삼았다//술이 취하니/세상을 다 잊을 법도 한데/빗소리 요란해도/나그네의 수심을 씻지 못한다//연기가 푸른 나무에 엉기니/넓은 들이 회미하고/바람은 흰 돛을 보내어/먼 물가로 들어간다//한번 이별한 후엔/이 좋은 모임 잊을건가/저 바다 동쪽 머리에/내 몸 항상 오가리라.

- 진감(陳鑑) -

또한 이곳 양화나루는 한성10영에도 꼽히던 곳이다. 성종의 형이요, 이곳 망원정(望遠亭)의 주인이던 월산대군의 ‘양화답설(楊花踏雪)’이라는 시 역시도 그 정경을 짐작케 한다.

북풍 성난 소리 밤새 메아리 치더니/아침에 내리는 눈 손바닥만큼이나 크네//넓고 넓은 막막한 천지 흠뻑은 없고/언덕과 골자기 평평하니 눈 깊어 몇 길인가//강마을 고기잡이의 두어채 초가집들/울타리안 수북수



북 은죽(銀竹)으로 가득하네//이곳에 오면 흥이 절로 나는구나/시 읊고 술 마시고 설 사이 없는 것이.

- 월산대군 -

한편 용산강에서 마포, 서강, 양화나루로 이어지는 일대는 강폭이 넓고 물결이 잔잔하기 때문에 외교 사절들과의 연회 뒤에는 으레 뱃놀이가 따르게 마련이었고, 일반 민간인들의 뱃놀이도 끊어지지 않았다. 달 밝은 가을밤에 몇몇 친구와 함께 작은 배를 강 가운데 띄어 놓고 술잔을 돌리며 청흥을 노래하고 시로써 서로 화답하는 것은 운치있는 일이었다.

연산군(1495~1506년) 때 문인으로 유명하던 파취헌(把翠軒) 박은(朴聞)이 그의 막연한 친구 용재 이행과 지정 남곤 등과 함께 자주 양화나루 강상에 배를 띄어 놓고 시주(詩酒)로 흥겹게 놀던 일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일이다.

풍채가 아름답고 미목이 청수한 젊은 시인 파취헌이 같은 또래의 젊은 시인 이용재·남지정과 함께 일엽편주를 저어 잠두봉과 신선봉 사이를 오락가락하며 시를 읊고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 풍광을 마음대로 즐기던 그 모습은 과연 신선놀음이었다. 어느 해 7월 기망(음력 열나흘날 밤, 또는 그날 밤의 달) 즉 가을달 밝은 7월 16일에 이들 세 사람은 중국 송나라 문장 소동파의 적벽강 청유를 본따 잠두봉 아래 배를

띄우고 운자를 내어 시를 지으며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즐겼다. 이때 그들은 이 풍류를 장시(長時)로 표현했다.

얼마 있으니 달이 떠오르는데/밝은 빛 털끝도 알아볼 수 있다//뱃전을 두드리며 강 위로 흘러가니/순풍 받은 돛대가 거칠 것 없다//잠두봉으로 올라가서/잔을 씻고 마을 술을 기울인다//주거니 받거니 질탕하게 마시니/마음 도리어 구슬퍼진다//흰 갈매기 날아서 지나가며/내 말을 들어보려 한다.

이들은 그 해 10월 보름을 기해서 다시 잠두봉 아래에서의 선유를 약속했다. 역시 소동파의 '후적벽부'를 본따 달 밝은 10월 보름날 밤 잠두봉 밑 양화나루 강상에서 술도 들고 시도 지어보자는 것이었다. 허나 이때에는 지정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 파취헌과 용재 두 시인만이 전번 놀던 그 곳에 배를 띄우고 세상일 즐겨보자면서 고담과 시음으로 하룻밤을 보냈다.

또 정부의 고관이나 명나라 사신들이 양화나루에 나오면 반드시 잠두봉에 올라 단애상 소나무 그늘 밑에서 술자리가 벌어지고 뒤이어서는 강위로 내려가 선유를 즐겼다. 그때마다 또 찾아가는 데가 있었으니 그것은 지금의 망원동에 있던 망원정(望遠亭)이었다.

망원정은 원래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의 별서(별장)로써 처음 이름은 '희우정(喜雨亭)'이었다. 정자에 오르면 동쪽으로는 무악 아래의 연희 평야가 펼쳐지고 서쪽으로는 한강의 넓은 강유를 끼고 잠두·선유의 기봉(奇峰)이 바로 앞에 보여서 풍경이 매우 아름다웠다. 세종 7년(1425년), 효령대군이 서호의 승지를 택해 이곳에 정자를 지었다. 그해 5월, 세종이 모화관 서변에 거동해 축국놀이 하는 것을 구경하고 홍제원·양철원을 지나 잠두봉쪽으로 향했다. 세종은 말을 타고 천천히 나가면서 보리가 무성하게 된 것을 보고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망원정으로 와서 정자 위에



잠두봉



올라 주안을 마련하고 즐기는데 때마침 농사에 좋은 비가 내리니 매우 기뻐하며 정자 이름을 '희우(喜雨)'로 하게 했다. 그후에 세종은 자주 형님(효령대군)의 별서인 희우정에 거동했고, 한강과 서교(西郊)에서의 군사훈련을 참관했다. 세종이 희우정에서 며칠을 지내고 있는 동안 세자인 문종과 안평대군도 이곳으로 왔다. 어느날 저녁 안평대군이 문신 성삼문·임원준 등과 함께 강변에 나가서 술을 들며 달을 구경하는데 세자가 특별히 동정굴 두 소반을 보냈다. 세자가 보낸 그 소반 가운데에는 오언시(五言詩) 한 편이 있었다.

매단(梅檀)은 내음새가 좋고/지고(脂膏)는 맛만 좋다/제일 좋은 것은 동정굴(洞庭窟)/향기도 좋고 맛도 좋다.

- 문종 -

이 시는 세자이던 문종의 자필시였다. 보내주는 동정굴을 은근히 찬양한 것은 궁중과 문신간의 허물없고 소박한 심정을 보여준 것이리라. 안평대군과 성임·서거정 등 여러 문신들이 세자의 동정굴시에 화답해 시를 지어 바쳤다. 안평대군은 이 사실을 기문(記文)으로 쓰고 화가 안견은 그림으로 그려 전했다. 그러나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왕실과 정부에 과란이 거듭되는 동안 이 정자도 퇴락되었다.

성종 15년(1484년)에는 형으로서 왕위를 양보한 월산대군이 이곳에 다시 정자를 중건하고 이름을 '망원'이라 하니 정자 위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멀고 넓음을 뜻한 것이다.

월산대군은 문장이 뛰어나고 시에 능해 그 명성이 내리에

널리 알려졌으며, 일찍부터 진세영화에 뜻을 두지 않고 음풍농월로 낙을 삼았다. 그가 살던 안국방 집의 정자 이름을 성종이 '풍월'로 지어 준 것도 이런 의미였다. 그는 또 아호를 '풍월정(風月亭)'이라 하였다. 형제간의 우애도 돈독하여 성종은 자주 풍월정에 거동해 술자리를 함께 했다. 이 망월정이 이루어진 후에도 자주 거동 수군훈련을 참관했고 월산대군은 물론이거니와 문신들과 함께 시를 지었기 때문에 많은 망월정시가 전해지기도 한다.

망원정 앞에 봄이 저무는데/그대와 함께 술병 들고 찾아온다//하늘 가 멀리 산이 다한데/빗발은 끝없이 내리고/강상의 제비들은 돌아가지만/사람은 아직 앉아 있다//사방으로 바라보는 풍광/흥이 절로 나는데/갈매기·해오라기 따라와서/세상일을 함께 잇는다//풍류생활로 마음 편한 것/내 평생 소원인 것이/인간세계로 가서 시비를 배우지 마소.

- 월산대군 -

망원정 주인 월산대군의 생활과 풍류를 짐작케 하는 시이다. 외국의 사신들도 양화나루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날이 저물어도 명승지 망원정에는 반드시 들렀다고 한다. 한번 정자 위에 오르면 촛불을 밝혀 놓고 밤늦게 까지 놀았다. 명나라 사신 동월이 망원정 놀이의 소감을 읊은 시에서도 망원정을 정취를 느낄 수 있다.

석양(夕陽)이 기울다 관계하리, 높은 다락으로 올라간다/좋은 풍광 마음대로 즐기며 웃음소리 그치지 않는다//언덕 위 푸른 버들잎 강(江)나무와 함께 그늘지고/물가의 가벼운 연기는 들 구름 따라 떠오른다//난간을 의지한들 꿈 어이 이를 것이/촛불을 켜 들고 밤 놀이가 더욱 좋구나//돌아오는 길에 불 밝으니 도성(都城)이 점점 가까이 보이는데/밝은 달이 다정하여 해동(海東) 하늘로 올라온다.

- 동월 -

〈자료제공: 마포문화원〉



4C 종업 군자의 나라에 “무궁화 꽃이

박 계 현 기자 fire@kccf.or.kr

대한민국의 국화(國花). 아욱과 낙엽활엽 관목으로 7~10월에 약 100일 동안 계속해 화려한 꽃을 피운다.

무궁화 꽃은 이른 새벽(5~6시경)에 해돋이와 함께 활짝 피었다가 오후(5~6시경)에 오므라들어 떨어져 버리고 매일 20~30송이 이상의 꽃이 새로이 꽃봉우리를 터뜨리는 독특한 꽃이다. 피고 지고, 지고 피는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된다. 이름 그대로 무궁화이다.

무궁화는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었으며 우리 겨레의 민족성을 나타내는 꽃으로 인식되면서 국화(國花)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인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라꽃이 무궁화인 것을 알고 있지만, 국화로 제정된 정확한 근거에 관한 서술은 없다. 다만 한국에서 무궁화에 관한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동진(東晉)의 문인 곽박(郭璞:276~324)이 쓴 지리서(地理書) '산해경(山海經)'에 “군자의 나라에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더라(君子之國有薰華草朝生暮死)”라는 기록이 있다.

또 중국의 고전인 '고금기(古今記)'에는 “군자의 나라에는 지방이 천리인데 무궁화가 많이 피었더라(君子之國地方千里 多木槿花)”라는 기록도 있다.

한국에서 자생지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문헌상에서 보면 4세기 중엽의 한국에는 가는 곳마다 무궁화가 만발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무궁화는 꽃이 아름답고 추위에 잘

●
무궁화 꽃은 새벽 5~6시경에
해돋이와 함께 활짝 피었다가
오후 5~6시경에 오므라들어
떨어져 버리고
●
매일 20~30송이 이상의 꽃이
새로이 꽃봉우리를 터뜨리는
독특한 꽃이다

견디며 꽃피는 시기가 매우 길어서
정원수·생울타리·가로수 등으로 많
이 심는다. 또 공해에 강하고 토양 선
택이 까다롭지 않아 어디서나 잘 자란
다. 씨나 꺾꽂이, 포기나누기로도 쉽
게 번식이 가능하다.

쓰임새도 다양해 수피에서 섬유를
얻어 제지원료로 쓴다. 한방에서는 4
~6월에 수피 또는 근피를 벗겨 햇빛
에 말린 근피(槿皮)를 해열·해독·소
종(消腫)에 사용했다. 기관지염·인두
염·장염·이질·탈항(脫肛)·치질·
대하(帶下)·옴 등에도 약효가 뛰어나
다. 동의보감에는 사혈(瀉血)을 멎
게 하고, 설사 후의 갈증이 심할 때 달
여 마신다고 했다. 어린 잎을 나물로
하고 차로 대용하기도 한다.

무궁화는 꽃 색깔에 따라 배달계·
단심계(백, 홍, 청)·아사달계로 나뉜
다. 여러 품종의 무궁화 중에서 대표
종은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백색 단심 무궁화. 꽃이 백색이어서
무구청정(無垢淸淨)을 나타내고 진
홍빛 화심(花心)은 겨레의 얼을 상징
한다. **문**

피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꿈과 사랑에 대한 쓸쓸한 보고서

박 계 현 기자 fire@kccf.or.kr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10월 13일 개봉예정, 제작 명필름)는 쓸쓸한 삶을 바라보는 임순례 감독의 따뜻한 시선을 통해 '그래도 삶은 살아볼 만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품이다. 임감독이 <세 친구>(1996년) 이후 5년만에 발표한 이번 작품은 삶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끝없이 밀려나는 아웃사이더들에 대한 연민을 가득 담았다. 어린 시절의 꿈과 사랑을 잃고 그럭저럭 살아가고 있는 밤무대 삼류 밴드의 삶을 통해 이 시대 우리 삶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기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쓸쓸함에도 불구하고 그 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경쾌하다.

복고풍이 물씬 풍기는 80년대 히트 가요들이 그 시절 정서와 인물 성격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등장하는데 송골매의 '세상만사', 옥순80의 '불놀이야', 함중아의 '내게도 사랑이' 등 향수를 자극하는 7~80년대의 명곡뿐만 아니라 조안제트앤블랙하트의 '아이러브 락앤롤' 산타나의 '유로파', 김수희의 '남행열차',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코요태의 '순정' 등 시대와 장르를 총망라한 20여곡의 라이브 음악이 전편에 걸쳐 흘러나와 영화는 흥겹기만 하다. 또 '너훈아', '너윤아', '이영자' 등 실제로 밤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창가수들이 '밤무대 가

수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영화'라는 이유로 기꺼이 출연해 관객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특히나 낙원동에서 수안보 관광호텔까지 실제 밤무대 밴드들을 만나 인터뷰한 결과를 토대로 제작돼 주인공들의 드라마틱한 일상과 어린 시절의 꿈과 첫사랑이 주는 그윽한 향수가 <와이키키 브라더스>의 영화적 재미를 보장한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와이키키 호텔'로 가다... 나이트클럽에서 연주하는 남성 4인조 밴드 '와이키키 브라더스'. 그들은 불경기로 인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출장 밴드를 전전한다. 팀의 리더 성우(이일 분)는 고교 졸업 후 한번도 찾지 않았던 고향, 수안보의 와이키키 호텔에 일 자리를 얻어 팀원들과 귀향한다. 수안보로 가던 중 섹스폰 주자 현구(오강록 분)는 밤무대 밴드 생활에 희망을 버리고 아내와 자식이 있는 부산으로 내려간다.

고교시절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지금... 수안보에 도착한 성우는 고교시절 밴드를 하며 꿈을 나눴던 친구들과 재회한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순수했던 친구들은 어느새 생활에 찌든 생활인으로 변해있다. 약국을 하고 있는 민수(한기중 분)는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고, 시청 건축과에 근무하는 수철(신현중 분)은 환경운동가가 되어있는 인기(이상직 분)와 시위가 있을 때마다 마찰을 겪



어 불편한 관계에 놓여있다. 성우에게 음악의 지표였던 음악학원 원장(우병주 분)은 알콜 중독에 빠져 출장밴드를 하는 폐인의 모습으로 변해있다. 그리고 성우의 첫사랑이었던 인희는(오지혜 분) 남편과 사별후 트럭 야채 장사를 하며 억척스럽게 살고 있다. 성우는 어린 시절의 꿈과 사랑을 되새기며 이들의 변화에 서글픔을 느낀다.

현재의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수안보에서... 여자를 좋아하는 올겐주자 정석(박원상 분)은 여전히 여자를 꼬시며 문제를 일으킨다. 강직한 드러머 강수(황정민 분)는 목욕탕의 때밀이 아가씨에게 연정을 느끼지만 정석만큼의 재주가 없어 데이트 한번 변변히 못해본다. 그와중에 정석이 때밀이 아가씨에게 접근한 사실을 알게 된 강수는 정석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껴 큰 싸움을 벌이고, 급기야 대마초에 손을 대게 된다. 결국 강수는 밴드를 떠나고 밴드가 해체 위기에 놓이자 성우는 급하게 음악학원 원장을 팀에 합류시킨다. 그러나 여자 문제로 계속 골치를 앓는 정석과 알콜 중독이 심각한 원장과 팀을 이끌어가는 것은 성우에게

버겁기만 하다.

막다른 길, 그러나 되돌아갈 수 있다... 고단한 현실에서 어린 시절의 꿈을 맞닥뜨린 성우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 밤무대 밴드 생활을 계속할 것인가? 현구나 강수처럼, 또는 민수, 수철, 인기처럼 음악을 접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것인가?

하와이와 수안보의 '와이키키', 꿈과 현실의 간극이 주는 서글픔 또는 희망... 실제 '와이키키'라는 곳은 화려하다. 화려하다 못해 비현실적이기까지한 그 공간을 제목에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는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그러나 결코, 화려하지 않다. 밤무대 삼류 밴드 '와이키키 브라더스'도, 그들의 주무대인 수안보의 '와이키키 호텔'도 와이키키가 주는 환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와이키키'라는 공간은 어린 시절 가졌던 장미빛 꿈과 어련이 되었을 때 맞닥뜨린 현실이, 하와이와 수안보의 차이만큼이나 멀어져 가고 있음을 효과적으로 대변한다.

<와이키키 브라더스>는 어린 시절 가졌던 꿈이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아닌 고단한 현실이 되어있음을 발견하고,

꿈과 사랑을 나눴던 친구들과 더 이상 그 순수했던 시절을 공유할 수 없음을 목격할 때 밀려드는 쓸쓸함을 그리고 있는 영화다.

비틀즈를 꿈꾸던 고교시절의 밴드가 지방 나이트클럽 밤무대 밴드로 공상맛게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그렇듯 고단함 속에서도 희망은 언제나 힘이 되어줄 정도의 크기로 시작된다. 꿈과 사랑을 잃고 근근히 살아가는, 그래서 매 순간 막다른 길에 다다른 듯 보이는 이들은 그 안에서 출구를 다시 찾아냄으로써 '희망'의 끈을 잡는다. 그러니 삶이란 것이 살아볼 만한 것일 수 밖에.

작품이 가진 '진정성' 때문에 <와이키키브라더스>는 이미 전주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올린 바 있고, 밴쿠버, 상파울로, 하와이 영화제에 선보였다. 또한 런던 국제영화제(11월 7~22일), 인도 캘커타 국제영화제(11월 10~17일), 도쿄 필름 엑스 영화제(11월 18~25일) 등 국제 우수 영화제에서 잇단 러브콜을 받고 있다. 밤무대 밴드의 삶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와이키키브라더스>의 잔잔한 감동이 10월의 하늘에 더욱 청명하게 울려 퍼지길 기대한다. **문**



사진제공: 명필름
www.myungfilm.com,
www.waikikibrothers.com

담배 끊지 못하는 사람 해조류라도 많이 먹어야 건강

취 짙은 술의 해독과 피로회복의 효과가 뛰어나다. 위장병·신경통·근육통·감기몸살·간장질환에도 그 효험이 크다. 또한 열이 많은 사람이나 평소 소화가 잘 안되고 속이 쓰린 증세가 있는 사람에게 매우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원활한 혈액순환을 도와 술 마시고 난 뒤의 갈급증, 술독해소에 특효다. 뿌리는 주로 생즙용으로 이용되나 뿌리를 말려 달여 먹으면 숙취와 식중독에 좋다.

- 갈근탕 취뿌리를 적당히 썰어 햇볕에 말린 갈근(한방명) 20g을 넣고 달인 후 꿀이나 흑설탕을 조금 타 마신다. 감기몸살·견비통·심장병 등에도 응용한다.

- 침차 취뿌리를 말려 가루를 내어 작은 한술에 물 1컵 정도의 비율로 타서 먹는다. 꿀이나 흑설탕을 타서 먹거나, 생강즙 등을 즙내어 마시면 술독해소·구토증에 좋은 효과를 본다.

- 취즙 취 400g에 물 2컵 정도를 붓고 갈아 즙을 내어 마신다. 하루에 1~2회, 80~200cc씩 마시면 숙취해소에 그만이다.

감잎 감잎에는 비타민C가 사과 500배나 들어 있다. 비타민C는 성인병을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스테미너 증진에도 영향을 준다. 감잎으로 차를 끓여 마시면 체질 강화는 물론 위장보강, 과음 후 숙취에 좋다. 또한 감잎은 이뇨·해열·지혈작용이 뛰어나 치질로 피가 날 때 달여서 차로 마시면 출혈이 멎는 효과를 본다.

- 감잎차 싱싱하고 어린 감잎을 찢통에 2~3분 쪄 다음 잘게 썰어 햇볕에 바짝 말려두었다가 차로 우려 마신다.

다시마 다시마는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한 17가지의 아미노산을 포함하고 있는 질 높은 단백질의 공급원이다. 섬유질 또한 많아 숙변이나 체내에 쌓인 공해물질의 배출, 변비해소

에 효과적이다. 그 외에도 각종 성인병예방 치료에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이다. 또 술병이 난 사람이 생다시마를 씹어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고 니코틴까지 해독시켜준다.

- 다시마차 숙취예방과 해독에는 다시마 가루를 복용하면 좋다. 다시마와 감초를 프라이팬에 구워 가루를 낸 뒤 물에 타서 마시면 된다. 특히 쓰린 속을 달래는 데 좋다.

술잎 술잎에 함유된 테레핀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내리고 말초신경을 확장시키며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 술잎 속에는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 독을 제거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다. 소화장애·신경쇠약·불면증·감기치료·변비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좋다. 특히 과음으로 인해 속이 쓰릴 때 술잎을 그냥 씹기만 해도 증세가 가라앉을 정도로 효과가 좋다.

- 술잎차 술잎을 연한 소금물에 씻어 그늘에서 2주 정도 말린 다음 종이봉지나 양파망에 넣어 매달아 두었다가 생수에 넣고 달여 물만 따라마시면 된다. 만성위염이 있는 사람은 그늘에서 말린 술잎 10g을 300cc의 물에 넣고 물의 양이 반으로 줄어들때까지 달였다가 하루에 세 번, 식전 공복시에 복용하면 좋다. 숙취로 고생이 심할 때에는 술잎차를 진하게 달여 마신다.

검정콩 검정콩은 독을 풀어주고 신장기능을 도와 소변을 시원하게 하고 부기를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다. 특히 술과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좋은 식품이다.

- 감두탕 숙취를 풀기 위해서는 검정콩과 감초를 함께 달여 시간이 날 때마다 물을 마시듯 하면 확실한 효과를 본다. 니코틴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 등 모든 약물중독과 다른 여러 가지 중독을 풀어주는 해독제 역할을 한다.



오이 오이는 알칼리성 미네랄 식품이다. 피를 맑게 하고 몸 안에 축적된 불순물을 몸밖으로 배출시켜주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숙취해소에 그만이다. 또 소변이 시원치 않고 몸이 잘 부을 때 오이 한 개를 식초에 푹 삶은 다음 국물을 꼭 짜내서 하루에 3번씩 마시면 증상이 많이 나아진다.

감자 감자는 뇌의 작용을 정상적으로 지켜주는 비타민B₁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아주 유용한 식품이다. 특히 감자 속의 아트로핀 성분은 경련을 가라앉히고, 칼륨·황·인·염소 등의 미네랄은 피부나 신체에 불순한 것을 없애 정화시킨다. 또한 감자에는 점막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들어 있어 위염·위궤양·십이지장궤양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좋다. 평상시에 불규칙적인 식사와 과다한 스트레스로 위장장애가 염려되는 사람들은 아침·저녁으로 하루 1개 이상의 감자를 된장국·샐러드 등에 넣어 섭취하면 위장질환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감자를 생으로 즙을 내어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시면 숙취로 인한 속쓰림에 효과가 좋다.

파래 파래 속에는 담배의 해독을 풀어주는 메틸메티오닌과 비타민A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담배를 피우면 유독성분인 니코틴이 몸 안에 들어가서 입맛을 잃게 하고 동맥경화를 촉진시키며 혈압을 상승시키는데 파래에 든 메틸메티오닌

성분은 니코틴의 해독을 푸는데 아주 뛰어난 효과가 있다. 또한 파래는 담배 때문에 손상된 폐점막을 재생시키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폐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단감 감에 많이 들어 있는 과당은 혈액속의 알코올을 분해시켜 주독의 해독을 빠르게 해준다. 또한 술 때문에 영양분이 떨어진 체액에 에너지를 보충해 준다. 술이 덜 깰 때 단감 2~3개를 먹으면 술이 깬다. 달게 잘 익은 것일수록 효과가 크다. 이것은 감에 들어있는 타닌 성분이 술에 의한 교감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단감이 없을 때는 귤감도 좋다.

무 무는 숙취로 인해 약해진 간장이나 위장의 작용을 높여주고 입맛을 돋워준다. 무로 생즙을 내서 먹으면 더욱 효과가 있다. 또 무즙에 생강즙을 섞고 진간장으로 간을 해서 먹으면 위가 안정되어 통증을 가볍게 해준다.

죽순 죽순 속에 많이 들어 있는 티로신 성분은 몸을 움직이는 데 필요한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활동량이 많고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에게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는 식품이다. 다른 재료와 함께 조리해 먹을 때에는 죽순의 영양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다른 재료보다 죽순을 많이 넣어야 한다. **■** (편집부)

日 역사 교과서 어떻게 기술하고 있나? ① 후소사

‘신라·백제가 일본에 조공’ ‘한국강제병합’ ‘군대위안부’ 등 왜곡·은폐 일삼아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는 한국관련 내용을 단순히 왜곡하는 것을 넘어 사실자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를 일삼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학자들이 50여년 간에 걸쳐 연구한 결과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임나일본부설’을 들고 나오는가 하면 조선을 ‘중국의 부속국’으로 기술함으로써 일본의 우위를 내세우려 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논리적인 근거없이 ‘무가(武家)사회인 일본이 문관(文官)사회인 조선보다 우월하다’는 선입견을 주입하고 있다. 또 일본서기만을 근거로 ‘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을 바쳤다’고 기술함으로써 6세기 이후 삼국이 일본보다 앞섰다는 한일학계의 통설을 부인하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강제병합’ ‘군대위안부’ 사실을 은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의 한페이지인 한국전쟁에 대해서도 한국군의 실체를 무시하고 38도선을 ‘종래의 국경선’이라고 왜곡했다. 이런 사실은 후소사(扶桑社) 교과서에 대해서만도 25개 항목에 이른다. 월간 우리문화는 ‘후소사 교과서’와 ‘기존 7종 교과서’로 나뉜 일본의 역사왜곡사실과 한국정부의 수정요구내용을 게재한다. 다음은 후소사 교과서 관련내용(편집자 주)

日 역사 교과서내용 → 수정요구의견

(1) 임나일본부설

- 바다를 건너 조선으로 出兵…… 임나라는 곳에 거점을 둔 것 → ‘임나일본부설’은 한국과 일본의 50여년간의 연구결과,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설
- 야마토 군세는 백제와 신라를 도와 고구려와……싸웠다. → 명백한 오류 - 신라의 지원 요청으로 고구려군이 왜군을 격퇴(광개토왕비문)
- 고구려는…… 백제와 임나를 地盤으로 한 일본군의 저항으로 인해 → 상설적인 주둔을 전제로 한 내용으로 명백한 오류
- 임나로부터 철퇴하고, 반도정착을 실패한 야마토 조정 → 점령국인 일본이 피점령지인 임나에서 철수한 것을 전제로 기술 → 주둔, 철퇴의 기록이 없으므로 오류이며 삭제 필요

(2) 4세기 후반 삼국관계

- 고구려는 반도 남부의 신라 및 백제의 압박 → 역사적 사실 오류 - 4세기 후반은 고구려가 신라를 지원하는 관계

(3) 6세기 삼국 및 국제관계

- 고구려가 쇠퇴하기 시작하고 지원국인 北魏도 凋落 → 근거없는 주장 - 당시 고구려는 北魏와 직접 대결하기도 함
- 신라와 고구려가 연합하여 백제를 위협 → 명백한 오류 -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고구려의 남하에 공동대응

(4) 삼국의 조공설

- 고구려가 돌연 야마토 조정에 접근……신라와 백제가 일본에 조공 → ‘일본서기’만을 근거로 한 기술(한국과 중국의 史書에는 없는 내용), 6세기 이후 삼국이 일본보다 정치·문화적 우위에 있었다는 것이 한·일학계의 통설

(5) 왜구

- 일본인외에 조선인도 많이 포함……대부분은 중국인 → 왜구의 발생원인에 대한 설명 누락, ‘왜구=일본인’이

라는 기존의 역사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왜구에 조선인과 중국인을 포함해 기술

(6) 조선국호

·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씨 조선을 건국 → '조선'이라는 국호 대신 일제 강점기에 사용되었던 부적절한 용어인 '이씨조선' 사용

(7) 임진왜란

· 제목에 '조선 출병' → 침략을 '출병'으로 기술하여 일방적 침략사실 은폐

· 히데요시는 명을 정복……인도까지 지배하려는 거대한 꿈을 빠져들어 대군을 조선에 보내었다 → 임진왜란의 원인을 명나라 정복, 히데요시의 개인적 망상만으로 기술

· 출병 결과 조선의 국토와 사람들의 생활은 현저히 황폐해졌다 → 전쟁기간 중 일본군에 의해 자행적 인적·물적 피해 상 축소

(8) 조선통신사

· 막부는 …… 조선과의 국교를 …… 회복 → 이에야스의 국교회복 노력에 대한 설명없이 사실만을 기술

· 장군이 바뀔 때마다 사절이 에도를 방문 → 통신사의 파견 목적, 초빙이유 등을 설명하지 않고, 일본장군 습직(襲職)사절단으로만 기술

· 부산에 '중씨의 왜관'이 설치되어 → 조선에서 부산 왜관을 설치해준 사실을 은폐하고, 일본이 외국땅에 마련한 행정기관인 듯이 기술

(9) 조선의 서구 열강에 대한 인식과 국제적 지위

· 구미열강의 무력위협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 구미의 무력위협에 대한 조선의 대응을 일본의 방식과 비교하여 폄하

· 중국의 복속국이었던 조선도 마찬가지로 → 조선의 중국의 '복속국'으로 표현한 것은 삭제 필요

(10)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조선

· 조선과 베트남은 완전히 그 내부에 들어가 중국 역대 왕조에 복속 → 전근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왜곡한 기술(당시 책봉과 조공은 의례적 외교형태에 불과한 것으로, 중국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한 일은 거의 없었음)

· 일본은 중화질서 바깥에서 자유롭게 행동 → 조선과 대비하여 일본은 '자주독립국'이었던 것처럼 기술하고 있으나, 17세기까지 일본이 중화질서 안에 존재한 사실은 미기술

(11) 일본=무가사회, 조선=문관사회론

· 중국·조선 양국은 문관이 지배하는 국가였으므로 열강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도 있다 → 논리적인 근거없이 무가사회인 일본이 문관사회인 조선보다 우월하다는 선입견을 주입하는 표현 -일본의 대외팽창·침략 호도

(12) 정한론

· 1873년, 개국 권유를 거절한 조선의 태도가 무례하다고 하여 …… 정한론이 터져나왔다 → 조선의 조약체결 거부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일본입장에서 편파적으로 기술 -일본이 기존의 교린체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려 했기 때문임을 설명하지 않음

· (사이고는) 자신이 조선에 가서 살해당하면 그것을 명목으로 일본이 출병 → 조선이 사이고를 살해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처럼 가정

(13) 강화도 사건

· 일본군함이 조선의 강화도에서 측량하는 등 시위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조선의 군대와 교전한 사건 → 조선의 발포를 유도한 계획적인 군사작전이었다는 사실 등 도발의 주체, 목적, 경위 은폐

(14) 한반도 위협설

· 일본을 향하여 대륙에서 한개의 팔뚝이 돌출
· 조선반도가 일본에 적대적인 국가의 지배하에 들어가면 일본을 공격하는 절호의 기지가 되어 → 한반도 위협설을 강조하여 일본 방위 명목으로 한국 침략·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 - 청·일전쟁 및 러·일전쟁을 자위전쟁으로 합리화

(15) 일본정부의 조선중립화안

· 일본 정부 가운데는 …… 조선을 중립국으로 하는 조약을 각국에 체결하도록 하고, 중립보장을 위해 일본의 준비를 증강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 → 일본 정부 일각에서 잠깐 거론 됐던 것을 일본의 조선강압정책을 희석하기 위한 의도로 기술 → 일본의 군비증강이 조선강점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을 은폐하고, 조선 중립을 위한 것으로 왜곡

(16) 조선의 근대화와 일본과의 관계

· 조선의 개국후, 그 근대화를 돕기 위해 군제개혁을 지원했다. 조선이 외국의 지배에 굴하지 않는 자위력있는 근대 국가가 되는 것은 일본의 안전에 있어서도 중요했다 → 조선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부식하려 했던 목적을 숨기고, 군

사원조로 조선의 독립에 기여한 것처럼 서술함으로써 사실을 호도

(17) 조선을 둘러싼 청·일의 대립

· 청은 최후의 유력한 조공국인 조선만을 잃지 않으려고, 일본을 가상적국으로 하게 되었다 →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대립을 일면적으로 설명하고, 일본이 청을 가상적국으로 삼은 사실을 왜곡

· 1884년 …… 김옥균 등의 쿠데타가 일어났으나 …… 청의 군대는 친일파를 철저히 탄압 → 김옥균 등의 개화파를 친일파로 기술

(18) 동학농민운동과 청일전쟁

· 동학의 난(갑오농민전쟁)이라고 불리우는 농민폭동 …… 동학당은 서양의 기독교(서학)에 반대하는 종교를 믿는 집단 → 반봉건·반외세 운동을 ‘동학의 난’이나 ‘폭동’이라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며, 농민운동을 종교집단운동으로 한정하는 것은 오해의 여지가 있음

· (동학농민군의 기세가) 수도 한성에 육박 → 한성에 육박한 것’이 아니라 전주성을 점령했을 뿐

· 일본도 갑신사변 후 청과의 합의에 따라 군대를 파견하였으며, 일청양군이 충돌하여 일청전쟁이 시작 → 일본이 청일전쟁 유발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파병한 사실을 은폐하고, 청 병파병에 대한 단순 대응조치인 것처럼 서술

(19) 러일전쟁

· 러시아는 …… 조선 북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 별 목적을 군사기지로 잘못 해석

· 러시아의 …… 극동에 있어서의 군사력은 일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강되는 것은 명확 …… (일본)정부는 더 늦기전에 러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할 결의를 굳혔다 → 일본이 먼저 시작한 전쟁을 러시아의 무력이 한반도를 장악하여 일본의 안전이 위협받음으로써 발발된 것으로 기술

· 일본은 한국(조선)의 지배권을 러시아에 인정받았고 …… 유색인종국 일본이 당시 세계 최대의 육군대국이었던 백인 제국 러시아에 승리한 것은 세계속의 억압된 민족에게 독립의 한없는 희망을 주었다 → 만주와 한반도 지배권 확보라는 전쟁의 목적을 은폐하고, ‘인종간의 전쟁’으로 미화 → 한국의 지배권을 인정받으면서 억압받는 민족에게는 독립의 희망을 주었다는 식으로 모순되게 기술

(20) 한국강제병합

· 일본 정부는 한국병합이 일본의 안정과 만주의 권익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영국, 미국, 러시아 3국은 ……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한국병합 과정에서의 침략 행위와 강제성을 은폐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기술

· 한국 국내에서는, 일부에서 병합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 의병투쟁과 안중근 의거 등 한국내 저항과 반발을 축소하면서, 극소수 친일파의 목소리를 고의로 부각 기술

(21) 식민지 조선개발론

· 일본은 식민지화한 조선에 철도·관개시설을 정비하는 등의 개발을 하고 → 식민지 근대화론, 식민지 시혜론의 관점에서 ‘개발’이 마치 조선 주민을 위한 것처럼 왜곡·수탈과 지배 목적 은폐

(22) 관동대지진과 조선인

· 조선인 및 사회주의자 사이에 불온한 책동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주민의 자경단 등이 사회주의자 및 조선인·중국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 관현(군경)에 의한 살해사실 은폐 - 살해 대상도 조선인이 대부분(약 7,00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자, 조선인, 중국인’ 식으로 병렬,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조선인 피해 축소 기술

(23) 강제동원과 황민화 정책

· 징용이나 징병 등은 식민지에서도 시행되어 …… 조선에서는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는 황민화 정책이 강화 → 황민화정책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조선에서의 수탈상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조선인을 일본국민의 일부로 간주하여 일본 식민정책의 본질을 은폐

(24) 군대위안부

[관련 내용 누락]

→ 일본군에 의해 자행된 가혹 행위의 상징인 군대위안부 문제를 고의로 누락시켜 잔혹행위의 실체를 은폐 → 최근 유엔 인권위에 보고된 바 있는 Coomaraswamy의 ‘전시 군 성노예 문제에 관한 특별보고서’ 및 McDougall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 노예적 취급관행에 관한 특별보고서’에서도 군대위안부를 반인륜적 전쟁범죄 행위로 규탄 → 일본 정부도 93.8 군대위안부 관련 ‘관방장관 담화’에서 일본군이 위안소 설치 및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음과 모집, 이

송, 관리가 감언, 강압 등에 의해 총체적으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졌음을 인정

(25) 한국전쟁

· 맥아더가 지휘하는 미국군 주체의 국련군은 반격 중
국군이 북조선측에 참가 → 유엔군과 중국 · 북한군의 전쟁으로
묘사함으로써 한국군의 실체를 무시
· 종래의 국경선인 북위 38도선 부근에서 전황은 정체 →

38선을 국경선으로 기술하여 오래전부터 38도선을 경계로
분단되어 있었던 것처럼 묘사 **문**

〈이 내용은 정부의 일본역사교과서와외국 대책반이 발간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한국관련 내용 수정요구자료’에서 발췌
한 것입니다〉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나는 헌신적

인가?

성찰하는 사람은 정직하다. 정직한 사람은 성실하다. 성실한 사람은 후덕하다. 후덕한 사람은 신중하다. 그리고 신중한 사람은 검소하다. 검소한 사람은 헌신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인간성을 나누어 생각해 보면 지도자의 인간형이 어떠한지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개인(個人)이면서 동시에 공인(公人)이다. 무슨 관직에만 있어야 공인(公人)인 것은 아니다. 누구나 제 집

을 나오면 그 순간 공인으로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생활문화가 제 자리를 잡고 모든 사람을 이웃으로 엮을 수 있는 힘을 발휘한다.

진정한 생활문화는 주민을 모두 헌신적인 참여자로 이끌어내는 힘을 발휘한다. 남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시간을 내 기꺼이 협동하는 마음가짐이 곧 헌신(獻身)이다. 헌신하는 마음은 무엇보다 문화인의 기본정신인 배려의식(配慮意識)을 바탕으로 성숙된다. 그러므로 문화인은 모름지기 헌신하는 주인이다.

헌신하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으로 봉사(奉事)할 줄 안다. 봉사(奉事)는 일을 받들어 돕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일이란 사적인 일이 아니라 공적인 일이다. 공적인 일을 우리 일이라고 한다. 우리 모두 할 일을 내가 나서서 하면 그것이 바로 봉사이다. 그러므로 봉사는 헌신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드러나게 한다. 헌신하는 마음이 봉사는 행동으로 드러난다. 말만 있고 행동이 뒤따르지 않으면 허세요 위선일

뿐이다.

남의 일을 내 일로 여기는 마음을 길러야 공인(公人)으로서 사회인이 되는 법이다. 이를 위해 맹자는 수신(守身)하라 했다. 선하고 후덕한 자신이 되도록 하라는 명령이 곧 수신(守身)이다. 사적(私的)인 나로 머물지 말고 공적인 나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곧 공자의 수신(修身)이요 맹자의 수신(守身)이다. 닦을 수(修) 몸 신(身)의 수신(修身)이나 지킬 수(守) 몸 신(身)의 수신(守身)이나 다 같은 말씀이다. 자신을 닦고 지켜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인 까닭이다.

공맹(孔孟)보다 노자와 장자는 더욱 치열하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한다. 노자는 무신(無身)하라 했고 장자는 무기(無己)하라 했다. 아예 사(私)를 없애라는 것이 노자의 무신(無身)이요 장자의 무기(無己)이다. 없을 무(無) 나 신(身)의 무신(無身)과 없을 무(無) 나 기(己)의 무기(無己)는 다 사(私)를 버리고 공평(公平)하게 헌신하라는 말씀이다. 이러한 헌신을 한 마디로 크다(大)고 한다. 그래서 대인을 일러 천지처럼 헌신하는 주인이라고 했다. 〈전국문화원연합회 발간 ‘생활문화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중에서〉**문**
(편집부)



【문화관광부】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 17~19일 영주 '선비촌' 서

문화관광부는 우리의 전통민속문화를 발굴하고 보존·계승키위해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8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를 개최한다. 10월16일에 열리는 '제8회 전국청소년 민속예술제'는 경북 영주시 순흥면 선비촌에서 16개 시·도

청소년 대표 7백여명이 참가해 농악, 민속놀이 등 전통민속예술을 경연한다. 이어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42회 한국민속예술축제'는 이북 4개도를 포함한 20개 시·도와 5개 단체가 출연해 농악, 민속놀이, 민속무용, 민요, 민속

극 등을 펼친다. 이 행사는 한마당 민속축제로 전통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자긍심과 이해의 폭을 넓혀 전통예술의 발전과 정체성확립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 특 별시

【전국문화원연합회】

세계화 시대 대비 전직원 중국어 학습 열기 '후끈'

전국문화원연합회에 중국어 바람이 불었다. 전국문화원연합회는 세계화시대를 맞아 국제감과 문화적 소양을 쌓기 위해 지난 9월 11일부터 중국어 강좌를 열고 있다. 이수홍 회장을 비롯한 전직원들은 매주 화·목 5시부터 1시간30분 동안 교육양(중국인)강사를 초청해 중국어를 배우고 있다. 이번 중국어 강좌는 21세기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역사적으로 볼때 우리문화와 중국문화가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화관광부】

다채로운 추석맞이행사 열려

문화관광부는 올해 추석을 맞이해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모든 국민이 한데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구현하고자 문화기관별·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추석맞이 문화행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추석 맞이 3대 캠페인으로 '추석연휴 한복입기, 가족·친지·이웃과 함께 건전한 '추석' 보

내기, 민족 고유의 세시풍속 놀이하기를 추진하면서 '추석'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휴기간동안 고궁 등을 무휴개방, 궁·능원 및 야외마당에 '전통민속놀이마당'을 개설했다. 한편 이번 추석기간동안 대구북구문화원·대구서구문화원·광주동구문화원·광주서구문화원·울산중구문화원 등은 추석맞이 국악대향연을 비롯 음악회, 농악대놀이 및 떡메치기, 민속놀이 발표 및 경연 등을 개최했다.

【서울시지회】

11일 압구정 한강문화축제

서울시지회는 10월 11일 서울의 대표적 자연문화유산인 한강 일원에서 전통범선을 띄우고 한강을 건너는 압구정 한강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2001년은
지역문화의 해

【성동문화원】

13일 제4회 전국 왕십리 가요제 개최

성동문화원은 10월 13일 성동구 독서체육공원에서 '제4회 전국왕십리 가요제'를 주최한다. 이 가요제는 (주)문화제국과 경인방송이 주관하고 성동구·(사)한국연예인협회 가수분과위원회, (사)한국산업음반협회가 후원한다. 전국의 순수

아마추어 가수들이 노래실력을 뽐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예선 참가자 전원에게 왕십리가요제 순금기념카드를 증정하는 등 수상자들에게는 푸짐한 상금과 가수회원증·상패가 주어진다. 대상은 상금 3백만원과 가수회원증·상패.

【정동극장】

‘청소년 1일 문화체험’ 접수중

정동극장은 청소년들에게 역사가 깃든 문화체험을 제공하고 우리문화에 대한 폭넓은 인식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청소년 1일 문화체험 프로그램인 ‘문화특활’을 실시하고 있다. 이 행사 참가자들은 전통예술공연·아동극·청소년극·청소년을 위한 성악 등 정동극장공연을 비롯해, 덕수궁미술관·덕수궁 궁중 유물전시관·농업박물관 등 주변문화 시설을 관람케 된다. 다음은 문화특활 참가 안내.

△일 시 : 연중(참가희망학교 문의를 받아 일정 및 시간 조정)

△참 가 비 : 1인당 6,000원

△프 로 그 램 : 정동극장 공연관람(프로그램 4가지중 택1)/문화시설관람(코스선택)

△신청 및 문의 : 정동극장 공연기획팀 전화:02)773-8960, 팩스:02)773-8964



【종로구】

제1회 종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 개최

종로구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계승·발전시키고 국악 신인을 발굴기 위해 지난 9월 14~15일 이틀간 종로구민회관 대강당 등 4곳에서 '제1회 종로 전국청소년국악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종로문화원과 국악로문화보존회가 주관한 이 행사는 전통음악을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국악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국악 신인등 용문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사)고구려연구회】

12~14일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열어

(사)고구려연구회는 10월 12~14일 '고구려 유적 발굴과 유물'이란 주제로 '제7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의 = www.koguryo.org

△전화 = (02)337-1661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2001년 가을강좌

민예총 문예아카데미는 인문학과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학

습의 시간을 갖고자 지난 9월 17일 가을강좌를 개설했다.



【부산·대구광역지지회】

부산·대구 광역지지회 개소

부산광역시지회와 대구광역시지회가 문을 열었다.

부산광역시지회는 지난 9월 6일 동래문화원

내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이 행사에는 이수홍 전국문화원연합회장을 비롯한 부산관내 문화원장들이 대거 참석했다. 다음은 임원진 명단

과 연락처. △지회장=정연구 △부지회장=박만택 △사무국장=홍용철 △주소=부산광역시 동래구 명륜2동 137번지 △전화=(051)



부산광역시지회 개소 기념 촬영

555-1441, 555-2977 △팩스=(051) 550-4988.

대구광역시지회도 지난 9월 11일 등기를 마치고 개소했다. 초대지회장은 노영하 대구중구문화원장. △지회장=노영하(대구중구문화원장) △부지회장=정명표, 이재녕 △주소=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3가 7-4 △전화=(053)255-5123 △팩스=(053)254-1655.



정연구 부산 지회장



노영하 대구 지회장

부산광역시

【부산강서문화원】

문화유적지 답사

부산강서문화원은 지난 8월 17일 관내 삼광초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 80여명과 함께 창녕의 교동고분군 등 여러 문화유적지와 자연생태공원을 돌아보는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이어 세산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40여명은 지난 8월 24일 경북 고

령군을 찾아가 현장학습을 했다. 또 9월 4일에는 문화가족 1백10여명이 경남 사천과 고성 지역의 문화유적지를 답사했다. 이들 답사자들은 사천문화원의 장병석 부원장과 강점세 사무국장의 안내를 받아 선진리성(매항비)와 조명군총(귀무덤)·대방진 굴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데 이어 고성의 공룡발자국이 있는 상죽암과 이 충무공의 대첩지인 당항포를 돌아보며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광주광역시

【광주서구문화원】

20~21일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 열어

광주서구문화원은 10월20~21일 우리 고유의 전통예술인 국악의 진흥과 소질 있는 꿈나무들을 조기 발굴·육성키 위해 전국의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악·기악·타악 부문의 '제16회 전국학생 국악경연대회'를 개최한다. 또 10월 9일에는 한글날을 맞아 9시20분부터 11시까지 광주시민회관 공연장에서 '555돌 한글날 경축 문화예술행사 발표회'를 갖는다. 올해 광주시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쌍촌 우도농악'을 길놀이로 시작으로 전통무용·판소리·시조작품 낭송 등 아름다운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공연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광주 서구문화원은 지난 9월 14일 문화학교 프로그램 참가자와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제2차 아름다운 서구 자세히 보기' 체험투어를 실시했다.



【광산문화원】

이달말까지 '어등미술대전' 작품접수

광산구는 이달말 광산문화원이 주관하고 광주광역시·전국문화원연합회·광산구의회·호남신문사가 후원한 가운데 '제11회 어등미술대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화, 사예(한글·한문), 문인화 등 3개 부문에 걸쳐 열린다. 다음은 공모요강.

△출품절차(원서교부)

• 원서교부처:광산구청 문화정보과, 광산문화원, 광주 시내 필방 • 원서교부기간:9월1일~10월31일 • 출품수 및 출품료:1인당 부문별 3점 이내 1점당 20,000원

△작품접수기간 및 장소

• 접수:10월30일~31일 10:00~18:00 ※우편접수는 11월 1일 접수분에 한함 (송부처:506-041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룡동 528-14 광산문화원) • 추천, 초대 작가도 동일함 • 장소:광산문화원

△시상일시: 12월1일(토) 오후3시

△시상장소: 남도예술회관 1층 전시실

△시상내용 • 대상(광주광역시장상)4명-각부문별 1백만원 및 상장 • 우수상(광산구청장상)4명-각50만원 및 상장 • 특선(광산문화원장상)약간명-상장 및 부상 • 입선(광산문화원장상)약간명-상장 및 부상

△기타자세한 사항은 광산문화원으로 문의 TEL(062)941-3377 FAX 943-3390

【이천시】

제4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최



이천시는 지난 9월 1일 오후7시 미란 다 호텔 그랜드 볼룸홀에서 도자기 엑스포를 기념한 '제4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개막식을 개최했다. 또 9월 5~25일까지 백송화랑에서 '제4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초대작가 작품전'을 열어 여러 나라의 많은 작가들과 함께 문화적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대전광역시

【대전시지회】

제8회 전국풍물경연대회

대전시지회는 우리의 전통문화예술인 풍물음악을 후진들에게 계승케하고 민족의 주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지난 9월 22~23일 이틀간 대전 갑천둔치에서 '제8회 전국풍물경연대회'를 개최했다.

【대전동구문화원】

신임 성백일 문화원장

대전동구문화원은 지난 9월 5일 임시대의 원 총회를 열어 이석구 문화원장 후임으로 성백일씨를 신임문화원장으로 선출했다.

【대전서구문화원】

제1차 지역현장 문화시민교육

대전서구문화원은 지난 9월 10일 평촌동 길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지역현장 문화 시민교육'을 개최했다. 강사로는 문학박사이며 평론가인 충남대학교 송백헌 명예교수를 초빙했다. '가꾸어야 할 문화, 버려야 할 문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강연회는 '지난 30여년의 세월동안 소중한 우리 것을 망각한 채 앞만보고 내딛는 지난 삶을 반성하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것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 가꾸어야 할 우리문화와 버려야 할 인습을 올바르게 구분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수습해 후대에 대물림 해 줄 수 있도록 계승·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강연회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대전서구문화원은 "이번 강연회를 계기로 흐트러진 우리의 의식구조를 생산적이고 선진적인 문화의식으로 전환함으로써 21세기에 맞는 성숙한 세계인이 되고 품위있는 문화국민상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울산동구문화원】

울산동구문화원 개원

울산동구문화원은 지난 9월 14일 오후 6시 울산동구청 대강당 2층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울산동구문화원은 울산관내에서 4번째로 설립된 문화원이다. 이로써 전국 문화원은 2백12개가 된다. △원장=송정관, △사무국장=장세동, △주소=울산시 동구 대송동 174-11 대송농협 지하 △전화=(052)234-2202, △팩스=(052)234-2215

울산 동구 문화원 개원식



【경기도지회】

‘제13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 열려

제13회 경기도 민속예술축제가 9월22~23일 경기도와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주최로 광명시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이 축제에는 안진수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을 비롯 경기도 관내 문화원 임직원·회원들이 참석했다.

경기도

충청남도

【이천시】

장호원 복숭아 축제

제5회 장호원 복숭아 축제가 9월 21일~23일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레포츠공원에서 열렸다. 장호원 복숭아는 한국 최초로 일본에 수출될 만큼 매우 당도가 높고 맛이 좋기로 소문나 있다. 이번 축제는 장호원 복숭아축제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장호원 농협·이천여총이 주관했다.



【칠갑산장승문화축제선양위원회】

제3회 칠갑산장승문화축제 열려

칠갑산장승문화축제선양위원회는 장승문화보존과 발전을 위해 지난 9월 16일부터 ‘제3회 칠갑산장승문화축제’를 열었다.

【충청남도지회】

도내17개 문화원장 대상 월례회 개최

충남지회는 지난 8월 17일 덕산 뉴기야 관광호텔서 도내 17개 문화원장을 대상으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지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및 전국 체전 역도선수 응원단 구성 그리고 도지회 사업전반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문화원 종사자 '정보화' 실무교육

전국문화원 충청남도지회는 8월 24일

홍성문화원에서 문화원 종사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는 사무국장 및 실무간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업무에 대한 도청담당자의 강의와 정보전산화에 따른 문화원의 역할이란 주제로 전국문화원연합회 전명찬 문화정보과장의 설명이 있었다. 또 충남도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이버향토문화원 사업 전반에 대해 용역을 맡고 있는 인컴아이엔씨 담당자의 강리가 있었다. 이날 교육은 정보화에 뒤떨어진 문화원의 현실을 탈피하고, 인터넷을 통한 문화원의 질높은 서비스로 문화원의 이미지를 쇄신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는 알찬 시간이 됐다.

【은양문화원】

‘서예인들의 가훈 써주기’ 행사

은양문화원은 지난 8월 25~29까지 5일간 8월의 문화인물 오세창 선생의 뛰어난 예술혼과 지고한 업적을 기념하고 추모하기 위해 서예인들의 작품을 모아 서예전시회를 열었다.

【서산문화원】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평가보고회

서산문화원은 문화행사의 일환으로 지난 8월 30~31일 이틀간 이사 및 분원장, 문화가족대표, 분야별전문위원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현장학습을 실시했다. 또 지난 6월에 있었던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평가보고회를 9월 3일 서산시청회의실에서 열어 축제에 나타난 장단점 및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관련기사 72면>



【청양문화원】

출향예술인들의 작품을 모아 '서·화전' 등 다양한 문화행사

청양문화원은 지난 8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원 3층 강당에서 군내장기동호인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8회 칠석맞이 민속장기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장기동호인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군민정서 순화에 이바지하는 기회가 됐다. 지난 8월 29일에는 문화회원과 향토사연구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사조사·연구활동을 위해 백제문화권 역사유적지를 순례했다.

또 지난 9월 13~16일 4일간 청양문화원 3층 강당에서 고장의 향토문화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오고 있는 출향예술인들의 작품을 모아 '서·화전'을 개최했다.

청양문화원



전라북도

【부안문화원】

제5회 석정문학제 개최

부안문화원은 지난 8월 24일 신석정 선생 서거 27주년을 맞아 선생의 업적을 추모하고 그 시정을 찾아보기 위해 부안군 부안읍 신협 2층 회의실에서 문인 및 관내 주민·청소년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석정문학제'를 개최했다.

【군산문화원】

김양규 문화원장 등 임원진 선임

군산문화원은 지난 8월 17일 총회를 열고 임원진을 새롭게 선임했다. 다음은 임원진 명단. △고문=이병훈·남정근, △원장=김양규, △부원장=이복웅·고상국·신동수, △이사=채규안·이시준·이용선·고승곤·소현섭·조준환·김윤탁·황명규·유백규·박만규·이용우·천형균, △감사=이석환·이영룡. 또 그동안 군산문화원 분원에서 이루어지던 사무업무가 본원으로 일원화됐다. △주소=전북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31-21번지, △전화=(063)451-2138, 2180 (팩스겸용)

【영암문화원】

'사진·디지털 영상문화' 개설

영암문화원은 9월13일부터 4개월 과정으로 생활주변을 생생한 영상에 담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도록 '사진·디지털 영상문화' 강좌를 개설했다. 이 문화강좌는 사진에 대한 지식과 촬영 및 컴퓨터 영상 제작을 실기위주로 습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있다.

경상북도

【경상북도지회】

22~23일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열려



경북지회는 지난 8월 22일 도지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년 하반기 사업계획으로 사무국장 연찬회(8월31일~9월1일)와 '제10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 (10월22~23일) 및 '제8회 경상북도 민요경창대회' (11월중) 개최에 따른 추진 계획과 협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 회의로 10월 22~2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제10회 경상북도 농악경연대회'는 경상북도가 주최하고 경북지회와 상주시가 주관해 개최하게 됐다. 올해로 10번째를 맞은 농악경연대회는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돼 지역문화행사의 한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청양문화원



【(사)난계기념사업회】

제 27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

(사)난계기념사업회는 지난 9월 22~25일 4일간 우리나라 3대 악성 중 한분인 난계 박연 선생을 기념하는 '제27회 전국난계국악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로 우수한 신진 국악인에게 영예로운 등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악의 보존과 체계적 계승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울릉문화원】

제7회 우산문화제

울릉문화원은 10월 9~11일 울릉읍 일원에서 '제7회 우산문화제'를 개최한다.

공미영 신임 간사 임명

울릉문화원은 지난 8월 13일 공미영(22)씨를 간사로 임명했다.



【문경문화원】

대구·고령 등 문화유적지 탐방

문경문화원은 지난 8월 한달동안 총 5회에 걸쳐 청소년과 지역민에게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알려 예술적 소양을 쌓게하고 문화예술의 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자 우리문화 한아름 교육을 실시

했다. 한편 지난 8월 30일에는 문화가족 40여명이 국립대구박물관, 고령의 지산동고분군, 왕릉전시관, 양정동암각화 등 문화유적지를 탐방한데 이어 지난 9월 5일에는 향토사 연구위원 등 38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령의 대가야 유적지 및 국립대구박물관을 견학했다.



문경문화원

경 상 남 도

【경남지회】

문화가족 전국문화원연합회 방문

경남지회 문화가족이 지난 9월 19일 전국문화원연합회를 방문했다. 이동선 남해문화원장을 비롯한 박차생 진해문화원장·이병태 김해문화원장·이종관 양산문화원장·제두근 고성문화원장·권병석 함천문화원장·오필근 사천문화원장·김세윤 통영문화원장·김종현 경남지회사무국장 등 경남지회의 문화관계자 30여명은 18~19일 이틀동안 용산전쟁기념관·예술의전당·국립현대미술관 등을 견학하는 도중 전국문화원연합회를 방문해 이수홍 회장과 한담의 자리를 가졌다.

【마산문화원】

마산시립박물관 개관 축하공연

마산문화원은 지난 9월 12일 오후5시 박물관 앞 광장에서 마산시립박물관 개관을 축하하는 '시민 위안 공연'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5백여명의 시민이 참석해 인간문화재 기능을 보유한 남해 별신굿을 비롯해 다양한 전통민속공연을 관람했다. 한편 이날 개관한 마산시립박물관은 대지 2천3백25평에 건평 4백76평으로 지하1층은 수장고·유물정리실, 지상1층은 기획전시실·영상실·자료실, 2층은 상설전시실이 갖춰져 마산지역의 전통문화유산 보존과 지역문화 창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된다.

【전라북도】

13일부터 전주세계소리축제 열려

‘2001 전주 세계소리 축제’가 10월 13~21일 9일간 전주일원에서 개최된다. 전라북도가 주최하는 이번 축제는 우리 전통음악과 세계 곳곳의 음악전통의 흐름을 소개함으로써 동시대적이며 창조적인 ‘축제’를 통해 우리 선조들이 간직해온 한국적 품격과 풍류의 문화를 잇는 ‘소리’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마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행사는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문화관광부, 2001한국방문의 해가 후원한다.

한국방문의 해 10대 기획 이벤트의 하나로 선정된 ‘2001전주세계소리축제’는 약 2백여개(비공식공연포함)의 공연과 13개국에

서 초청된 해외공연단, 1백60여개의 단체, 3천여명의 출연진이 만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음악축제다. 이 축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예술을 선보이는 장으로, 세계적인 예술의 흐름을 앞서 제시하는 공간이 되고자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의 전통음악을 비롯 다른 나라의 음악과의 협연·제3세계 음악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전북의 음악적 자산인 판소리와 국악·관악 뿐 아니라 서양고전음악·합창음악·종교음악·민속음악·재즈·타악·동서협연 등 다양한 음악장르가 포함돼 있다. 이 다양한 음악장르들은 공



연장내에서 뿐 아니라 전주시의 중심인 축제광장, 덕진공원, 향교, 고급레스토랑 등 장소에 따라 다양한 소리들이 자리할 수 있도록 연출됐다. 또한 학술행사와 예술마켓, 데일리 퍼레이드 등 전주세계소리축제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전주시 어디에서나 소리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개막공연인 ‘온소리 콘서트’, ‘온누리 콘서트’를 시작으로 ‘우리소리의 맥박’, ‘Wins & Winds’, ‘그랜드 퍼레이드’, ‘데일리 퍼레이드’, ‘축제광장 콘서트’, ‘남도의 풍류’, ‘스윙 앤 그루브’, ‘소리아! 놀자!’, ‘제희와 영혼의 소리’, ‘자유참가 공연’, ‘테마소리투어’, ‘단가한 글노랫말 공모전’, ‘판굿’, ‘교사들을 위한 번개오페라 워크샵’ 등이 개최돼 2001전주세계소리축제는 소리의 진수 성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아노바 합창단



전주시향

【진주문화예술단】

3~10일 제51회 개천예술제

진주문화예술단이 10월 3~10일 경남 진주에서 '제51회 개천예술제'를 개최한다.

【김해문화원】

제1회 한가위 가족노래자랑 개최

김해문화원은 추석맞이 행사로 지난 9월 12~13일 이틀간 김해시 생활문화관에서 '한가위 전통음식만들기' 특강을 실시했다. 21~30일까지는 '찾아가는 순회예절교실'을 열어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전통예절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어 노래를 통해 가족간의 사랑과 화합을 가꾸며 즐거운 한가위 가족추억을 만들고자 올해 처음으로 '제1회 한가위 가족노래자랑'을 개최했다. 노래자랑은 26일 예선을 거쳐 28일 본선에 올라온 가족에게 행복상, 화목상, 다정상, 단란상, 화합상을 수여했다. 10월 9일에는 제555돌 한글날을 맞아 수로왕릉 경내에서 김해출신의 한글학자이며 독립운동가인 환산 이윤재 선생을 추모하는 행사를 갖는다.



'한가위 전통음식 만들기' 특강 모습

【밀양문화원】

14일 종합문화예술경연대회 열려

밀양문화원은 10월 14일 오전 10시 삼문동 야외공연장등지에서 제24회 종합문화예술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대회는 한글백일장·미술실기대회·음악경연대회·회화대회 등 4개부문에 걸쳐 경연이 이뤄진다.

【진해문화원】

제22기 컴퓨터교육 개강식

박차생 진해문화원 원장은 지난 8월16~18일 3일간 산청소재 삼성연수소에서 개최한 '남명조식선생 탄신 500주년기념' 선비문화축제에서 '진해문화의 현안과 대안'이란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한편 문화학교는 지난 9월3일 경남은행 진해지점 2층 회의실에서 학생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기 컴퓨터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제주도지회】

제1회 전도학생풍물놀이 경연대회

제주도지회는 지난 9월 29일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의 질을 높이고 우리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향상시켜 올바른 청소년문화를 육성시키고자 제주해변공연장에서 '제1회 전도학생풍물놀이 경연대회'를 개최했다.

【함안문화원】

지역현장 문화시민교육 강연회

함안문화원은 9월14일 문화원강당에서 이근호 경성대 대학원장을 초청해 '우리 문화와 중국문화'라는 주제로 제1차 지역현장 문화시민교육강연회를 열었다. 또 9월 18일 철원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강연회에서는 이근호 경성대 대학원장과 안상규 함안문화원장이 강연했다. 한편 함안문화원은 9월26일 회원 3백5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화유적지를 답사했다.

제 주 도

【제주문화원】

제주작가 초대전 개최

제주문화원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1일까지 이틀간 제주해변공연장에서 '제주민요 큰잔치'를 열어 제주민의 애환이 담긴 제주민요를 발굴·재현했다. 9월 8일에는 제주시 제46주년을 기념한 '학생문예 백일장'을 실시했다. 제주문화원은 또 9월 15~21일 7일간 '제주작가초대전'을 개최해 도민들에게 다양하고 깊이 있는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했다.

동 정

인사

김종 신임 광주서구문화원장

광주 서구문화원은 최근 김종(金鐘)광주광역시 문인협회장을 문화원장으로 선출했다. 사무국장에는 김정희씨를 임명했다.

김종 신임원장(53)은 조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경희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중앙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으로 등단(76)한 후 '장미원', '더 먼 곳의 그리움', '춘향이가 늙어서 월매되느니' 등의 시집 7권과 '전환기의 한국현대사' 등 6권의 저서를 펴냈다. 또 제8회 현산문화상 문학 본상, 제3회 민족시가 대상, 광주 직할시장 체육문화진흥표창, 제2회 백제문학상, '94 광주문학상, 제10회 표현문학상, 제2회 광주 예술문화상을 받은 바 있다. 김원장은 광주광역시 예총 수석부회장, 제2회 광주비엔날레 기획위원,

2002년 월드컵 광주유치 추진위원직을 지낸 바 있으며 현재는 '예술광주' 편집주간, 광주문화예술특구추진위원회 상임부회장, 광주광역시 문인협회장, 광주 MBC 문화방송 제1·2기 칼럼리스트, 광주방송 KBC 시청자 위원회 위원, 동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겸임교수, 광주광역시 제2건국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정희 사무국장은 교사 출신으로 여천군 화양중학교, 구례군 토지동중학교, 광주시 정광중학교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98년 '문학공간' 시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면서 문단에 등단했다.



김종 원장



김정희 사무국장

부음

조정승 고창문화원장 別世

조정승 고창문화원장이 지난 9월 1일 0시 30분 지병으로 별세했다. 故 조정승문화원장은 그동안 고창문화원의 발전을 위해 헌신을 다해 왔다.

결혼

이상년 관악문화원 사무국장 4녀 이진아양 '화촉'

이상년 관악문화원사무국장의 사녀 이진아양이 지난 9월 16일 관악웨딩문화원 오페라5층에서 화촉을 밝혔다.

이전

한국공예예술가협회 사무실 이전

한국공예예술가협회는 최근 사무실을 이전했다. △주소=서울시 중구 장교동 1번지 지하1층 87-88호 △전화=(02) 779-0886~7 △팩스=(02) 779-0883 △이메일=kcaa5757@lycos.co.kr

설 화

‘삼천갑자동방삭’ 덜미잡힌 솟내

대왕면(강남구)과 중대면(송파구)사이를 흐르는 개울이 '탄전'이다. 탄전은 경기도 용인군 보개사(寶蓋山)에서 발원한 물인데 북쪽으로 흐른 물줄기는 경안천(京安川)이 됐고, 서쪽으로 흐른 물은 머내 앞을 지나면서 원천(遠川)또는 협천이란 이름으로 불려오다, 중부면 솟골(현 성남시 수진동)앞을 지나면서 '솟내'란 이름이 붙게 됐다.

이 솟내라는 이름은 음양의 조화를 따라 음지(陰地)가 있으면 양지(陽地)가 있고 암늪이 있으면 솟늪이 있듯이 산속 깊은 곳의 안골이 암골로 변했고, 밖에 있는 마을은 자연 솟골이 된 것이다. 이것을 한자로 쓰자니 솟(炭)으로 됐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솟골이 되고, 솟골

앞을 흐르는 내도 솟내가 되어 탄천(炭川)이 된 것이다.

이 개울은 석촌리 앞까지만 솟내란 이름으로 내려오다 용등(龍登)바위(강남면허 시험장 부근)에 와서는 학여울 또는 학탄(鶴炭)이라는 이름으로 한강에 빠져 들었다.

이 탄천에는 재미있는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옛날 염라대왕(閻羅大王)이 사자(使者)를 불러 "삼천갑자(三千甲子:60년마다 돌아오는 갑자를 3천을 살았으니 꽤나 오래 살았다는 말) 동방삭(東方朔)을 잡아 오너라"하고 영을 내렸다.

사자가 광주땅에 내려와 골골마다 찾아 봤으나 못찾고 헤매던 차 하루는 옥

수같이 맑은 물이 흐르는 개울을 만났다. 사자는 물을 한 모금 마시다 묘안을 생각해 냈다. 솟 한덩어리를 얻어서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냇물에 솟을 씻고 앉아 있는 것이다.

지나던 사람들이 그 괴이한 광경을 보고 물었다. "그 솟을 왜 씻소? 사자가 태연하게 "하얗게 되라고 씻지요" 사람들은 "별 미친 놈을 다 보겠네"하고는 지나갔다. 며칠 후 호기심 많은 동방삭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다. 사자는 옆에 하얀 노인이 구경하는 것을 모르는 체하고 솟만 씻고 있으니, 동방삭이 "내가 삼천갑자를 살았어도 솟 씻는 놈은 처음봤네"하면서 가는 걸 사자가 얼른 쫓아가서 덜미를 잡아 끌고 염라대왕 앞으로 갔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솟내라는 설도 있다.

(송파문화원刊 '松坡謠話集' 중에서)

‘서산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 관광객 지역경제에 6억8천만원 ‘생산파급’ 효과

제2회 서산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평가 및 방문객 분석



서산문화재단위원회가 주최하고 서산문화원이 주관한 ‘제2회 서산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를 배재대 관광이벤트연구소(소장 정강환)가 평가 분석한 보고서다. 지난 6월 9일 (토)부터 10일

(일)까지 1박2일 동안

열린 이번 축제는 개막식 간소화를 비롯 가족단위 관광객 지향적인 교육·오락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특히 축제 방문객들은 ‘해미읍성의 고지도’와 ‘고문기구 액세서리’의 구입을 가장 많이 희망해 내년도 축제상품 개발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축제기간중 관광객들이 지출한 비용은 지역민의 2배이상으로 지역경제 생산파급효과는 약6억8천만원이다. (서산문화원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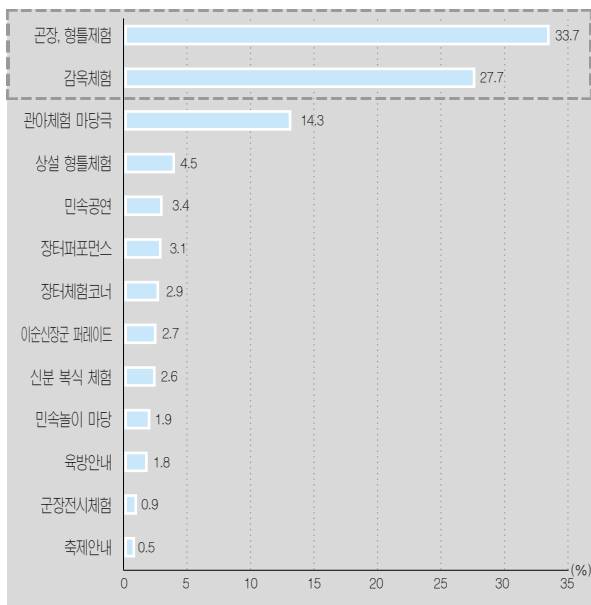
● 개막식 간소화·이벤트화 시도

서산시장이 축제대회장으로서는 옛 관복을 입고 개막식을 알리는 타고를 하고 축포에 점화함으로써 화제를 유발했다. 개막식 총 진행시간 18분으로 간소화 노력은 일부 모범적인 관광축제의 사례와 비교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축제대회장인 서산시장의 축제방문객 환영인사와 축사 3인 등으로 간소화를 시도했다.

●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곤장·형틀 체험’ ‘옥사체험’

○금년 ‘곤장·형틀체험’과 ‘옥사체험’은 전년에 이어 각각 1위, 2위의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축제방문객 평가 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회째를 맞고 있는 서산해미읍성역사체험 축제의 장기발전을 고려할 때 축제방문객 지향형으로서 축제의 예산과 홍보, 역량을 효과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방문객이 느끼는 가장 재미있는 프로그램



○전년에 이어 높은 축제방문객의 만족도를 확보한 요인으로서 전년 축제방문객의 높은 참여율에도 불구하고 체험시설 등의 부족으로 축제방문객을 적절히 수용할 수 없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험시설을 확충, 축제방문객의 체험기회를 확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곤장·형틀체험’의 경우 금년은 상설형틀체험구역을 별도로 배치해 형틀체험 퍼포먼스 시간대에 형틀체험이 불가했다는 점을 극복하고 수시로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 등이 주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옥사체험’ 역시 금년 시설의 보완과 체험도구의 확충으로 축제방문객의 높은 만족도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옥사의 지붕설치로 실제 옥사와 유사한 분위기 연출과 옥사내 족쇄·착고·수갑·목칼 확충 등 실제와 유사한 체험 및 체험기회 확대 등을 시도했다. 반면 지붕의 시설은 옥사내의 그늘 발생, 사실성 확보를 위해 시도했으나 전년에 비해 체험객이 다소 감소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주요 원인은 지붕설치로 인해 그늘이 발생하면서 옥사내부를 식별할 수 없어 체험이 가능한 공간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 축제방문객이 지목한 가장 구입하고 싶은 축제상품은 ‘해미읍성의 고지도’와 ‘고문기구 액세서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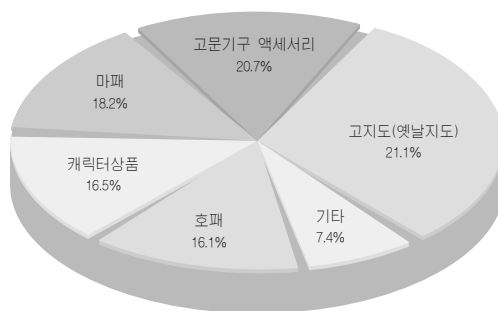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에 잠재성이 있는 ‘상품개발품목’을 분석한 결과 축제 방문객 전체의 21.1%가 ‘해미읍성고지도’라고 응답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이 결과는 곧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방문객의 주류가 자녀를 동반한 가족층 심관광객으로서 ‘교육용 축제상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유

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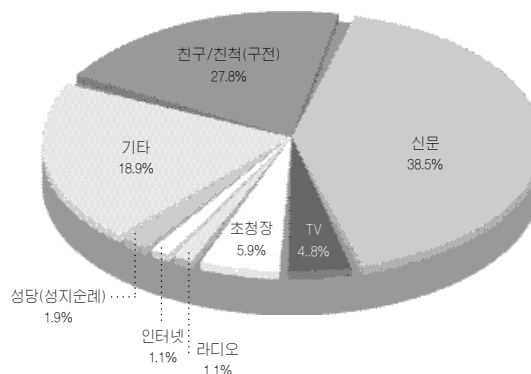
○2위의 잠재성이 있는 축제상품개발품목으로는 ‘고문기구 액세서리’가 20.7%를 차지했다. 이는 호야나무에 얽힌 역사적 사건인 병인박해(丙寅迫害)를 모티브로 해 축제 메인 프로그램인 곤장 및 형틀체험의 고문기구를 상품화한 것으로서 주제성 있는 상품으로서의 개발 잠재성이 높다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밖에 마패가 18.2%로 3위를 차지했고 캐릭터 상품이 16.5%, 호패가 16.1%, 그리고 기타가 7.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방문객의 응답치를 고려할 때 실제로 해미읍성고지도와 고문기구를 응용한 상품이 개발된다면 타 상품에 비해 구입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매년 지속적인 관광객 증가와 축제의 인지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내년 축제부터 서산문화원 등 축제주체가 주도해 적극적인 축제상품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상품개발품목’ 분석



제2회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방문객 정보매체



● 축제방문객의 가장 유력한 정보매체는 ‘신문’

제2회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에 찾아온 방문객들의 축제 정보매체를 분석한 결과 ‘신문’이 38.5%로 1위를 차지해 지난해에 이어 이번 축제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보매체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축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결과로 분석되는데, 그 이유는 국내의 여타 문화관광축제들에서 대부분 ‘구전’이나 ‘TV’에 의한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도 전국 주요 일간지인 ‘동아일보’, ‘경향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에 실린 축제 관련 기사가 축제 방문객 유치에

커다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축제 방문 목적은 '자녀 교육'

○해미읍성역사체험축제의 방문객 중 약 45%가 자녀의 교육적 목적으로 축제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특히, 축제방문객 중 약 62%가 가족단위 방문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축제방문객 지향형 프로그램 구성차원에서 교육형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교육성이 높은 프로그램으로 나타난 관아체험구역의 프로그램과 축제안내가이드시스템 등도 흥미도면에서는 다소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축제방문객의 실제방문 목적을 충족시키고 만족도를 향상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확대·발전방안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 전년대비 '서울·경기권' 축제방문객 증가

○관광축제의 핵심목표시장인 서울지역 관광객들이 5.5%로 4위를 차지했으며, 경기도는 4.4%로 그 다음 5위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서울은 0.7%, 경기는 1.8%씩 증가한 것으로 원거리 관광객들이 소폭이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한편 축제의 지역주민인 서산지역주민은 전체응답자의 63.1%를 나타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지만 전년도의 67.5%보다 4.4%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지역민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관광객 의존도가 높아져 관광축제 관점에서 관광객 유치에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올해 방문객 시장 조사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전' 지역 축제 방문객 비율의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올해 '대전' 지역의 점유율이 9.1%로 나타나 예년과 비교해 볼 때 뚜렷한 증가세로 분석되었다. 이렇게 대전지역의 방문객수가 증가한 것은 대전지역 신문을 통한 홍보가 작년보다 강화된 것 때문으로 유추된다.

● 가장 재미있는 안내는 '곤장·형틀' 체험구역

제2회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의 안내체험 방문객 조사결과 '곤장 및 형틀체험'이 27.2%로 나타나 11개의 프로그램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안내프로그램으로 분석됐다. 안내체험을 하는 방문객들이 안내가이드의 안내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 할 수 있고 형틀 체험극 진행시 방문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유도해 긍정적으로 분석됐다.

● 가장 알고싶은 정보는 '해미읍성의 역사적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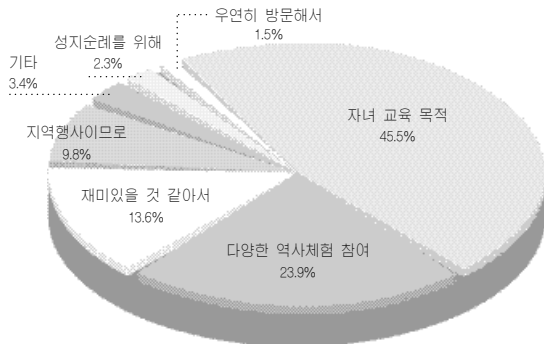
○제2회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의 관아체험 지역의 방문객 조사결과 '가장 알고 싶은 것' 가운데 '해미읍성의 역사적 의미'가 43.1%로 1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축제안내요원의 사전교육과정상 해미읍성의 발굴과 역사적 측면의 연구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 축제안내요원의 차원에서는 설명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년 개막일 특별프로그램으로 1회 실시한 역사전문가의 안내·해설프로그램을 참고로 해 전문적 역사안내해설을 시간대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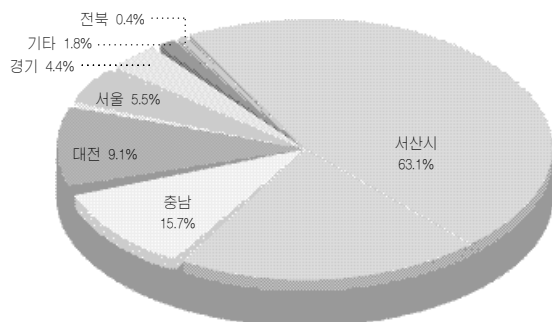
● 축제방문객 평균체류시간은 2시간 58분

○제2회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의 전체 방문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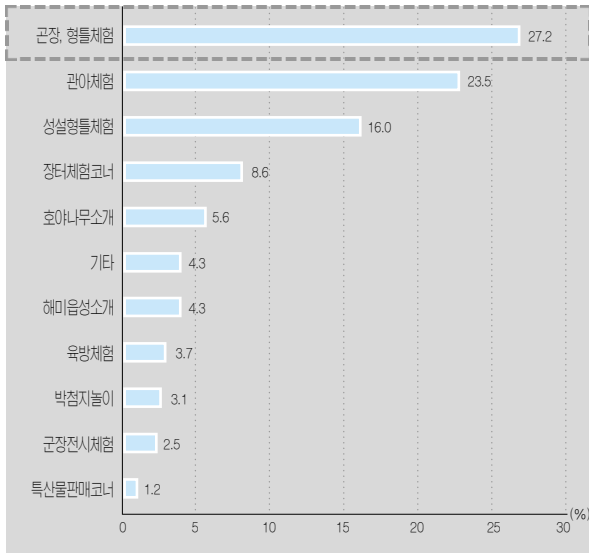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방문목적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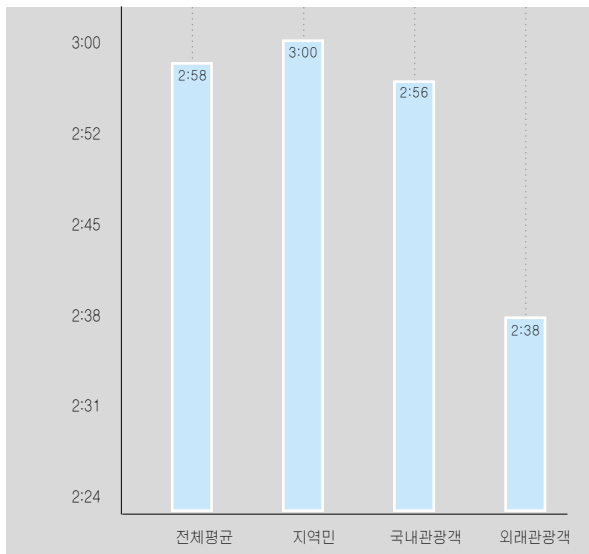
제2회 서산 해미읍성 역사 체험축제 지역별 방문객 분석



가장 재미있는 안내



축제방문객 체류시간



체류시간을 조사해 본 결과 평균 2시간 58분으로 나타나 작년의 2시간 52분보다 6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2년간의 연구결과로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의 전체 방문객의 체류시간이 2시간 55분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유추할 수 있다. 축제프로그램과 구역(ZONE)별 운영 계획을 이러한 체류시간이 2시간 55분이란 점을 참조해 짜

볼 수 있다.

○한편 행사장내 체류시간은 지역주민·국내 관광객·국외 관광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산 지역주민이 3시간으로 가장 많이 체류했고, 국내 관광객이 2시간 56분, 외국 관광객이 2시간 38분으로 나타났다.

● 관광객에 의한 지역경제 생산파급효과는 약 6억8천만원

○지역경제 산출 파급효과는 총 관광지출액에서 '교통비'의 경우 외지에서 지출되는 경우를 제외한 관광산업생산 유발계수를 곱해 계산했다. 따라서 '도로여객운송' 수입은 외지로의 유출액 50%를 제외한 684,435,765원으로 보았다.

○제2회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를 방문한 국내·외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총 8억 5백 만원으로 추정됨으로써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는 작년보다 경제 파급효과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지역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생산적인 축제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관광객의 축제기간 중 지출비용은 지역민 2배 이상

○제2회 서산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방문객들의 소비 지출비를 5개 부분으로 구분해 조사한 결과 '식음료비'가 5,706원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 5개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비'는 4,671원으로 26.4%(2위)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쇼핑비·유흥비·숙박비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방문객들의 소비지출 수준을 '지역주민'과 '국내 관광객'에 따라 비교 분석한 결과 '지역주민'은 평균 11,276원, '국내관광객'은 평균 28,844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내관광객'의 소비지출 수준이 지역주민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이러한 통계 수치는 축제관광객으로 인한 지역경제기여도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

(서산문화원 제공)

월간 '우리문화'

구독·광고문의 T.(02)704-2311



魚登의 脈(제5집) 광산문화원

‘어등의 맥(제5집)-碑碣文化 後篇’.

어등의 맥 4집에 이어 나온 충의비(忠義碑)·신도비(神道碑)·효열비(孝烈碑)·공적기념비(功績紀念碑) 등 광산구 비갈문화(碑碣文化)의 완결판이라 할 수 있다. 광산구 관내 비갈에 수록된 난해한 한문을 6개월여동안 편집위원들이 글자하나 토씨 하나에 심혈을 기울여 한글로 번역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朝鮮時代 史料를 통해본 麟蹄 인제문화원

조선조 역사를 년·월·일의 순서에 따라 편년체로 서술한 ‘각사등록(各司謄錄)’에 기록된 인제지역 관련 기사를 발췌·정리해 엮은 조선시대 역사 자료집. 고종실록·각사등록·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인제관련보고서·고종시대사·독립운동가신문조서·조선시대 사마방목·인제군연표·의병창의가의 순으로 조선시대 사료를 정리했다. 향토사연구자들에게 소중한 책이라 할만하다. 강대덕 강원대 사학과 교수 편저



松坡說話集 송파문화원

송파구와 관련된 구비설화·명승고적에 얹힌 설화·인물에 얹힌 설화·우리구의 나무에 얹힌 설화·없어진 지명유래·우리구의 동명유래·우리구의 문화재 등을 묶은 것. 책머리에는 ‘송파구에서 출토된 유물’·‘송파의 보호수’·‘송파산대놀이’·‘송파의 민속놀이’·‘팔도군현지도(광주)’ 등을 화보로 실었다. 이 책은 태종우·몽촌·가락동·방이동 등과 관련된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송파문화재위원회편.



평창의 민요 평창문화원

평창땅에서 불려지는 민요를 기능별로 분류하고 뜻을 밝혀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평창민요의 배경’·‘평창민요의 특징과 분포’를 밝힌후 ‘노동요’·‘유희요’·‘의식요’·‘아라리’를 소개했다. ‘노동요’에는 풀치는 소리·밭가는 소리·논매는 소리·아이어르는 소리 등이 들어있고 ‘유희요’에는 다복다복 다복녀야·성님오네 성님오네·베틀노래·풍년가·어랑타령 등이, ‘의식요’에는 상여소리·달구소리 등이 포함돼 있다. 진용선 정선아리랑연구소장 편저.



朝鮮時代 史料를 통해본 華川 화천문화원

화천문화원 향토사 제3집.

‘조선왕조실록’에 나와 있는 태조에서 철종까지의 기록과 ‘고순종실록’을 토대로 강원도 전반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사료를 비롯 화천과 관련된 자료를 발췌해 번역했다. 화천 지역사회의 과거사 진·사실·옛 인물의 행적·선인들의 생활문화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강대덕 강원대 사학과 교수 편저.



莞島金石文化 완도문화원

조상들의 사상과 공적이 담긴 역사의 숨결이자 향토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는 사당의 명기석물(銘記石物)·공적비·영구불망비·효열비·선정비 등 금석문을 사진과 함께 정리했다. 완도읍 소재 금석문들을 완도읍·금일읍·노화읍·군외면·신지면·고금면·약산면·청산면·소안면·금당면·보길면 등 읍면별로 현지조사와 자료수집을 통해 발간한 완도 금석문집이다.



남양주의 글씨와 서화가 남양주문화원

남양주 향토문화총서 10. 남양주에 산재해 있는 '금석문'·'선비들의 글씨'·'서화가'·'암각문'을 사진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조선중기 문신인 구성(具愼)을 비롯 김광옥·김상헌·김시습·조말생 등 옛선현 94명의 서화를 싣고 있다. 암각화를 보는 즐거움도 적잖다. 부록으로 '남양주의 서화가 명단'을 게재했다.



세종대왕의 얼 여주문화원

우리나라의 성왕이라 불리는 세종대왕의 생애와 업적 등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책. 세종대왕의 부왕과 형제를 비롯 사육신·큰며느리·장영실 등 관련 인물에 대해서도 조명했다. 또 세종대왕의 병력·영릉의 풍수·세종대왕릉 이장 내력·세종대왕릉 배치도·조선왕조가계도 등도 게재했다. 이른바 '세종대왕 백과사전'이라 할만하다.

이달의 정기간행물

- 오산문화 23호 (오산문화원)
- 蘆嶺 2001 가을호 (전주문화원)
- 늘 푸른 수원 제183호 (수원시)
- 유성소식 제108호 (유성구)
- 스산의 숨결 제214호 (서산문화원)
- 동양문화신문 제17호 (동양문화신문사)
- 레일로드 2001. 9 (철도방송)
- 미르 제 141호 (국립극장)
- 세계무속신문 제27호 (세계무속신문사)
- 청사초롱 제189호 (한국관광공사)
- 문화유성 2001. 9 (유성문화원)
- 聞慶文化 2001. 7 (문경문화원)

- 민족예술 2001. 9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 韓國民俗新聞社 제158호(한국민속신문사)
- 月出의 脈搏 115·116호(영암문화원)
- 문화유성 2001. 9 (유성문화원)
- 갑천문화 2001.9 (대전서구문화원)
- 文化藝術 2001. 9 (한국문화예술진흥원)
- 문화가족 제22호 (진해문화원)
- 목포문화사랑 제58호 (목포문화원)
- 公州文化消息 제 226호 (공주문화원)
- 新安文化 제11호 (신안문화원)
- 수원사랑 2001. 9 (수원문화원)

- 藝術世界 2001. 9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 太和樓 제7호(울산중구문화원)



지방문화원은 전국에 212개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지회(02-518-1294)
- 종로문화원(02-731-0628)
- 중구문화원(02-775-3001)
- 용산문화원(02-703-0052)
- 성동문화원(02-2290-7714)
- 광진문화원(02-447-9364)
- 동대문문화원(02-2241-9300)
- 종랑문화원(02-492-0066~7)
- 성북문화원(02-765-1611)
- 강북문화원(02-984-8086~7)
- 도봉문화원(02-905-4026)
- 노원문화원(02-938-1244)
- 은평문화원(02-383-9300~2)
- 마포문화원(02-312-1100)
- 양천문화원(02-651-5300)
- 강서문화원(02-3661-8233)
- 동작문화원(02-822-8500)
- 관악문화원(02-885-5975)
- 강남문화원(02-518-1295)
- 송파문화원(02-414-0354)
- 강동문화원(02-476-6681)
- 금천문화원(02-896-8553)
- 영등포문화원(02-846-0155)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지회(051-555-1441)
- 동래문화원(051-555-1441)
- 북구낙동문화원(051-301-2710)
- 강서문화원(051-972-6369)
- 연제문화원(051-759-3113)

- 기장문화원(051-724-2224)
- 사상문화원(051-310-4894)
- 금정문화원(051-581-9071~2)

대구광역시

- 대구광역시지회(053-255-5123)
- 중구문화원(053-255-5123)
- 달성문화원(053-611-0010)
- 남구대덕문화원(053-652-4450)
- 북구문화원(053-326-2555)
- 서구문화원(053-563-9066)
- 달서구문화원(053-553-4800)
- 동구팔공문화원(053-984-8774)

인천광역시

- 인천문화원(032-761-2778)
- 부평문화원(032-505-9001)
- 강화문화원(032-932-0011)

광주광역시

- 광주광역시지회(062-527-7701)
- 동구문화원(062-225-5815)
- 서구문화원(062-652-4148)
- 남구문화원(062-361-7256)
- 북구문화원(062-527-7701)
- 광산문화원(062-941-3377)

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지회(042-627-7517)
- 동구문화원(042-274-2135)
- 중구문화원(042-256-3684)
- 서구문화원(042-488-5474)
- 유성문화원(042-862-6969)
- 대덕문화원(042-627-7517)

울산광역시

- 울산동구문화원(052-234-2202)
- 울산문화원(052-272-3438)
- 울주문화원(052-279-0527)
- 울산중구문화원(052-244-2007~8)

경기도

- 경기도지회(031-239-1020)
- 수원문화원(031-244-2161~3)
- 성남문화원(031-781-1020)
- 의정부문화원(031-872-5678)
- 안양문화원(031-449-4451)
- 부천문화원(031-651-3739)
- 광명문화원(031-618-5800)
- 평택문화원(031-655-2184)
- 동두천문화원(031-865-2923)
- 안산문화원(031-480-9823~5)
- 고양문화원(031-963-0600)
- 과천문화원(031-504-6513)
- 구리문화원(031-557-6383)
- 남양주문화원(031-592-0667)
- 오산문화원(031-375-7755)
- 시흥문화원(031-315-6465)
- 군포문화원(031-397-0195)
- 하남문화원(031-795-1020)
- 용인문화원(031-335-2033)
- 파주문화원(031-941-2425)
- 이천문화원(031-635-2316)
- 안성문화원(031-673-2625)
- 김포문화원(031-984-6550)
- 양주문화원(031-840-6467)

- 여주문화원(031-883-3450)
- 화성문화원(031-353-6330)
- 광주문화원(031-764-0686)
- 연천문화원(031-834-2350)
- 포천문화원(031-532-5055)
- 가평문화원(031-582-2016)
- 양평문화원(031-771-3866)
- 의왕문화원(031-458-8041)

강원도

- 강원도지회(033-255-5105)
- 춘천문화원(033-254-5105)
- 원주문화원(033-764-3794)
- 강릉문화원(033-648-3014)
- 동해문화원(033-531-3298)
- 태백문화원(033-553-3161)
- 속초문화원(033-632-1231)
- 삼척문화원(033-573-2882)
- 홍천문화원(033-434-2080)
- 횡성문화원(033-343-2271)
- 영월문화원(033-373-3434)
- 평창문화원(033-332-3546)
- 정선문화원(033-563-5471)
- 철원문화원(033-452-6235)
- 화천문화원(033-442-2607)
- 양구문화원(033-481-2681)
- 인제문화원(033-461-6678)
- 고성군문화원(033-681-2922)
- 양양문화원(033-461-6678)

충청북도

- 충청북도지회(043-733-5588)

‘지역문화’가 궁금하면 노크하십시오

- 청주문화원(043-256-3624)
- 충주문화원(043-847-3906)
- 제천문화원(043-646-3646)
- 청원문화원(043-257-2858)
- 보은문화원(043-544-2314)
- 옥천문화원(043-733-5588)
- 영동문화원(043-742-2215)
- 진천문화원(043-533-2744)
- 괴산문화원(043-832-3588)
- 음성문화원(043-872-4084)
- 단양문화원(043-423-0701)
- 증평문화원(043-836-3400)

충청남도

- 충청남도지회(041-667-0417)
- 천안문화원(041-575-3004)
- 공주문화원(041-852-9005)
- 서산문화원(041-669-5050)
- 논산문화원(041-732-2395)
- 금산문화원(041-754-2724)
- 부여문화원(041-835-3318)
- 서천문화원(041-953-0123)
- 청양문화원(041-943-4774)
- 홍성문화원(041-632-3613)
- 예산문화원(041-335-2441)
- 태안문화원(041-674-2192)
- 당진문화원(041-354-2367)
- 대천문화원(041-934-3061)
- 온양문화원(041-545-2222)
- 조치원문화원(041-865-2411)
- 아우내문화원(041-564-1022)
- 성환문화원(041-581-2101)

전라북도

- 전라북도지회(063-287-5509)
- 전주문화원(063-288-7500)
- 군산문화원(063-451-2138)
- 익산문화원(063-835-0120)
- 정읍문화원(063-532-8723)
- 남원문화원(063-633-1582)
- 김제문화원(063-547-4659)
- 완주문화원(063-263-4335)
- 진안문화원(063-433-1674)
- 무주문화원(063-324-1300)
- 장수문화원(063-351-5349)
- 임실문화원(063-642-2211)
- 순창문화원(063-653-2069)
- 고창문화원(063-564-2340)
- 부안문화원(063-583-2101)

전라남도

- 전라남도지회(062-351-3255)
- 목포문화원(061-244-0044)
- 여수시문화원(061-682-5388)
- 순천문화원(061-723-4563)
- 나주문화원(061-332-5115)
- 광양문화원(061-763-0496)
- 담양문화원(061-383-6066)
- 곡성문화원(061-362-0890)
- 구례문화원(061-782-8802)
- 고흥문화원(061-835-5245)
- 보성문화원(061-852-2629)
- 화순문화원(061-374-3333)
- 장흥문화원(061-863-6362)
- 강진문화원(061-433-7373)
- 해남문화원(061-533-5345)

- 영암문화원(061-473-2632)
- 무안문화원(061-452-8648)
- 함평문화원(061-322-0505)
- 영광문화원(061-351-3255)
- 장성문화원(061-392-1796)
- 완도문화원(061-552-4834)
- 진도문화원(061-542-1108)
- 신안문화원(061-242-8131)

경상북도

- 경상북도지회(054-556-5234)
- 포항문화원(054-242-4711)
- 경주문화원(054-743-7182)
- 김천문화원(054-434-4336)
- 안동문화원(054-859-0825)
- 구미문화원(054-482-5422)
- 영주문화원(054-631-3300)
- 영천문화원(054-334-3030)
- 상주문화원(054-535-2339)
- 문경문화원(054-555-2571)
- 경산문화원(054-815-0593)
- 군위문화원(054-383-2003)
- 의성문화원(054-834-5048)
- 청송문화원(054-873-2527)
- 영양문화원(054-682-1378)
- 영덕문화원(054-734-2456)
- 청도문화원(054-371-2514)
- 고령문화원(054-954-2347)
- 성주문화원(054-933-0700~1)
- 칠곡문화원(054-974-0450)
- 예천문화원(054-654-3833)

- 봉화문화원(054-673-2350)
- 울진문화원(054-783-2270)
- 울릉문화원(054-791-0245)

경상남도

- 경상남도지회(055-2293-1186)
- 창원문화원(055-284-8870)
- 마산문화원(055-243-5222)
- 진주문화원(055-746-5001)
- 진해문화원(055-544-8880)
- 통영문화원(055-645-7755)
- 사천문화원(055-833-3163)
- 김해문화원(055-336-2646)
- 밀양문화원(055-352-3010)
- 거제문화원(055-681-2603)
- 양산문화원(055-386-0890)
- 의령문화원(055-573-2034)
- 함안문화원(055-583-2290)
- 창녕문화원(055-533-3777)
- 고성문화원(055-672-3805)
- 남해문화원(055-864-6969)
- 하동문화원(055-884-3929)
- 산청문화원(055-973-0977)
- 함양문화원(055-963-2646)
- 거창문화원(055-942-6166)
- 합천문화원(055-931-2401)

제주도

- 제주도지회(064-722-0203)
- 제주문화원(064-722-0203)
- 서귀포문화원(064-733-3789)

춘천문화원 (www.ccmunhwa.or.kr)

깔끔한 디자인에 풍부한 콘텐츠 지방문화원 링크 부족해 '아쉬움'

강민철 기자 mckang@kccf.or.kr

첫 인상은? 깔끔!
웬만한 홈페이지 저리가라하다. 화려하기 보다는 단정하다. 그렇다고 틀에 박혀있는 느낌이 아니라 자유스러운 느낌이다. 홈페이지를 만들때도 정중동(靜中動)은 중요하다. 메인화면은 두개의 프레임으로 나눈듯 하나 왼쪽메뉴를 클릭하면 오른쪽 프레임 뿐만 아니라 왼쪽 프레임도 바뀌어 단조로움을 없앤다. 직선미와 곡선미가 잘 조화된 디자인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알맹이가 중요한 법. 메인화면 왼쪽에 '문화원 소개' '춘천의 역사' '문화자료' '관광' '축제' '문화제' '춘천안내지도' '관련사이트'로 카테고리별 잘 구분해 놓았다. '춘천의 역사'를 클릭해 보면 왼쪽에는 시대별로, 오른쪽에는 고서(古書) 이미지 한 장과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 춘천을 소개하고 있다. 자세히 보고 싶으면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면 된다.

'관광'에 들어

가보면 '산' '담·다리·호수' '유원지' '명소' '절·공원' '관광농원' '지도 보기'로 나뉘어져 있어 원하는 곳을 쉽게 찾을 수 있다. 만일 소양담을 알고 싶으면 '담·다리·호수'를 클릭하면 된다. '축제'는 봄·여름·가을·겨울로 구분했다. '가을축제'에 마우스를 갖다대자 '소양제' '춘천국제마라톤대회' '춘천국제연극제'가 뜬다. 자유게시판에는 하루 3~4건의 글이 꾸준히 올라와 홈페이지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고 있다.

다만 두가지의 아쉬움이 든다. 한가지는 관광지 소개에 '교통·숙박정보'가 없어 실용성이 떨어진 점이고 또 한가지는 문화관련 사이트 링크란에 '지방문화원' 사이트가 많이 빠져있다는 점이다. 전국문화원연합회(www.kccf.or.kr)사이트도 보이지 않았다. **문**



알림

본회 편집실에는 전국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각종 사료나 향토지를 비치하고 있어 수시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합니다.

◎ 史料 및 情報資料 提供

전국 시·군지, 향토사 자료등 각종자료 3천여권이 비치되어 있는 본회에 訪問하면 됩니다.

◎ (향토지) 각종 圖書 復刊相談

지방에서 발행할 각종 책자의 편집 및 출간을 위해 자료, 견본 등을 제공하고 편간에 대한 자세한 상담도 해드립니다.

◎ 海外 刊行物 交流

해외에서 발행되는 여러 간행물을 통해 우리의 文化遺産에 대한 올바른 評價와 자료의 수집을 위해 “海外刊行物交流事業”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관련자 여러분이 소장하고 있는 서적이나 관련자료 또는 정보의 교류추진을 앞선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안내

月刊 우리문화는 5천여년 간 숨쉬어 온 民族文化를 아름답게 꽃 피워보고자 하는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自矜心을 기르고자 합니다. 이 책은 특히 海外에서 韓民族의 自矜心을 갖고 꽃피어 살아가는 분들에게 권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 구독료(권당 3,000원)

국내 : 1년 정기구독료 36,000원 (우송료 본회 부담)
6개월 구독료 18,000원
海外 : 1년 정기구독료 36,000+우송료
6개월 구독료 18,000+우송료
(※문화원 회원은 1권당 2,000원)

● 송금방법

송금은 농협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십시오.
• 온라인번호 농협 032-01-013084 문화원연합회

● 보낼곳

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전국문화원연합회 우리문화 편집실

제16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논문(사료) 공모

■ 취지

전국문화원연합회는 민족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향토문화의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전국 각지의 향토사료를 발굴, 새롭게 조명함으로써 향토사가의 연구의욕을 진작시키기 위해 제16회 전국향토문화연구발표회 논문(사료)공모를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공모요강

- 응모부문 (1)논문부문 (2)사료부문
※ 사료부문은 논문형식을 취하지 않은 단순 보고서도 무방함
- 연구분야 지역의 역사, 민속 등 향토사 전반
- 원고매수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 응모기간 2001. 5. 1 ~ 10. 15(마감일 소인유효)
- 발 표 2001년 11월 초 개별통보 및 본회 홈페이지(www.kccf.or.kr) 발표
- 시상식 및 발표회 2001년 12월(일정 및 장소 추후 통보)

■ 응모자격

- 논문부문
- 일반인, 향토사가, 대학생 및 대학원생(석사학위자 및 박사학위과정자 포함)
문화원(시·도지회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문화원 소속 향토사가
- 사료부문
- 문화원(시·도지회 포함) 임직원 및 회원, 문화원 소속 향토사가
- 기타
- 박사학위취득자(명예박사포함) 및 대학(교)에서 전임강사 이상(겸임, 객원교수 등 포함)은 응모할 수 없음
- 기 대상수상자는 수상 연도부터 3년 동안 응모할 수 없음
- 위 규정에 저촉되는 결격자 수상시 추후 수상자격 박탈 및 상금 회수

■ 시상내역

1. 논문부문 대상1편(국무총리상) 300만원, 최우수상1편(문화관광부장관상) 200만원, 우수상2편(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상·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각150만원, 장려상4편(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각100만원
2. 사료부문 최우수상(문화관광부장관상) 200만원, 우수상2편(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상·한국문화예술진흥원장상) 각100만원, 장려상3편(전국문화원연합회장상) 각 50만원

■ 응모요령

- 추천서 모든 응모작은 해당지역 문화원장의 추천서를 첨부해야 함.
※추천서는 지방문화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본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 첨부물 응모시 이력서 및 논문(사료)을 입력한 디스켓을 필히 첨부해야 함
- 응모수량 개인별 응모 수량은 제한 없으며, 논문의 각주표기는 일반적 용례를 따를 것

■ 유의사항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논문(사료)은 공모할 수 없으며, 입상되더라도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낙선으로 처리함
- 국내외에 이미 단행본으로 발간했거나 기타 간행물에 게재했을 경우
 - 다른 사람의 논문(사료)을 모방했거나, 허위사실을 작성한 경우
 - 이력서에 학위를 허위 기재 했을 경우

■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e-mail 접수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1202 전국문화원연합회
- 전화 (02)704-2311 팩스 : (02)704-2377
E-mail : mccun@kccf.or.kr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회 담당자에게 문의 및 홈페이지 참조 <http://www.kccf.or.kr>

전국문화원연합회